

보험동향

Insurance Trends

◆ 테마진단

2006년 하반기 경제·금융 환경 전망
FY2006 수입보험료 전망

◆ 보험산업 개관

◆ 보험산업 환경

◆ 보험지표 동향

◆ 보험제도 및 시장 동향

2005년 신종보험사기 대폭 증가
금융회사 등의 개인신용정보 관리보호 모범규준(BP)시행
간접투자자산 운용법 감독규정/시행세칙 개정
예금보험제도의 현안과제 및 개선방안
보증보험 시장 개방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 해외보험 동향

미국 동향
EU 동향
일본 동향
아시아 동향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

목 차

테마진단	1
2006년 하반기 경제·금융 환경 전망	1
FY2006 수입보험료 전망	11
보험산업 개관	26
보험산업 환경	29
1. 해외 경제	29
2. 국내 경제	31
3. 가계 경제 및 시중 자금 이동	33
보험지표 동향	35
1. 보험산업 총괄	35
2. 생명보험	38
3. 손해보험	49
보험제도 및 시장 동향	60
1. 2005년 신종보험사기 대폭 증가	60
2. 금융회사 등의 개인신용정보 관리보호 모범규준(BP)시행	62
3. 간접투자자산 운용법 감독규정/시행세칙 개정	65
4. 예금보험제도의 현안과제 및 개선방안	67
5. 보증보험 시장 개방	69
6.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73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77
해외보험 동향	81
1. 미국 동향	81
2. EU 동향	83
3. 일본 동향	93
4. 아시아 동향	99
통계표	103

테 마 진 단

◆ 2006년 하반기 경제·금융 환경 전망

동향분석팀

1. 머리말

고유가의 지속, 환율급락 등 우리 경제의 불안요인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 및 금융시장의 주요 변수에 대한 진단과 전망을 통해 보험수요 전망을 위한 기초정보를 제공하고자 함.

- 최근 들어 경기둔화의 조짐이 보이고 주요 금융변수의 불안이 가중되면서 보험산업 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우려되고 있음.
 - 최근 우리 경제는 주가 폭락에 따른 주식시장의 불안정 심화, 소비자대지수의 지속적 하락추세 등 하반기에 경기둔화의 징후가 나타나고 있음.
 - 특히, 고유가 기조의 지속, 원/달러 환율의 하락압력 등도 하반기 우리 경제에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음.
 - 경기둔화가 우려되고 금융시장의 불안정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보험산업의 환경 측면에서 시의 적절한 분석이 요구됨.
- 이에 본 논고는 보험수요 전망에 앞서 세계 및 국내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의 흐름을 진단하고 주요 변수에 대한 전망을 제시하고자 함.
 - 먼저 세계경제의 흐름을 진단하고 국제금융시장의 주요 변수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이들 변수가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함.
 - 국내 경기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경제변수들 중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변수를 중점으로 논의를 전개함으로써 2006년 하반기의 경제전망을 실시함.
 - 마지막으로 보험수요와 관련된 주요 금융시장 변수에 대한 분석 및 전망을 제시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2. 세계경제 흐름 및 전망

2006년 하반기 세계경제는 양호한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나, 고유가 및 글로벌 달러화 약세 등 불안요인이 상존함.

- IMF, OECD 등 국제기관은 2006년 주요국가의 경제성장률이 2005년에 이어 전반적으로 견조한 수준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함.
- 주요국제기구에는 에너지가격 불안정에도 불구하고 2006년도 경제성장률이 미국이 3.0%, 일본이 2.0%대 후반, 유로지역이 2.0%대 전후, 중국이 9.0%대 등 양호한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함.
- 전반적으로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 교역대상국의 성장세가 양호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내 수출기업의 수출물량도 안정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음.

<표 1> 주요국의 경제성장률 전망

(단위: %)

	2004년	2005년	2006년(E)
세 계	5.3	4.8	4.9(-)
OECD 국가	3.3	2.8	- (3.1)
미 국	4.2	3.5	3.4(3.6)
일 본	2.3	2.6	2.8(2.8)
중 국	10.1	9.9	9.5(9.4)
유 로	2.0	1.3	2.0(2.2)

주 : IMF 전망치를 주로 참조하였고, ()안의 수치는 OECD 전망치임.

자료 : IMF, *World Economic Outlook*, Apr. 2006.

OECD, *OECD Economic Outlook*, No79. May 2006.

- 2006년에는 국제유가가 높은 수준을 지속함에 따라 하반기에는 물가 및 금리 상승 압력이 다소 높아질 것으로 전망됨.
- 세계경제의 성장세가 지속되어 중국과 미국 등 주요 국가의 석유수요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이란 핵문제, 나이지리아 원유생산 차질 등 공급불안정으로 인해 원유가격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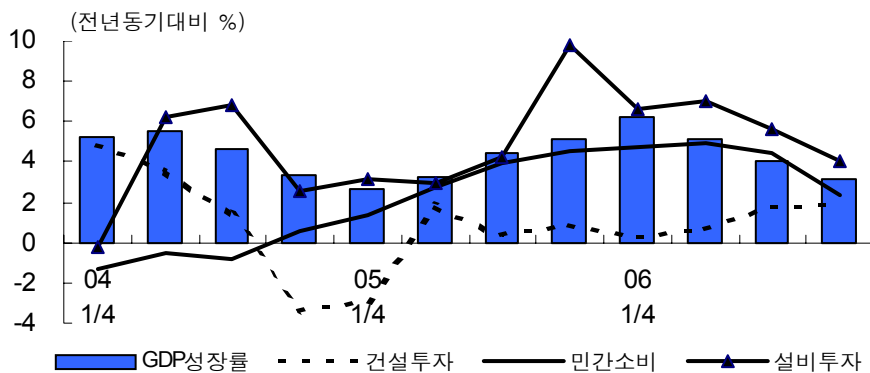
- 원유(두바이유 기준)가격은 2005년 말 배럴 당 53.9달러에서 2006년 5월 3일 배럴 당 68.58달러의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미국의 재고물량 증가로 인해 6월 13일에는 64.25달러로 다소 하락하였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임.
- o 원유가격이 2005년 말에 비하여 상당히 높은 수준임을 고려하면 에너지 소비량이 많은 중공업을 중심으로 채산성이 낮아지고 가계에도 물가부담이 증가하는 등 부작용이 우려됨.
- o 특히, 美 연준은 고유가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세가 지속되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을 해소하기 위해 정책금리를 인상함에 따라 전세계적인 금리상승압력의 증가가 예상됨.
-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 증가, 일본과 중국 및 러시아의 흑자 증가 등 세계경제의 경상수지 불균형이 확대되면서, 이에 대한 조정과정에서 2006년 들어 글로벌 달러화 약세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o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는 지난 2004년 6,681억달러(GDP의 5.7%), 2005년 8,050달러(GDP의 6.4%)로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2006년 1/4분기에도 2,249억달러(GDP의 7.1%)에 이르러 적자폭 확대추세가 지속되고 있음.
- 세계경제의 경상수지 불균형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2006년 초에 엔/달러 및 유로/달러는 각각 117.78과 0.844였으나 5월 중순에는 각각 109.59와 0.772까지 달러 가치가 하락.
- o 글로벌 달러화 약세심리가 확산되고 일본과 중국 및 유로지역 등의 경제지표가 호조를 나타냄에 따라 달러화 약세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
- o 결국 국내 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 달러약세 자체가 직접적으로 수출물량 증감에 미치는 영향은 과거에 비해 크지 않겠지만 환차손에 의해 수출기업의 채산성은 낮아질 가능성이 높음.

3. 국내 실물경제 흐름 및 전망

민간소비 둔화, 설비 및 건설 투자 부진, 그리고 수입증가율이 수출증가율을 상회하여 국제수지가 악화되는 등 2006년 하반기에는 경기가 둔화될 전망

- 2006년 국내경제는 1/4분기에 전년동기 대비 6.2%의 성장률을 보였으나 전기대비로 1.2%에 지나지 않아 하락세로 전환하였으며, 하반기 들어 민간소비 둔화, 설비투자 및 건설투자 회복 부진 등에 따라 연간 4.8%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
- 경제성장률은 2005년 1/4분기 2.7%를 저점으로 지속적으로 회복하면서 2006년 1/4분기에는 민간소비와 설비투자 등 내수가 경기를 주도하면서 전년동기 대비 6.2%를 나타냄.
- 그러나 올해 1/4분기 성장률은 전기대비로 1.2%에 불과하여 전분기 대비로 볼 때 2005년 2/4분기 1.4%, 3/4분기 1/6%, 4/4분기 1.6%에 비해 오히려 하락하는 추세를 나타내어 하반기에는 경기둔화가 뚜렷해질 전망이다.

<그림 1> 부문별 성장률 추이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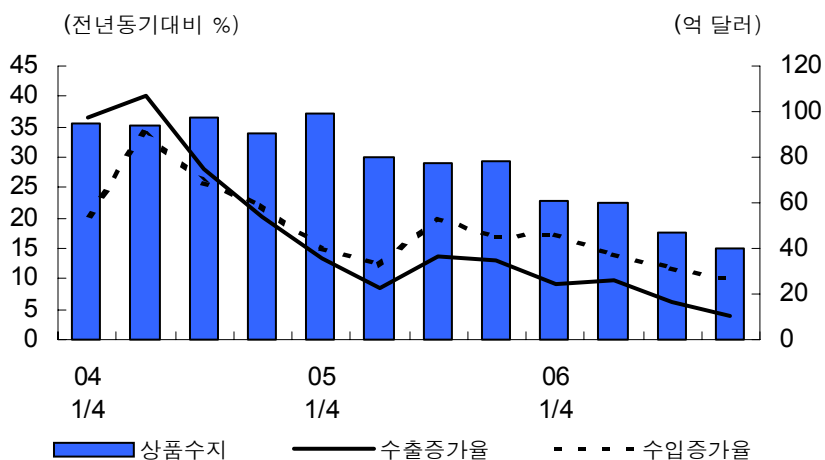


주: 2006년 1/4분기 이전은 실적치(한국은행), 2006년 2/4분기 이후로 본원의 전망치

- 실업률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고유가로 인해 공업제품의 가격상승으로 이어져 물가상승률이 연평균 3.1%를 기록할 전망이며, 이에 따라 민간소비는 4.1% 증가에 그칠 전망

-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소비자대지수도 올해 1월 104.5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5월에는 98.0을 나타내어 소비자들의 기대심리도 악화되는 추세에 있음.
- o 설비투자는 소비부진 및 수출증가율의 둔화로 인해 연평균 증가율은 5.8%에 그칠 전망이며, 건설투자는 부동산 경기하락 등에 따른 건축경기 위축으로 연평균 증가율은 1.2%에 그칠 전망
- 세계경제의 성장세로 원화가치 상승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수출물량 측면에서 점진적 증가가 예상되나, 고유가에 따른 수입증가 상승으로 국제수지 흑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 o 2006년 들어 원/달러 환율의 하락세에도 불구하고 수출증가율은 1/4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10.7% 증가하였으나, 지난 2005년 3/4분기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율이 하락추세에 있으며 2006년에는 연평균 7.1% 증가하는데 머물 전망임.
- o 수입증가율은 유가상승에 따라 원유수입부담이 증가하여 수출증가율을 상회하는 추세가 이어지면서 2006년에는 전년대비 13.0%의 수입증가율을 시현할 것으로 전망됨.
- o 이에 따라 상품수지 규모는 2005년 334.7억달러에서 2006년에는 233.2억달러로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그림 2> 수출입 추이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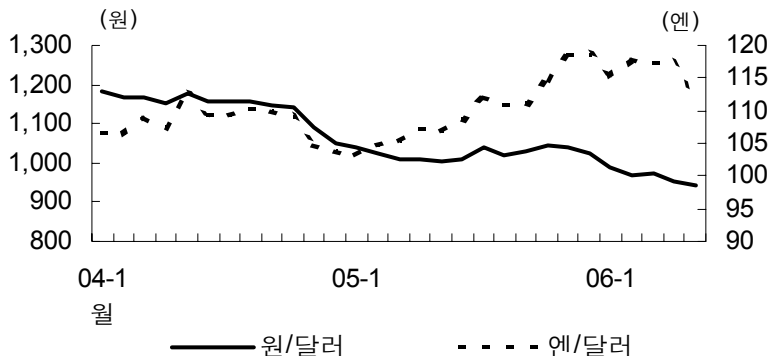
주: 상동

4. 국내 금융시장 전망

2006년 하반기에는 상반기보다 금리, 환율 등 주요 금융변수의 불안정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 경기하락 등의 영향으로 주식시장 불안은 지속될 전망이다.

- 원/달러 환율은 글로벌 달러화 약세에 따른 원화가치 상승압력이 있으나, 경상수지 흑자의 감소에 따라 그 압력이 약화되면서 달러당 960원대 중반에서 등락할 것으로 전망됨.
- 미국의 쌍둥이 적자 심화에 따른 글로벌 달러화 약세로 2006년 5월 한 때 원/달러 환율이 927.9원까지 급락하는 등 당분간 달러화 약세가 심화되었음.
- 2006년 1월 평균 원/달러 및 엔/달러 환율은 각각 987.0과 115.5에서 5월에는 941.4 와 111.7로 모두 하락하였으며, 엔/달러에 비해 원/달러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였음.

<그림 3> 원화 및 엔화의 대 달러 환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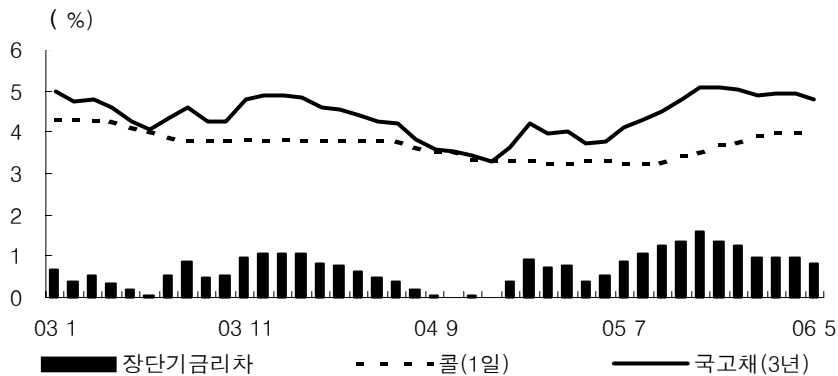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 2006년 하반기 우리나라의 상품수지와 경상수지의 흑자폭이 크게 감소하고 경기 둔화에 따른 금융시장에서의 투자자금 유출 가능성이 높아 원화의 상승압력은 크게 약화될 전망이다.

- 이와 같이 원화가치의 추가상승요인이 약화되고, 올해 들어 원/달러 환율이 엔/달러 환율에 비해 과도하게 하락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2006년 하반기에는 달러당 900원대 중반 수준을 유지할 전망
- 국내 시장금리는 미국의 정책금리 추가인상과 물가불안이 금리 상승요인으로 작용하는 반면, 국내 경기가 하반기 들어 둔화됨으로써 금리 하락요인으로 작용하여 상승요인과 하락요인이 상존하는 가운데 하반기에는 5.0% 전후 수준을 유지할 전망
- 미국의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美연준의 정책금리 인상에 따라 국제금리가 상승세로 이어질 조짐이 보이고, 이에 따라 국내 시장금리도 상승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
- 국내적으로 2005년에 이어 2006년 초까지 경기회복이 가시화되면서 국고채수익률(3년 만기)은 1월 초에 최고치인 5.16%를 기록하였으나, 최근 들어 향후 경기둔화 우려와 외국인의 국채선물 매수에 따라 6월1일에는 4.71%까지 하락
- 하반기에는 경기둔화가 예상되므로 대폭적인 정책금리 인상의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이며,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 및 내년 상반기까지 국고채수익률(3년 만기)은 5%를 전후에서 등락할 것으로 전망됨.

<그림 4> 국내 장단기 금리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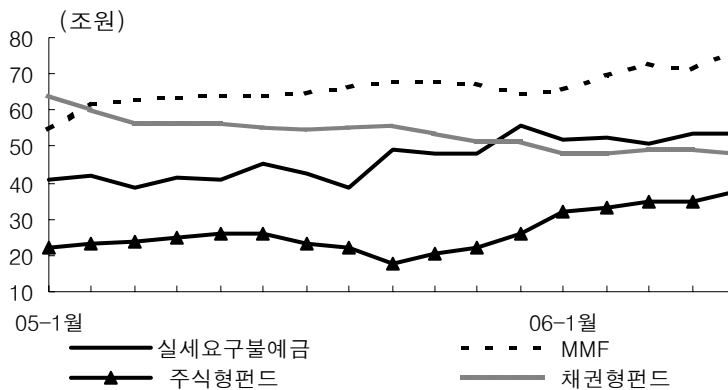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 주요금융시장 자금이동은 경기둔화와 이에 따른 주식시장 불안정으로 불안정한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높음.

- 작년에 비해 금리상승으로 인해 채권형펀드의 수신 잔액은 2006년 5월말에는 약 48.1조원으로 감소, 향후 금리가 급격히 하락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채권형펀드로의 자금유입은 크지 않을 전망
- 주식시장의 불안정과 이에 따른 자금이동에 의해 CD, MMF 등 단기성 상품에 대한 자금유출입도 부침을 보일 가능성이 높음.
- 주가지수가 올해 5월 11일에 1,465포인트까지 상승한 이후 미국 주식시장의 영향 등에 따라 일중 30포인트 이상 하락하는 날이 늘어났지만 주식형펀드로의 자금유입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
- 그러나 주가의 등락폭이 커지면서 펀드수익성의 불안정성이 지속될 경우, 환매 등 자금유입의 큰 폭 감소도 나타날 수 있음.

<그림 5> 금융상품별 수신 잔액 추이



자료: 한국은행, 자산운용협회

<표 2> 2006년 주요 경제지표 전망 종합

(단위 : %)

	2003	2004	2005	2006(F)
실질GDP	3.1	4.7	4.0	4.8(4.6)
민간소비	-1.2	-0.3	3.2	4.1(4.4)
설비투자	-1.2	3.8	5.1	5.8(6.2)
건설투자	7.9	1.1	0.4	1.2(2.2)
경상수지규모(US\$억)	119.5	281.7	165.6	47.7(87.9)
상품수지규모(US\$억)	219.5	375.7	334.7	233.2(224.0)
상품수출	20.7	30.6	12.1	7.1(12.0)
상품수입	18.0	25.6	16.1	13.0(16.2)
소비자물가(연평균)	3.6	3.6	2.7	3.1(3.3)
국고채(3년)	4.6	4.1	4.3	5.0(5.5)
원/달러환율(연평균)	1,191.9	1,144.7	1,024.3	965.7(1,007.9)

주: 괄호 안은 2005년 말 시점에서의 전망치를 나타냄.

4. 종합평가 및 시사점

2006년 하반기에 민간소비 증가세 둔화 등에 따른 경기둔화와 금융시장 주요 지표의 변화로 인해 보험권에는 전반적으로 불리한 환경이 조성될 가능성이 높음.

- 2006년 하반기에는 내수부진, 수출증가율 감소 등으로 인해 보험권에는 불리한 환경이 조성될 전망
 - 건설, 설비투자의 저조한 성장과 수출증가율 둔화는 관련 손해보험 종목들의 향후 수요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음.
 - 하반기 내수침체로 인해 개인정보보험의 수요 기반도 약화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신계약의 증가가 어려워질 수 있을 것임.
- 금융시장에서 채권금리 수준의 상승으로 인해 장기상품인 보험에는 긍정적 환경이 조성될 것이나, 주식시장의 불안정성은 투자형상품 수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하반기에는 금리수준이 전반적으로 5% 수준을 유지하면서 시중 자금이 MMF와

같은 단기 상품보다는 장기성 상품인 보험수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

- 또한 만기보유 목적의 채권을 다량으로 보유하고 있는 보험회사의 입장에서는 금리수준 상승이 자산운용 부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o 변액보험과 같은 투자형 상품으로 자금유입이 지속되고 있지만 주식시장이 급등락하면서 수요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투자형 상품인 변액보험의 특별계정의 운용에 있어 신속하게 전술적 자산배분(tactical asset allocation)을 실시하여 변동성 증가에 따른 손실 위험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 FY2006 수입보험료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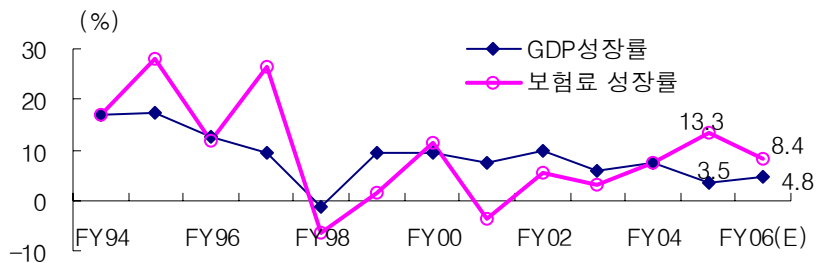
동향분석팀

1. 보험산업 전망 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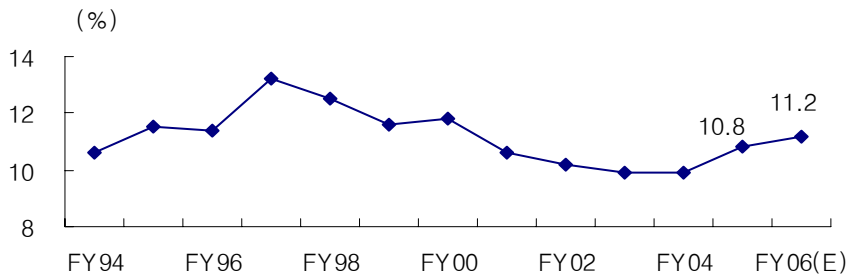
FY2006 보험산업은 경기 둔화 전망에도 불구하고, 연금 및 장기손해보험 등의 수요증가에 힘입어 8.4%의 성장률이 전망되며 보험침투도 역시 확대 추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 FY2006 보험산업은 2006년 하반기 이후 국내 경기 둔화 예상에도 불구하고, 연금 및 장기손해보험 등 고령화에 대비한 상품을 중심으로 성장이 확대되어 FY2005에 이어 2년 연속 경상GDP성장률을 상회하는 8.4%의 견조한 성장이 전망됨.
- 이에 보험침투도는 FY2006 약 11.2%로 전망되어 FY2002 9.9%의 가장 낮은 침투도를 기록한 이후 확대 추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됨.

<그림 1> 보험료 성장률 및 경상 GDP 성장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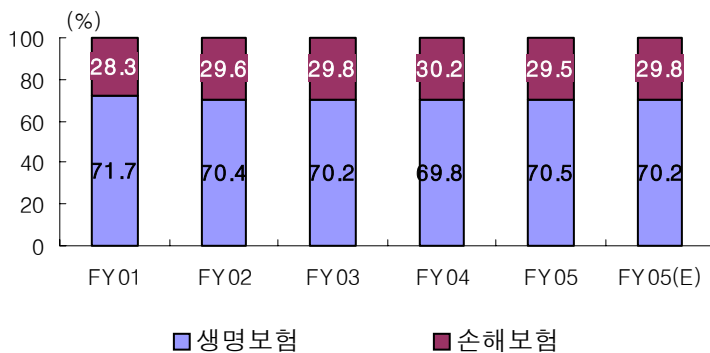
<그림 2> 보험침투도 추이



보험동향 2006년 여름호

- 생명보험은 사망보험과 변액유니버설의 성장정체로 성장률이 8.0% 수준으로 둔화되는 반면, 손해보험은 손해를 악화에 따른 자동차보험 보험료 인상과 장기손해보험의 꾸준한 확대가 예상되어 상대적으로 다소 높은 성장세가 예상됨.
- 변액보험을 제외하면 생명보험보다는 손해보험의 성장이 꾸준히 확대되어 FY2006에는 손해보험의 점유율이 30%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됨.

<그림 3> 생손보 점유율 추이



<표 1> FY2006 보험산업 수입보험료 전망

(단위 : 억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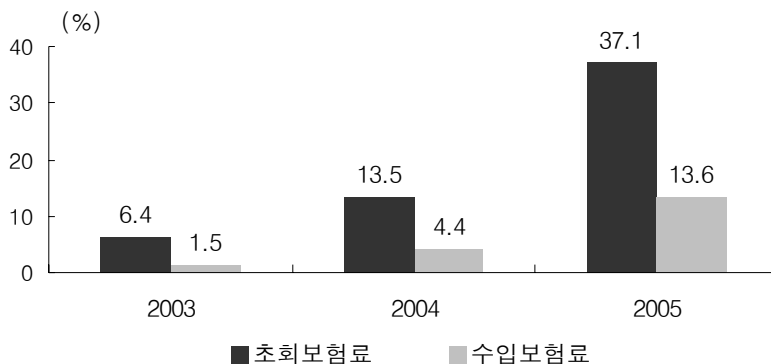
보험종목	FY2004		FY2005		FY2006(F)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생명보험	537,396	6.6	614,722	14.4 (13.5)	663,686	8.0 (8.4)
손해보험	232,189	8.6	257,234	10.8 (9.7)	281,808	9.6 (7.2)
전 체	769,585	7.2	834,452	13.3 (12.3)	945,494	8.4 (8.0)

2. 생명보험

FY2006 생명보험은 변액보험의 급격한 성장이 진정되고 퇴직보험의 본격적인 판매가 지연되면서 8.0%의 성장률이 전망됨.

- FY2006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개인보험에서 변액보험의 급격한 성장이 진정되고 단체보험에서는 퇴직보험의 성장률도 감소하면서 전체적으로 8.0%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 2005년 이후 경기회복이 이어지면서 FY2005 생명보험시장은 큰 폭의 성장을 하였으나 2006년 하반기 경제성장이 둔화됨에 따라 보험수요도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됨.
 - 생명보험 수요는 연초에 단행된 종목별 가격조정, 교차판매시행 여부, 설계사 수익증권판매 동향, 변액보험의 사업비 하락에 의한 마케팅전략변화 등이 향후 보험수요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보험시장의 성장을 주도했던 변액보험의 성장에 미치는 주가지수가 최근 들어 불안한 모습을 보임에 따라 변액보험의 급격한 성장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있음.
 - 변액보험은 주가상승과 밀접하게 성장했는데 연초 KOSPI가 950대에서 2006년 1월 중 최고 1,379p를 기록하였으며, 같은 기간 변액보험 수입보험료는 2005년 4월 3,621억 원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월 1조1,493억원에 이름.
 - FY2005 개인보험의 성장률은 변액보험을 제외하면 약 1.6%에 그쳐 거의 정체된 반면 변액보험을 포함할 경우 14.0% 성장해 변액보험이 전체 생명보험성장을 주도하였음.

<그림 4> 변액보험 보험료구성비 추이



- 개인보험의 경우 사망보험의 낮은 성장이 예상되나 변액연금 중심의 한 변액보험의 성장에 힘입어 7.7% 성장할 전망
- 경쟁력을 상실한 생사혼합보험의 감소를 연금을 중심으로 한 생존보험이 대체하는 추세가 지속될 전망
- 단체보험은 2006년 상반기 대기업들의 퇴직연금 가입이 저조하여 본격적인 성장이 의문시 되나 과거 가입된 퇴직보험의 해약을 수준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어 계속보험료 중심의 10.5%의 성장세를 기대

가. 사망보험

- FY2006 사망보험은 종신보험 성장세가 위축되고, 개인 실손형 건강보험의 저조한 실적에 따라 5.1% 수준의 낮은 성장이 예상됨.
- 당초 2005년 8월에 도입하기로 예정되었던 개인보험 실손보상보험이 시장성에 대한 의구심과 업계간 공조체제의 미흡으로 도입이 지연되고 있음.
- 보건복지부의 지속적 건강보험 보장성확대로 민간부문의 참여기회가 한정됨에 따라 질병, 상해와 같은 건강보험의 대체수요 전망이 어두움.
- 또한 민영건강보험도 타 보험종목과 달리 보험금지급률에 대한 전망이 불확실함에 따라 보험회사들이 판매에 소극적인 상황임.
- 변액종신보험도 투자성이 떨어짐에 따라 사망보험 성장을 이끌지 못해 전체 사망보험의 시장 주도력의 감소가 예상됨.
- 최근 사망보험은 변액보험을 포함해서도 FY2004 54.8%에서 FY2005 50.9%로 수입보험료 비중이 소폭 감소하였으나, 같은 기간 초회보험료 비중은 26.0%에서 13.1%로 급격히 감소해 신계약여력이 약해짐.

나. 생존보험

- FY2006 생존보험은 노후소득확보를 위한 투자형 보험상품에 대한 수요가 지속되는 가운데 변액연금상품으로 주력상품이 바뀜에 따라 장기적인 수입보험료기반이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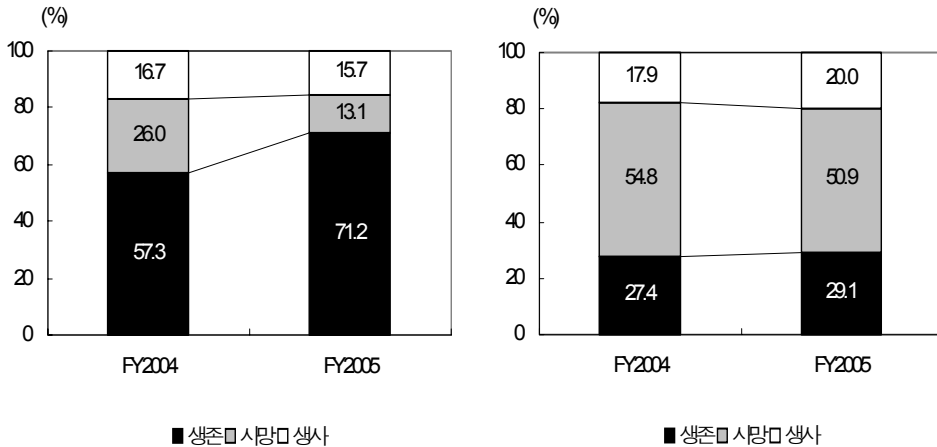
되어 12.7%의 양호한 성장세가 예상됨.

- FY2005 단기성 변액유니버설보험이 급성장했지만 변액연금상품도 294.1%라는 고 성장을 이루어 소비자들에게 장기 투자상품으로서 인식이 확립되고 있어 변액보험을 통한 안정적 수입보험료 거수라는 측면에서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음.
- 변액연금상품은 주가의 불안정한 변동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투자성과를 기대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다른 변액보험 상품보다도 안정적인 성장이 기대됨.
 - 개인수입보험료에서 생존보험의 비중증가는 소폭(FY2004 27.4% → FY2005 29.1%)이나 초회보험료에서의 비중은 57.3%에서 70%를 상회하는 증가를 보여 개인생명의 성장을 주도하고 있음.

다. 생사혼합보험

- 전통 생사혼합보험의 급속한 퇴조를 대체했던 변액유니버설보험의 수요가 변액연금으로 전환됨에 따라 FY2006에는 6.8% 성장하여 전년에 비해 성장률 하락이 예상됨.
- 지난해 세제혜택의 축소와 금리하락에 따른 부리이율하락으로 경쟁력을 상실해왔던 전통 생사혼합보험은 퇴조가 지속될 전망
- 전체 생사혼합보험의 성장을 이끌었던 변액유니버설보험은 2006년 하반기 시장금리의 상승이 전망됨에 따라 경쟁저축상품으로의 자금이탈이 우려되는 등 성장세의 하락이 예상됨.
 - 전체 개인보험 수입보험료에서 생사혼합보험의 비중은 증가(FY2004 17.9%→FY2005 20.0%), 상승추세이나 초회보험료에서의 비중은 다소 하락(16.7%→15.7%)하여, 향후 점진적인 성장감소가 전망됨.

<그림 5> 개인보험 초회보험료 비중 <그림 6> 개인보험 수입보험료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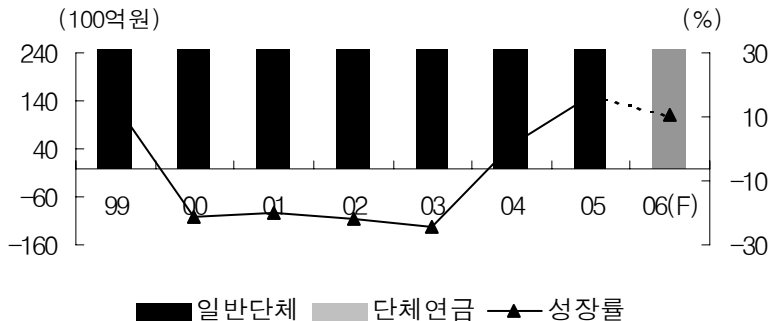


주) 종목별로 변액보험이 포함되었음.

라. 단체보험

- FY2006 단체보험은 퇴직연금의 부진으로 성장세가 감소될 것이나 일반단체보험의 감소세가 완화되고 퇴직보험 계속보험료의 증가로 10.5% 성장 전망
- 평균 20%대의 큰 폭의 감소세를 지속해왔던 단체보험시장은 FY2004 중 1.1%로 소폭 성장으로 반전하고 2005년에는 퇴직연금 도입에 따른 신상품효과로 17.1%의 양호한 성장세를 보였으나 당초 전망을 하회함.

<그림 7> 단체보험 수입보험료 추이



- 퇴직연금제의 안정적인 정착여부가 전체 단체보험 시장의 성장을 좌우할 것으로 보임.
- FY2006에는 일반단체보험도 종업원복지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하락세가 완화되고 퇴직보험의 계속보험료 등에 힘입어 전체적으로 단체보험 수요는 확대될 것으로 전망

<표 2> FY2006 생명보험 종목별 수입보험료 전망

(단위 : 억원, %)

보험종목	FY2004		FY2005		FY2006(F)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개인보험	480,031	7.4	547,521	14.1(12.0)	589,428	7.7(7.8)
- 생 존	131,285	9.1	159,305	21.3(14.1)	179,576	12.7(13.7)
- 사 망	262,964	13.4	278,492	5.9(7.9)	292,695	5.1(4.2)
- 생사혼합	85,782	-9.6	109,725	27.9(21.4)	117,157	6.8(9.1)
단체보험	57,365	1.1	67,201	17.1(25.8)	74,258	10.5(12.9)
합 계	537,396	6.6	614,722	14.4(13.5)	663,686	8.0(8.4)

주 : 1) ()안은 2005년 11월 추정·전망 수치임.
2) 변액보험은 종목별로 개인보험에 포함되었음.

3. 손해보험

FY2006 손해보험은 자동차보험의 보험료 인상, 장기손해보험의 계속보험료 유입으로 9.6%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일반손해보험의 경우 경기둔화 전망으로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임.

- FY2006 손해보험 산업은 2006년 하반기 이후 국내 경기둔화 전망, 금융시장 불안정 요인에도 불구하고 손해율 악화에 따른 요율 인상으로 자동차보험 보험료 규모가 확대되고 장기손해보험의 꾸준한 성장으로 9.6%의 성장률이 전망됨.
- 최근의 경제·금융 환경변화가 장기손해보험 수요에는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지만, 방카슈랑스를 통한 저축성보험의 계속보험료 유입과 통합형보험의 인기에 힘입어 당분간 높은 성장률을 나타낼 것임.
- 자동차보험도 FY2005 손해율 악화에 따른 요율인상으로 보험료 규모가 증가할 전

망이나, 일반손해보험의 경우 경기둔화에 따른 투자부진과 최근 손해율 안정으로 인한 보험료 인하 조정 등이 반영되어 성장이 다소 둔화될 전망이다.

가. 자동차보험

- FY2006 자동차보험은 온라인시장의 점유율 증가에 따른 가격경쟁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율 회복과 2005년 11월 정비수가 인상 및 2006년 4월 보험료 인상 등으로 전년 대비 9.4%의 성장세를 시현할 전망이다.
- 2005년 5월 이후 2%대를 유지하였던 자동차등록대수 증가율은 2005년에 들어서면서 3%대로 증가하여 2006년 3월에는 3.4%의 증가율을 나타냄.

<표 3> 자동차등록대수 증가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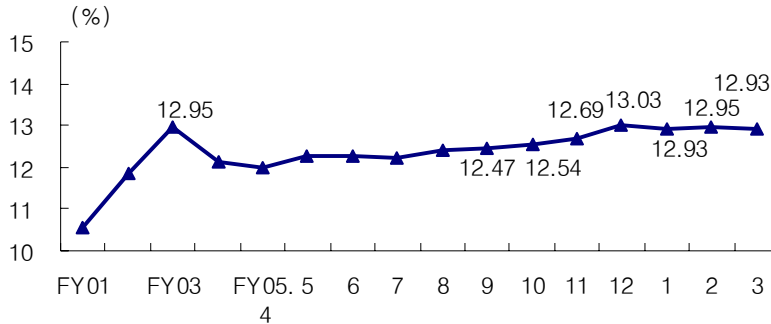
구분	FY2001	FY2002	FY2003	FY2004	2005년 10월	2006년 3월
증가율	7.7%	7.8%	3.3%	2.4%	2.9%	3.4%

주 : 전년 동기대비 증가율임.

- 최근 자동차보험의 보험료는 자동차등록대수 외에도 각종 수가 조정에 따른 요율 수준, 보상한도액 증감, 온라인 상품을 비롯한 다양한 상품 개발 등 정책적 측면의 요인이 크게 작용하고 있음.
- FY2006 자동차보험은 9%대의 높은 성장이 전망됨에도 불구하고, 과거 만성적인 보험영업적자 기초에서 탈피하지 못하여 손해보험회사의 주요경영악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
- 자동차보험은 2006년 4월부터 보험료 인상이 단행되고, 최근 자동차대수 증가율이 다소 회복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시장점유율의 꾸준한 증가와 보상한도 확대 등으로 손해율이 급격히 안정되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됨.
- 과거 자동차사고율 발생 추이를 보면, FY2006에도 자동차사고율은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워 손해율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임.
 - FY2005 자동차사고율은 12.93%로 태풍 ‘매미’로 인한 피해규모가 컸던 FY2003 (12.95)%에 이어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음.

- 폭설피해가 있었던 2006년 12월을 제외해도 FY2005 월별 사고율은 12% 후반 ~ 13%대로 높게 나타나 교통법규위반자 사면, 모형단속카메라 철거 등의 영향이 지속적으로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그림 8> 자동차사고율 추이



자료 : 보험개발원, 『월말보고서』, 각 월호.

- o FY2006에는 9%대의 보험료 성장 전망으로 적자폭이 다소 축소될 수는 있겠지만, 가격경쟁 및 손해를 악화 지속으로 수익성 측면에서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임.
- FY2005 자동차보험의 보험영업이익은 -6,578억원으로 태풍 ‘매미’로 인한 피해가 있었던 FY2003보다도 손실규모가 655억원 손실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온라인 시장 확대 등 보험회사간 M/S 확보 경쟁이 격화될 경우 합산비용은 더욱 악화될 우려가 있음.

<표 4> 자동차보험 시장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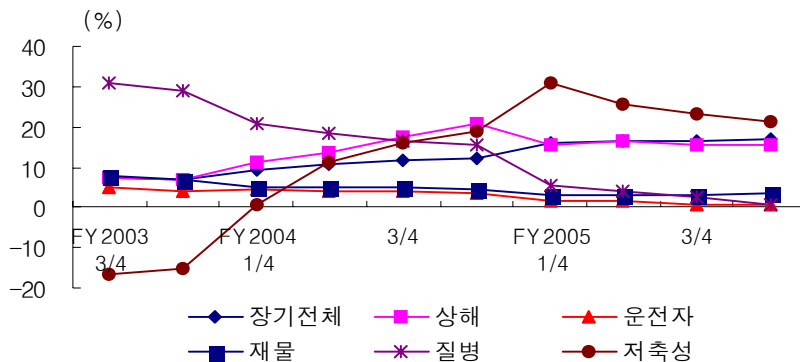
구분	FY2001	FY2002	FY2003	FY2004	FY2005
자동차등록대수 증가율		7.8%	3.3%	2.4%	3.4%
온라인비중	-	2.0%	4.5%	7.2%	10.2%
손해율	67.6	68.4%	76.7%	72.2%	76.6%
사고율	10.54%	11.85%	12.95%	12.15%	12.93%
보험료성장률	14.8%	6.1%	0.6%	7.0%	3.1%
보험영업이익	△96억원	△426억원	△5,923억원	△3,708억원	△6,578억원

자료 : 보험개발원, 『업무보고서』, 각 년도.

나. 장기손해보험

- 2006년 하반기 들어서도 장기손해보험은 방카슈랑스를 통한 저축성보험과 통합형보험을 중심으로 당분간 성장이 지속될 것임.
- FY2006 장기손해보험은 장기저축성보험의 성장이 다소 감소할 전망임도 불구하고, 계속보험료 유입으로 꾸준한 성장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고, 통합형보험을 중심으로 한 상해 부문의 보험료 증가가 지속되어 11.2%의 성장이 예상됨.
- 최근 장기손해보험의 고성장은 주로 방카슈랑스를 통한 판매 허용 이후 저축성부문과 통합형보험 등 상해부문의 성장세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됨.
- 이 외에도 2006년 10월부터 방카슈랑스를 통한 만기 환급형 제3보험의 판매가 허용됨에 따라 장기손해보험 보험료 확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그림 9> 장기손해보험 부문별 성장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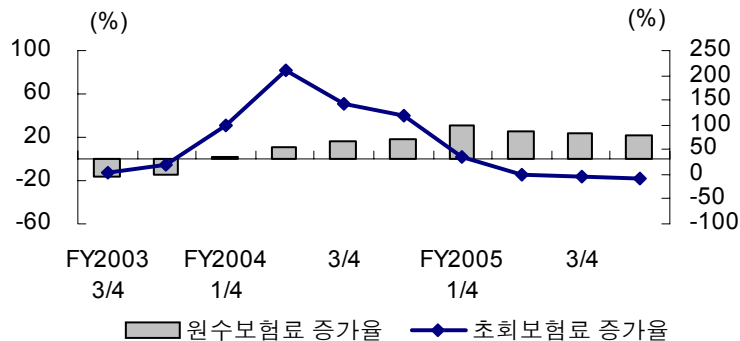
자료 : 보험개발원, 『업무보고서』, 각 월호.

- 장기손해보험 부문별 성장률을 보면, 저축성 부문과 상해부문이 전체 장기손해보험을 상회하는 성장을 시현한 것으로 나타남.
- 장기저축성보험은 2003년 8월 방카슈랑스 허용 이후 판매가 급격히 증가하여 최근 전체 장기손해보험 성장을 견인하여 왔음.
- 방카슈랑스 허용 이후 FY2004부터 본격적으로 판매가 증가하여 FY2004 2/4분기

에는 초회보험료 성장률이 209.2%를 기록하는 등 급성장세를 나타내어 왔음.

- FY2005에는 방카슈랑스 도입 초기 효과가 안정되어 초회보험료 성장률은 마이너스로 전환되고, 원수보험료 기준 23.0%의 성장을 나타내었음.

<그림 10> 장기저축성보험 원수보험료 및 초회보험료 증가율



자료 : 보험개발원, 『업무보고서』, 각 월호.

- FY2006 장기저축성보험은 원수보험료 기준으로는 높은 성장률을 지속하겠지만, 신계약의 증가세는 다소 감소할 전망이다.
- 2003년 11월부터 피보험자 뿐만 아니라 세대원의 모든 위험을 하나의 증권으로 관리해주는 통합형보험은 보험금 청구의 간편화, 전담 설계사를 통한 통합 리스크관리, 저렴한 보험료 등으로 판매가 증가하고 있음.
- 통합형보험은 초기에는 대형사를 중심으로 판매하였으나, 최근에는 거의 모든 손해보험회사에서 판매하여 FY2005에는 전년 대비 378.1% 성장한 9,127억원으로 화재 및 해상보험을 상회하는 보험료 규모를 나타내고 있음.

<표 5> 통합형보험 원수보험료 추이

(단위 : 억원, %)

구분	FY2004	FY2005				
		1/4	2/4	3/4	4/4	연간
보험료	1,909	1,467	1,965	2,525	3,170	9,127
성장률	-	-	33.9	28.5	25.5	378.1

주 : 분기별 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FY2005 연간 성장률은 전년 대비 성장률임.
자료 : 보험개발원

다. 일반손해보험

- 일반손해보험은 FY2005 대부분 종목에서 견조한 성장을 나타낸 반면, FY2006에는 설비, 건설투자 부진과 수출증가율 둔화 전망으로 기업성 보험에 대한 수요가 축소되면서 성장이 둔화될 전망이다.

○ 특종보험

- 종합보험의 경우 패키지형 보험에 대한 수요 증가, 방카슈랑스를 통한 기업성 보험 확대에도 불구하고, FY2006 보험요율 인하가 단행되고 2006년 하반기 이후 경기 하락 등의 영향으로 성장률이 다소 둔화될 것으로 전망됨.
- 상해보험은 홈쇼핑 판매 활성화, 기업의 단체보험 가입 등으로 꾸준한 수요가 예상되지만, 민간소비 둔화 등 경기둔화 전망과 보험료 인하로 FY2005보다 낮은 성장을 나타낼 전망이다.

○ 화재보험

- FY2006에는 일반물건을 중심으로 보험료 인하가 실시되어 원수보험료 감소가 예상됨.
- 방카슈랑스를 통한 종합보험으로의 계약 이전, 2006년 건설 및 투자 부문의 부진 전망 등도 보험료 성장을 저해할 것임.

○ 해상보험

- 해상보험은 선박보험 중심의 보험료 상승세가 유지될 것이나, 수출증가율 둔화 및 보험료 인하에 따른 적하보험 성장률 하락 등으로 1%대의 성장에 그칠 전망이다.

○ 보증보험

- 모기지크레딧보험, 성능보증보험, ABS보증보험, e-biz 보증보험 등 신상품 출시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실물경제 성장 둔화에 따른 보증수요 감소 예상, 유사보증기관과의 경쟁 등으로 FY2005에 미치는 못하는 성장률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됨.

<표 6> FY2006 손해보험 종목별 수입보험료 전망

(단위 : 억원, %)

종목	FY2004		FY2005		FY2006(F)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화 재	2,937	-7.1	3,243	10.4 (5.5)	3,142	-3.1 (-0.2)
해 상	5,071	-3.3	5,277	4.1 (5.1)	5,367	1.7 (3.1)
자동차	85,208	7.0	87,890	3.1 (3.0)	96,152	9.4 (4.1)
보 증	9,018	-4.3	10,067	11.6 (1.2)	10,198	1.3 (2.5)
특 종	21,181	13.0	23,513	11.0 (11.1)	25,441	8.2 (9.3)
장 기	96,353	12.3	112,562	16.8 (14.1)	125,169	11.2 (10.1)
개 인	6,799	-1.1	6,976	2.6 (-3.5)	7,276	4.3 (-3.5)
퇴 직	5,622	13.6	7,707	37.1 (58.3)	9,063	17.6 (13.0)
합 계	232,189	8.6	257,234	10.8 (9.7)	281,808	9.6 (7.2)

주 : 1) ()안은 2005년 11월 추정·전망 수치임.

2) 특종보험에는 해외원보험, 부수사업, 권원보험이 포함됨.

4. 시사점

국내 경기 둔화, 주식시장 불안정, 금리상승 등에 따라 보험산업은 다양한 상품 설계 및 위험보장, 철저한 손익분석, 고객관리 등을 통해 성장성 확보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수익기반 마련을 위한 노력이 요구됨.

- 2006년 하반기 경기 둔화가 예상되고 주식시장도 불안정해짐에 따라 보험산업은 생명보험을 중심으로 성장세 둔화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음.
- 2006년 하반기 경제상황은 당초 경제전망치보다 둔화될 전망이다 금융시장도 불안정해져 변액보험, 퇴직보험 성장이 둔화되는 양상을 나타낼 전망이다.
- 손해보험의 경우 FY2006에는 자동차보험 보험료 인상, 장기손해보험 계속보험료 유입으로 9%대의 성장이 예상되나, 장기적으로는 경제금융환경 변화가 손해보험 산업에도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임.
- 생명보험 산업은 견인차 역할을 하는 변액보험이 주가의 불안정한 등락, 금리상승 등 금융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보임에 따라 타금융권 상품과 경쟁상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
- 변액보험자산수익률의 하락과 금리상승에 따른 경쟁상품의 부리이율 상승은 변액보험 성장에 부정적인 요소임.
- 생명보험회사들은 변액보험상품 수익률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한편 투자수요를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보험상품으로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금융시장이 불안한 시기에 변액보험의 지속적인 성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익률이 아닌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안정적인 노후대비 수단으로 변액보험상품을 설계, 운용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변액보험 수요를 기존 전통형 상품으로 전환함으로써 균형적인 상품포트폴리오를 개발하여 보험회사의 안정적인 수익기반을 확충할 필요성이 있음.
- 손해보험 산업도 9.6%의 양호한 성장이 전망되지만, 최근의 경제, 금융 환경 변화가 장기손해보험을 중심으로 한 가계성 상품 수요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자동차보험의 만성적인 보험영업 적자 구조가 우려됨에 따라 수익성 관리가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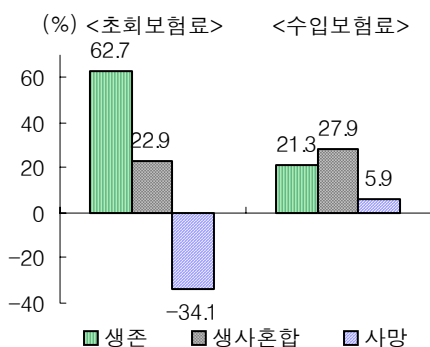
- 장기손해보험은 방카슈랑스를 통한 저축성보험료 유입 지속, 통합형보험 활성화로 FY2006에는 양호한 성장이 예상되나, 하반기 국내 경기하락 등으로 성장이 둔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상해 및 질병 부문에서 통합형보험의 판매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나, 생보사의 실손형 건강보험 도입,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범위 확대 등은 장기상해 및 질병보험 성장에 마이너스 영향을 미칠 것임.
 - 장기손해보험은 손해보험사 고유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다양한 위험 보장 상품을 제공함으로써, 시장점유율을 확대하고 철저한 손익관리 및 고객관리를 통해 수익을 극대화함이 바람직함.
 - 특히, 통합형보험은 판매 및 시장 확대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리스크 관리를 통해 고객유지율을 제고시킴으로써 수익을 창출하고 자사 마케팅의 기반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자동차보험의 경우 성장과는 별도로 만성적인 적자구조 지속이 우려되는 만큼, 수익성 개선을 위한 노력이 요구됨.
 - 최근 논의되고 있는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하여 장기적인 사고율 감소 및 손해율 안정화를 도모하고 보험사기 적발 및 감소, 의료·수리비 절감, 사업비 절감에 노력해야 할 것임.

보험산업 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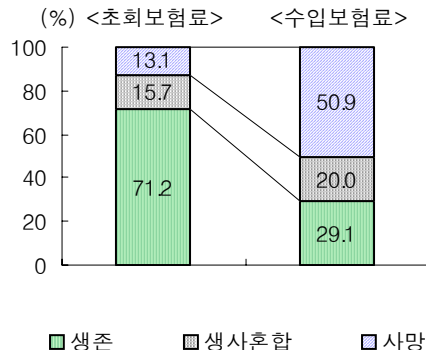
장기성 개인보험의 수입보험료 특징을 분석한 결과 생명보험은 저축 및 투자형 상품을 중심으로 성장한 반면, 손해보험은 보장성 상품을 중심으로 성장하는 패턴을 보임.

- FY2005 개인생명보험의 경우 생존, 생사혼합 등 저축성의 성격을 갖는 보험이 성장을 주도한 반면, 보장성 보험인 사망보험은 성장이 크게 정체되었음.
- 변액보험의 성장에 힘입어 저축성 보험의 성격을 갖는 생존 및 생사혼합보험의 초회보험료가 각각 전년대비 62.7%와 22.9% 성장하였으며 수입보험료도 각각 21.3%와 27.9%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음.
 - 이러한 성장세에 따라 생존 및 생사혼합보험의 종목별 비중은 초회보험료에서 15.7%와 71.2%를, 수입보험료에서는 20.0%와 29.1%를 차지함.
- 보장성보험인 사망보험의 초회보험료는 -34.1%의 성장률을 기록하였고 수입보험료도 상대적으로 저조한 5.9%의 성장률을 기록함.
 - 이러한 사망보험의 저조한 성장세에 따라 초회보험료 비중이 13.1%로 상대적으로 낮았으나 기존 계약에 기인하여 수입보험료 비중은 50.9%를 차지함.

<그림 1> FY05 개인생명보험 성장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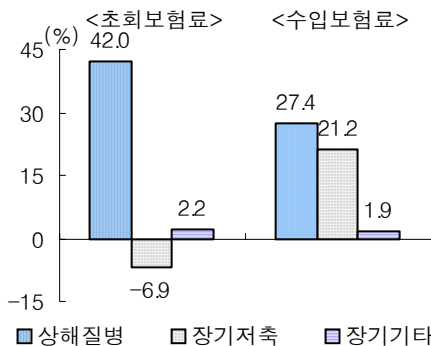


<그림 2> FY05 개인생명보험 종목별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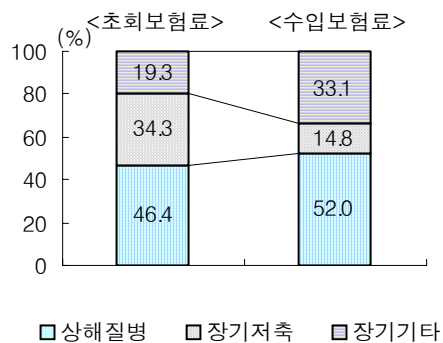


- FY2005 장기손해보험의 경우 보장성 상품인 상해 및 질병보험이 높은 성장세를 보인 반면, 저축성 부문은 계속보험료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초회보험료가 크게 감소하는 등 정체될 조짐이 나타나고 있음.
- 상해 및 질병보험에서는 통합보험의 실적 호전과 함께 초회보험료가 42.0% 성장함에 따라 수입보험료도 전년대비 27.4% 성장
 - 이에 따라 상해 및 질병보험의 장기손해보험에서 초회보험료와 수입보험료 비중은 각각 46.4%와 52.0%를 나타냄.
- 방카슈랑스를 통한 판매가 급증하였던 장기저축성보험의 경우 초회보험료가 마이너스 성장률(-6.9%)을 나타내었고, 수입보험료는 기존 계약에 힘입어 전년대비 21.2%가 성장함.
 - 장기저축성보험의 경우 장기손해보험에서 초회보험료가 34.3%를 차지하였으나 수입보험료 비중은 FY2003 13.5%에서 FY2005 14.8%로 크게 증가하지 않음.

<그림 3> FY05 장기손해보험 성장률



<그림 4> FY05 장기손해보험 종목별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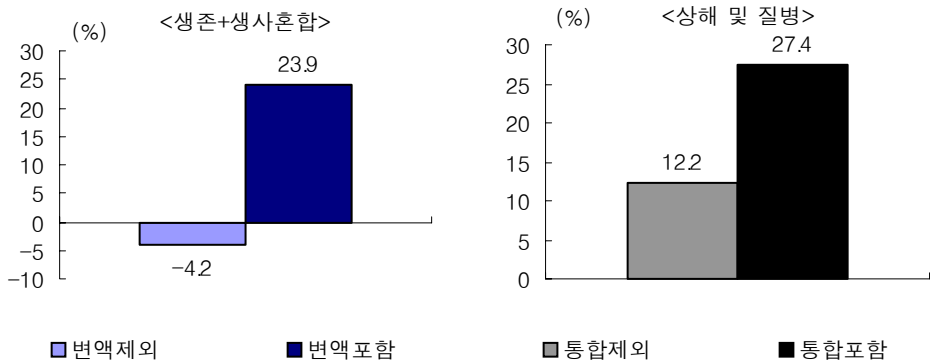


- 생명보험과 장기손해보험의 개인장기성 보험의 성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특징은 변액보험 및 통합보험과 같은 신성장 부문의 기여도에 따라 성장세가 결정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음.
- 생존보험과 생사혼합 보험을 합산한 저축성 보험의 경우 변액보험을 제외할 경우 FY2005에 전년대비 -4.2% 성장하였으나 변액보험을 포함할 경우 23.9%의 높은 성

장률을 시현함으로써 변액보험이 성장을 주도함.

- 장기 상해 및 질병보험의 경우 통합보험을 제외할 경우 FY2005에 전년대비 12.2%의 성장률을 나타내었고 통합보험을 포함할 경우에는 이 보다도 높은 27.4%의 성장률을 시현하여 통합보험의 성장기여도가 매우 큰 것으로 판단됨.

<그림 5> FY05 생명보험의 저축성보험 및 장기손해보험의 보장성보험 성장률



(동향분석팀)

보험산업 환경

1. 해외 경제

2006년 1/4분기 세계경제는 미국이 견실한 성장세 지속, 중국은 고성장 지속, 일본과 유로지역은 회복세를 유지하는 등 성장세를 이어감.

- 2006년 1/4분기에 미국은 성장세 지속, 중국은 고성장세 유지, 일본과 유로 지역은 완만한 회복세를 나타내는 등 세계경제는 견실한 성장세를 이어가는 모습
- 미국은 2006년 1/4분기에 전기대비 GDP성장률이 5.3%(연율)를 기록한 가운데 실업률 개선, 산업생산의 지속적인 상승 등 호조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다만 올해 들어 소비자물가 상승세가 확대되어 인플레이션 우려가 증폭됨.
- 중국은 올해 1/4분기에도 지속적인 수출 호조와 고정자산투자의 신장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산업생산도 증가세를 보이면서 전년동기 대비 10.2%의 GDP성장률을 달성
- 일본은 1/4분기에 생산 및 소매판매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수출도 높은 증가율을 지속함으로써 전기대비 3.1%(연율)의 GDP성장률을 기록함으로써 회복세 지속
- 유로지역의 1/4분기 GDP증가율은 주요 경기심리지표의 상승세 유지, 수출 호조 지속 등 전분기 대비 1.3%를 달성함으로써 회복세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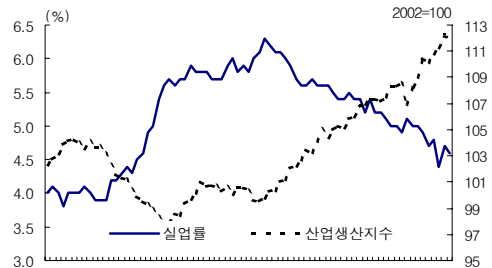
<표 1> 주요국 GDP성장률 추이

	2005					2006
	1/4	2/4	3/4	4/4	연간	1/4
미 국	3.8	3.3	4.1	1.7	3.5	5.3
일 본	6.0	5.5	1.0	4.5	2.6	3.1
중 국	9.9	10.1	9.8	9.9	9.9	10.2
유 로	1.2	1.6	2.8	1.2	1.3	2.4

주: 중국은 전년동기 대비, 그 외는 전기대비 연율.

자료: 재경부, 『주요경제지표』 2006.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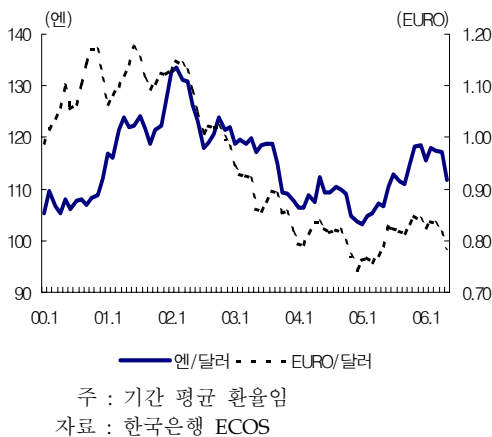
<그림 1> 미국 산업생산과 실업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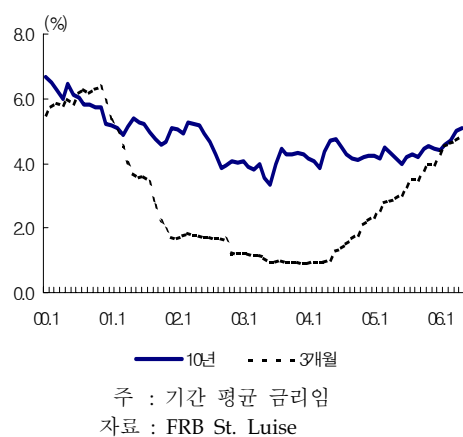
자료: FRB St. Louis

- 2006년 들어서도 美 연준의 정책금리 인상으로 장단기 금리차가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2005년에는 엔화 및 유로화에 달러가치가 다소 상승했으나 올해 들어서는 하락세로 전환
 - 유가 상승 등에 기인한 인플레이션 압박으로 美 연준의 정책금리 인상에 따라 美 재무성증권의 3개월 만기 금리는 5월 평균 4.84%까지 상승하였고 10년 만기 금리도 5.11%까지 상승하였으나 장단기금리차는 지속적으로 축소됨.
 - 美 달러화는 2006년 들어 일본 및 유로지역의 경제지표 호조세, 글로벌 달러화 약세심리의 확산 등에 따라 올해 1월 평균 달러당 115.5엔과 0.826유로에서 5월에는 111.7엔과 0.783유로로 엔화 및 유로화에 대해 약세를 시현
- 미국의 주식시장은 2006년 1/4분기 중 기업실적 호조에 따라 5월 초순까지 상승세를 나타냈으나, 인플레이션 압박 등으로 인해 급락세로 전환
 - 미국의 S&P500,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 나스닥 등 주요 시장의 주가는 금년 1/4분기 중 기업실적 호조 등 경제의 성장세에 따라 5월 초까지는 지속적으로 상승추세를 보였으나 인플레이션 및 금리인상 우려 등으로 급락
 - 특히, 美 FRB 버넌키 의장의 인플레이션 관련 발언에 따라 주가가 급등락하면서 유럽 및 아시아 지역의 주식시장까지 여파가 크게 미침.

<그림 2> 국제환율 추이



<그림 3> 미국 국채 금리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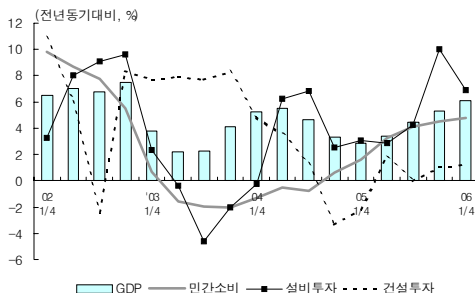


2. 국내 경제

2006년 1/4분기에 민간소비는 다소 회복되었으나 수입증가율이 수출증가율을 상회하는 추세이고, 국고채수익률은 5% 전후에서 등락을 거듭하였고, 환율은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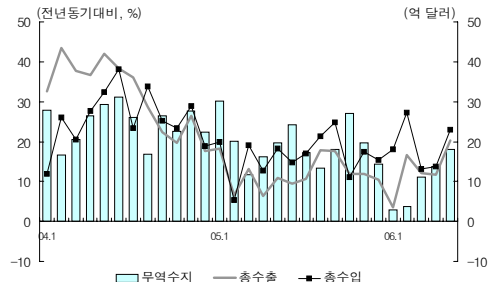
- 2006년 1/4분기 중 GDP는 제조업 생산, 서비스업의 증가세 및 건설업 개선 등과 민간소비 증가 등에 힘입어 전년동기 대비 6.1%가 증가
 - 1/4분기 중 설비투자는 운수장비 투자가 큰 폭으로 증가한 반면 기계설비 투자가 부진한 가운데 전년동기 대비 6.9% 증가(전기대비 0.4% 감소)하였고, 건설투자는 토목건설이 다소 회복되어 전년동기 대비 1.2% 증가(전기대비 0.6% 증가)함.
 - 또한 민간소비는 금융서비스, 음식업 등의 지출이 늘어 전년동기 대비 4.8% 증가(전기대비 1.3% 증가)하여 증가세 시현
- 2006년 1/4분기에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10.6% 증가, 수입은 이보다 높은 19.0% 증가하여 무역수지는 18억달러를 기록하는데 그침.
 - 수출은 고유가의 지속 및 환율하락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선박과 자동차 등 수출 호조로 전년동기 대비 10.6% 증가한 789억달러를 기록하였고, 수입은 고유가로 인해 원자재 수입이 증가하는 등 전년동기 대비 19.0% 증가한 721억달러를 기록
 - 1/4분기 무역수지는 18억달러로 전년동기 62억달러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

<그림 4> 부문별 성장률 추이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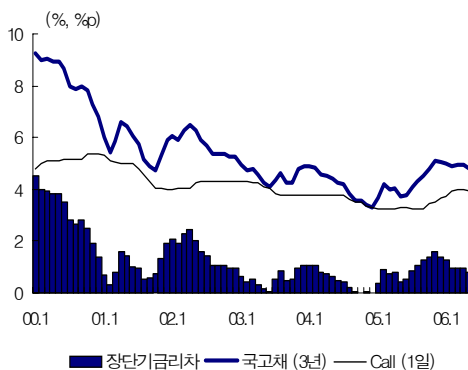
<그림 5> 대외 거래 지표 추이



자료: 관세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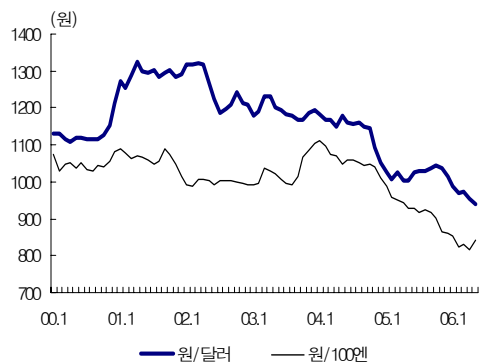
- 국고채(5년) 유통수익률은 2005년 말 5.36%에서 올해 1월말에는 큰 폭으로 하락하다가 3월 들어서는 5%대에 재진입하는 등 5% 전후에서 등락을 거듭하였고, 단기금리는 정책금리 인상으로 지속적인 상승하다 5월 들어서는 횡보
- 국고채(5년) 수익률은 경제지표 호조에 따라 1월 말에는 4.92%까지 크게 하락하였으나 美 국채수익률 상승 등으로 인해 3월 7일에는 5.05%까지 상승하였고, 이후 금통위의 정책금리 추가인상 기대 약화 등에 따라 다시 4% 후반대로 하락
- CD 91일물 유통수익률은 정책금리 인상에 따라 2005년 12월말 4.09%에서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올해 3월 말에는 4.27%까지 상승하였으며, 이후 4·월 14일에 4.36%까지 상승한 이후에는 횡보
- 원/달러 환율은 2006년 들어 달러당 1,000원이하로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였으며, 원/엔(100엔) 환율도 부분적 등락이 있었으나 원/달러 환율의 하락폭이 큰 데 기인하여 전반적으로 하락추세를 나타냄.
- 원/달러 환율은 무역흑자의 지속, 역외거래자의 달러 매도세 등으로 인해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인 가운데 5월의 평균환율은 달러당 941.4원까지 급락
- 엔화가 달러화에 비해 절상되는 추세이나 원화의 절상률이 더 커서 원/엔(100엔) 환율이 지속적인 하락추세에 있는 가운데 4월의 평균환율이 814.8원까지 하락

<그림 6> 국내 장단기 금리 추이



자료: 한국은행

<그림 7> 원화 환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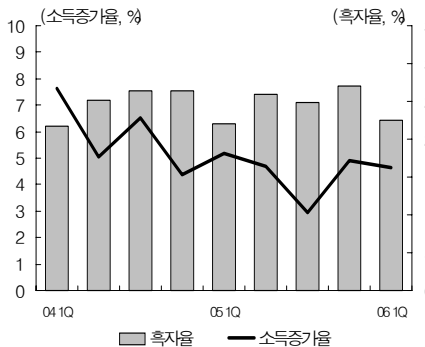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3. 가계 경제 및 시중 자금이동

1/4분기에 소비자자기대지수는 100이상을 유지하였으나 6월에는 98로 하락하였으며, 1월에 주식시장의 활황에 힘입어 주식관련 투자처로 자금유입이 증가하고, 보험권에서는 변액과 장기 보험으로 지속적 자금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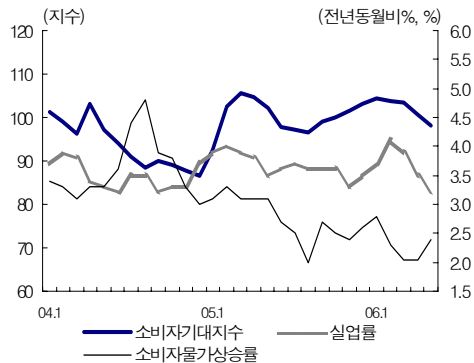
- 2006년 들어 소비자물가지수는 안정세를 유지한 가운데 실업률은 하락한 반면, 소비자자기대지수도 6월에 98로 하락하여 향후 경기, 생활형편, 소비지출 등에 대해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소비자가 증가함.
- 6월에는 소비자자기대지수가 100이하로 악화된 가운데 40대 이상의 연령층에서 두드러지게 경기전망을 비관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고, 20대 및 30대 연령층에서는 지속적으로 소비자자기대지수가 100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남.
-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고유가에도 불구하고 2005년 6월 이후 전년동월대비 2%대를 유지하여 안정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서비스, 전기, 운송, 금융, 건설 등의 부문에서 취업자 증가에 따라 실업률은 작년 11월 이후 전년동월대비 하락세를 지속
- 2006년 1/4분기 도시근로자가구의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344만4천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4.6% 증가(실질소득으로는 2.3% 증가)하였으며, 흑자액은 671천원으로 나타난 가운데 흑자율은 22.4%를 기록하여 전년동기 대비 0.4p 증가함.

<그림 8> 가계 소득, 흑자율 추이



주 : 흑자율 = 1 - 소비지출 / 가처분소득
자료 : 통계청

<그림 9> 소비심리, 실업률, 물가



자료 : 통계청

- 2006년 1/4분기(FY2005 4/4분기)중 은행 수신은 대폭 감소, 투신권은 주식형펀드 및 MMF 유입에 따른 수신 증가, 증권사의 경우 1월에만 고객예탁금이 증가하였고 이후 감소세로 전환
 - 은행수신의 경우 올해 1월에 부가가치세 납부 및 설명절 현금수요 등에 따라 수신이 대폭 감소한 이후 2월과 3월에는 MMDA, CD 및 정기예금 등을 중심으로 증가세 지속
 - 투신권의 경우 1월에는 주식시장 활황에 힘입어 주식형펀드로 자금이 대폭 증가하였고, 이후 시장이 불안정해지면서 2월과 3월에는 MMF를 중심으로 수신이 증가하였으나 5월에는 CD 금리 상승으로 수신이 대폭 감소하는 등 부침이 심해지고, 채권형은 1월에 감소하였으나 2월 이후 증가세로 전환
 - 증권사의 경우 1월에만 고객예탁금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나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였고, 환매조건부채권(RP)도 3월에는 감소세로 전환하는 등 1/4분기에 8천억원 이상 감소
- 보험권에서는 생명보험의 경우 변액보험의 인기지속으로 약 6조6천억원의 순수신이 증가하였으며 손해보험의 경우 자동차보험 이후 새로운 주력상품으로 자리매김한 장기보험을 중심으로 약 1조4천억원 이상 순수신이 증가함.

<표 2> 금융기관 순수신 추이

(단위: 억원, %)

구 분	CY2004			CY2005				CY2006
	2/4	3/4	4/4	1/4	2/4	3/4	4/4	1/4
보 험	64,808	71,449	94,002	55,643	71,225	77,359	92,935	81,083
생명보험	48,549	54,862	75,500	42,277	53,602	60,022	75,781	66,460
손해보험	16,259	16,587	18,502	13,366	17,623	17,337	17,154	14,623
은 행	37,239	-1,871	-28,410	-20,297	176,673	96,532	49,098	-41,969
일반계정	40,699	19,734	-13,394	-30,494	196,056	84,452	41,787	-85,002
신탁계정	-3,460	-21,605	-15,016	10,197	-19,383	12,280	7,311	43,033
증 권	5,049	-1,427	-11,172	16,898	11,948	17,618	19,175	-8,291
투 신	-14,380	136,801	148,323	52,889	46,962	-37,592	74,571	184,828
총 금	7,090	940	-18,256	19,416	2,048	-10,616	40,443	5,651

주 : 1) 보험사 순수신은 수입(원수)보험료에서 지급보험금(원수손해액)을 차감하여 산출함.

2) 본 표는 다수의 동향보고서에서 정리한 것으로서 한국은행 공식통계는 아님.

자료 : 보험개발원, 한국은행

(최영목 부연구위원)

보험지표 동향

1. 보험산업 총괄

가. 수입보험료

FY2005 보험산업의 수입보험료는 생명보험의 경우 변액보험과 퇴직보험의 판매가 증가하면서 성장세가 지속되고 손해보험도 장기손해보험과 퇴직보험의 급성장으로 인한 호조를 보임에 따라 13.3%의 견조한 성장세를 시현

- FY2005 보험산업 전체 수입보험료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모두 양호한 가운데 전년 동기 대비 13.3% 성장함.
- 생명보험은 변액보험의 비중이 13.6%로 지속적으로 확대되었고, 단체보험에서의 퇴직보험 판매 증가로 인해 전년동기 대비 14.4% 양호한 성장세를 보임.
 - 손해보험은 자동차보험의 저성장에도 불구하고 장기손해보험과 퇴직보험의 급성장, 일반손해보험의 성장회복에 의해 전년동기 대비 10.8%의 성장세를 기록함.

<표 1> 생/손보사 수입보험료

(단위 : 억원, %)

연도 종목	FY2004			FY2005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생명보험	155,732	133,891	537,506	136,933	141,537	175,623	160,628	614,722
	0.5	11.4	6.7	13.0	11.7	12.8	20.0	14.4
손해보험	62,222	57,171	232,173	61,236	62,063	69,438	64,498	257,235
	9.3	8.1	8.6	9.8	8.8	11.6	12.8	10.8
합 계	217,954	191,062	769,679	198,169	203,600	245,061	225,126	871,957
	2.9	10.4	7.2	12.0	10.8	12.4	17.8	13.3

주: 1) 주요지표의 각 하단 수치는 전년동기 대비 증가율임.

2) 손해보험의 경우, 원수보험료임.

3) 특별계정이 포함됨.

자료: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및 생·손보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나. 총자산

FY2005 국내 보험산업 총자산은 전년대비 생명보험이 13.1%, 손해보험이 13.4% 성장하여 전체적으로 13.2% 성장함.

- FY2005 보험산업 총자산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모두 수입보험료가 양호한 성장세를 보이면서 전년대비 13.2% 증가한 288조 6,393억원을 기록함.
- 생명보험 총자산은 239조 3,619억원을 기록하였으며, 변액보험과 퇴직보험 등 특별계정 수입보험료가 증가함에 따라 전년대비 13.1% 성장함.
 - 손해보험 총자산은 49조 2,774억원으로 장기손해보험의 성장에 따른 책임준비금 적립 증가와 투자영업이익이 확대되면서 전년대비 13.4% 증가함.

<표 2> 생/손보사 총자산

(단위 : 억원, %)

연도 종목	FY2004			FY2005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생명보험	2,099,079	2,116,098	2,116,098	2,170,712	2,240,311	2,347,662	2,393,619	2,393,619
	5.3	0.8	12.9	2.6	3.2	4.8	2.0	13.1
손해보험	426,766	434,720	434,720	450,522	466,126	488,995	492,774	492,774
	4.3	1.9	15.0	3.6	3.5	4.9	0.7	13.4
합계	2,525,845	2,550,818	2,550,818	2,621,234	2,706,437	2,836,657	2,886,393	2,886,393
	5.1	1.0	12.8	2.8	3.3	4.8	1.8	13.2

주 : 1) 주요지표의 각 하단 수치는 전분기 대비 증가율임.

2) 특별계정이 포함됨.

자료 :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및 생·손보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다. 보험밀도 및 보험침투도

FY2005 보험밀도(1인당 보험료)는 변액보험 및 장기손해보험 확대에 따른 수입보험료 성장으로 전년대비 12.5% 증가한 180만 6천원을 기록하고, 보험침투도는 10.8%로 상승함.

- FY2005 국민 1인당 보험료는 생·손보 수입보험료가 모두 양호한 성장을 나타내면서 180만원을 상회하였으며, 보험침투도는 보험료 성장률이 경상 GDP 성장률을 상회하여 전년대비 0.9%p 증가한 10.8%를 나타냄.
- FY2005 국민 1인당 보험료 즉, 보험밀도(insurance density)는 생명보험이 127만 3천원, 손해보험이 53만 3천원으로 생·손보 전체가 180만 6천원에 이르러 FY2004 대비 12.8% 증가한 것으로 집계됨.
- FY2005 보험침투도는 10.8%로 FY1997 13.2%를 기록한 이후 전반적인 하락추세였으나, 상승세로 반전함.
 - 생명보험의 경우 전년대비 0.7%p 증가한 7.6%를 시현함.
 - 손해보험의 경우 장기손해보험 성장에 힘입어 전년대비 0.2%p 증가한 3.2%를 시현함.

<표 3> 1인당 보험료 및 보험침투도

연도		FY1998	FY1999	FY2000	FY2001	FY2002	FY2003	FY2004	FY2005
구분	1인당								
	보험료								
	(천원)								
	생보	1,002	1,003	1,113	1,000	1,030	1,053	1,118	1,273
	손보	305	308	349	395	433	447	483	533
	계	1,308	1,311	1,461	1,395	1,463	1,500	1,601	1,806
보험 침투도 (%)	생보	9.6	8.8	9.0	7.6	7.2	7.0	6.9	7.6
	손보	2.9	2.7	2.8	3.0	3.0	2.9	3.0	3.2
	계	12.5	11.5	11.8	10.6	10.2	9.9	9.9	10.8

주 : 1) 보험침투도는 수입보험료/명목GDP임(2005년은 잠정치임).
 2) 한국은행의 GDP계산방식과 기준년도를 변경함에 따라 과거수치를 변경함.
 3) 1인당 보험료는 수입보험료/추계인구(2005년 1월 특별추계자료로 수정 보완)
 자료 : www.bok.or.kr(한국은행, 국내총생산) 및 www.nso.go.kr(통계청, 추계인구)

(동향분석팀)

2. 생명보험

가. 수입보험료 및 총자산

<생명보험 전체>

- FY2005 생명보험산업 수입보험료는 전년대비 14.4% 성장한 61조 4,722억원으로 양호한 성장세를 보임.
 - 개인보험 수입보험료는 변액보험이 252.4% 증가하고 비중도 13.6%로 확대되면서 전체 개인보험 성장을 주도하는 추세가 이어짐.
 - 단체보험의 경우 12월 판매된 퇴직연금의 실적이 저조하나 퇴직보험의 판매가 증가하면서 17.1% 성장하는 호조세를 보임.
- FY2005말 총자산 규모는 239조 3,619억원으로 전년 대비 13.1% 증가함.
 - 총자산은 변액보험과 퇴직보험 등 특별계정 수입보험료가 증가하면서 특별계정 수지차도 약 1.8배 증가하여 특별계정 자산을 증가시킴.

<표 4>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및 총자산

(단위 : 억원, %)

구 분	FY2004			FY2005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총 자 산	2,099,079	2,116,098	2,116,098	2,170,712	2,240,311	2,347,662	2,393,619	2,393,619
	5.3	0.8	12.9	2.6	3.2	4.8	2.0	13.1
수입보험료	155,732	133,891	537,506	136,933	141,537	175,623	160,628	614,722
	0.5	11.4	6.7	13.0	11.7	12.8	20.0	14.4

주: 1) 수입보험료는 분기별 통계로서 변액보험 및 퇴직보험 특별계정을 포함한 실적임.

2) 총자산의 증가율은 전분기 대비 기준이며, 수입보험료는 전년동기 대비 기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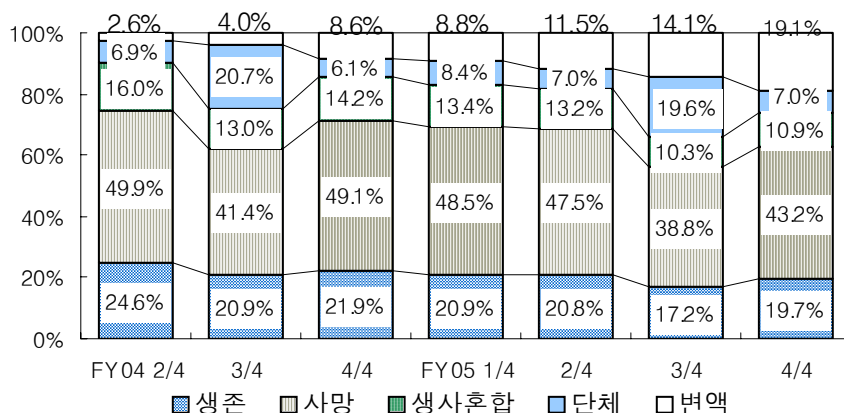
자료: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보험종목별 수입보험료>

- FY2005 수입보험료 비중은 일반계정 사망보험 44.1%, 생존보험 19.5%, 생사혼합보험 11.8% 및 단체보험 10.9% 등이 전년 대비 단체보험을 제외하고 모두 축소된 반면 변액보험이 13.6%를 차지, 10%대에 진입함.
- FY2005 생명보험은 노후소득을 대비한 투자분위기와 주가상승이 지속 확대되면서 변액보험의 성장이 두드러졌음.
 - 일반계정 사망보험 비중은 FY2005 연중 지속적으로 성장률이 감소하면서 4/4분기 구성비가 40%를 하회하는 등 전년대비 구성비가 3.4%p 감소함.
 - 생존보험도 FY2005 4/4분기 구성비가 20%를 하회하면서 지속적으로 축소되어 FY2005 구성비는 전년대비 3.1%p가 감소함.
- 일반계정 중 무배당보험 구성비는 전년대비 2.8%p 증가한 86.5%였고 금리연동형 보험은 1.8%p 증가한 45.3%였음.
 - 종신보험은 성장둔화와 함께 비중도 24.4%로 축소, 질병보험은 22.7%로 1.9%p 증가, 상해보험은 5.1%로 정체했으며 일반계정 변액보험비중은 3.4%였음.
- 특별계정 변액보험 중 변액종신이 4.0%, 변액유니버설보험 47.0%, 변액연금 44.3%, 변액기타 4.7%로 전년대비 변액유니버설이 18.4%p나 증가함.

<그림 1> 생명보험 종목별 구성비 변동추이



- FY2005 개인보험 수입보험료는 전년대비 14.0% 증가한 54조 7,521억 원이었으며, 단체보험 수입보험료는 17.1% 증가한 6조 7,201억 원이었음.
- 일반계정 생존보험의 수입보험료는 전년대비 1.2% 감소한 11조 9,887억 원으로 전년에 이어 감소세를 보임.
 - FY2006 변액연금은 294.1% 성장하면서 연금보험수요가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대체됨.
- 일반계정 사망보험은 전년대비 6.2% 증가한 27조 1,215억 원으로 FY2004 11.3%보다 5.1%p 감소함.
 - 이는 장기건강, 질병보험의 성장이 양호하였으나 사망보험중 규모가 큰 종신보험이 1.9% 감소하면서 전체 사망보험의 성장이 감소한 것임.
- 생사혼합보험 수입보험료는 전년대비 8.9% 감소한 7조 2,596억 원으로 감소세가 완화되었지만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음.
- 특별계정 변액보험을 보증별로 일반계정에 포함시킬 경우 전년대비 생존보험은 21.3%, 생사혼합보험 27.9%로 사망보험은 5.9% 증가함.
- 단체보험의 경우 전년대비 17.1% 증가하는 양호한 실적을 보였으나 이는 새로 도입된 퇴직연금에 의한 신상품효과가 아니라 퇴직보험성장에 기인함.
 - 2005년 12월 판매가 시작된 퇴직연금은 119억 원이 거수되었으나 퇴직보험은 퇴직보험판매중단에 따른 우려로 수요가 몰리면서 약 5조 3천억 원이 판매되었음.
 - 일반단체보험이 전년대비 16.5%가 감소하였으며, 특히 저축성 단체보험이 49.9% 감소했음.
- 상품별로는 장기건강보험이 전년대비 16.9%, 질병보험이 10.4%로 성장률이 높았던 반면 상해보험이 2.2%, 어린이보험이 5.2%로 성장률이 낮았음.
 - 반면 종신보험이 1.9% 감소하는 부진을 보였으며, 2005 회계연도부터 집계가 시작된 일반계정의 변액보험이 1조 6,169억 원 거수됨.

<표 5> 생명보험 종목별 수입보험료

(단위 : 억원, %)

구 분		FY2004			FY2005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생존	보험료	32,542	29,385	121,366	28,600	29,441	30,125	31,722	119,887
	성장률	-12.1	4.2	4.9	1.2	-5.6	-7.4	8.0	-1.2
	구성비	20.9	21.9	22.6	20.9	20.8	17.2	19.7	19.5
사망	보험료	64,497	65,798	255,338	66,402	67,289	68,182	69,342	271,215
	성장률	11.8	9.6	11.3	7.4	6.5	5.7	5.4	6.2
	구성비	41.4	49.1	47.5	48.5	47.5	38.8	43.2	44.1
생사 혼합	보험료	20,279	19,076	79,646	18,312	18,700	18,070	17,514	72,596
	성장률	-22.4	-13.0	-15.7	-8.6	-7.7	-10.9	-8.2	-8.9
	구성비	13.0	14.2	14.8	13.4	13.2	10.3	10.9	11.8
변액 보험	보험료	6,256	11,456	23,789	12,093	16,215	24,761	30,752	83,822
	성장률	94.9	386.3	212.2	334.3	392.4	295.8	168.4	252.4
	구성비	4.0	8.6	4.4	8.8	11.5	14.1	19.1	13.6
개인계	보험료	123,574	125,714	480,140	125,408	131,646	141,137	149,330	547,521
	성장률	-0.4	11.7	7.4	11.1	11.6	14.2	18.8	14.0
	구성비	79.4	93.9	89.3	91.6	93.0	80.4	93.0	89.1
단체	보험료	32,158	8,177	57,366	11,526	9,891	34,486	11,298	67,201
	성장률	4.3	5.8	1.1	39.5	12.8	7.2	38.2	17.1
	구성비	20.7	6.1	10.7	8.4	7.0	19.6	7.0	10.9
합계	보험료	155,732	133,891	537,506	136,933	141,537	175,623	160,628	614,722
	성장률	0.5	11.3	6.7	13.0	11.7	12.8	20.0	14.4

주: 1) 단체보험은 퇴직보험 특별계정이 포함됨.

2) 성장률은 전년동기 대비(분기) 또는 전년대비(연간)임.

자료: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회사별 시장점유율〉

□ FY2005 회사별 시장점유율은 상위 3개사의 경우 전년대비 감소하였으나 외국사와 국내중소형사는 모두 증가함.

- 상위 3사의 경우 수입보험료 점유비중이 65.9%로 전년보다 2.6%p 하락한 것으로 업계에 신채널 및 신상품이 도입되면서 외국사에 의한 점유율 감소가 진행됨.
- 외국사는 수입보험료가 27.3% 증가하면서 점유율이 1.8%p 증가했으며 국내 중소형사도 전년대비 수입보험료가 20.2% 증가하면서 점유율도 15.8%로 증가함.
- 외국사는 특히 변액보험이 240.6% 증가하면서 수입보험료 점유율이 확대되었으며 중소형사들도 변액보험의 증가율이 높았으나(2441.2%) 절대규모는 크지 않아 점유율확대는 일반계정의 전통보험에 의해 이루어짐.

<표 6> 생명보험시장 회사별 시장점유율(수입보험료 기준)

(단위 : %)

구 분	FY2004			FY2005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상위 3개사	68.6	67.7	68.5	67.1	65.3	66.9	64.3	65.9
외 국 사	15.3	17.7	16.5	18.0	18.6	16.8	20.1	18.3
국내중소형사	16.1	14.6	15.0	15.0	16.1	16.2	15.6	15.8
허핀달지수	0.1847	0.1823	0.1848	0.1833	0.1731	0.1778	0.1632	0.1739

주: 1) 퇴직보험 및 변액보험 특별계정 수입보험료를 포함한 실적임.

2) 허핀달지수는 각사 시장점유율을 제곱한 값을 합한 수치로 시장집중도를 나타냄.

3) 외국사는 지분변동을 기준, 2006년 3월말 알리안츠 등 10개사이며, 하나, ING, SH&C는 국내지분이 있으나 외국사로 간주함.

4) 국내중소형사는 상위 3사와 외국사를 제외한 보험회사로 함.

자료: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나. 경영수지

〈총수익 · 총비용〉

□ FY2005 당기순이익은 보험영업수지(일반계정)가 크게 감소하고 투자영업수지도 감소했으나 기타수지가 개선되면서 전년수준의 2조 972억 원을 기록함.

- 보험영업수지는 전년대비 보험영업비용이 9.6% 증가한 반면 보험영업수익은 1.6% 증가에 그치면서 보험영업수지차가 29.3% 감소함.
- 보험영업비용 증가는 생사혼합보험의 만기보험금 증가에 따라 지급보험금이 전년대비 40.0% 증가한 데 기인함
- 투자영업수지도 투자영업수익이 감소(-3.6%)하고 투자영업비용도 소폭 증가(1.8%)하면서 4.7% 감소함.
- 준비금전입액도 일반계정 보험의 수입보험료가 감소하면서 줄어 들었으나 법인세가 증가하면서 당기순이익은 전년수준으로 정체됨.

<표 7> 생명보험회사 총수익 및 총비용

(단위 : 억원)

구 분		FY2004		FY2005			
		3/4	4/4	1/4	2/4	3/4	4/4
총 수 익	보험영업	368,818	492,808	121,728	245,944	371,024	500,499
	투자영업	101,735	129,822	29,363	60,610	91,883	125,203
	기타	2,015	5,548	14,412	6,575	6,576	10,080
	소계	472,568	628,178	165,502	313,129	469,484	635,782
총 비 용	보험영업	276,027	391,414	96,807	199,745	317,595	428,830
	투자영업	14,112	22,410	5,413	11,621	17,221	22,803
	기타비용	19,493	20,123	12,680	3,814	4,129	5,830
	소계	309,632	433,946	114,900	215,181	338,945	457,463
수 지 차	보험영업	92,791	101,395	24,921	46,199	53,429	71,669
	투자영업	87,623	107,412	23,950	48,989	74,662	102,400
	기타	-17,478	-14,575	1,732	2,761	2,448	4,250
	소계	162,936	194,232	50,603	97,948	130,539	178,319
준비금전입		133,639	167,578	42,154	83,547	111,892	151,083
법인세		646	5,602	1,644	3,014	4,170	6,264
당기순이익		28,651	21,051	6,805	11,388	14,477	20,972

주: 1) 분기실적은 누계치임.

2) 특별계정을 제외한 일반계정 실적이며 기타손익은 기타수지 및 특별손익의 합계임.

자료: 생명보험협회, 『생명보험』, 각 월호.

〈보험금 지급률 및 사업비율〉

- FY2005 전체 보험금지급률(특별계정포함)은 신상품의 수입보험료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몇 년째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사업비율도 전년대비 소폭 감소함
- 생사혼합보험 보험금지급률이 31.7%p 증가하고 생존보험도 10.9%p 증가하였으나 변액보험 보험금지급률이 낮아 개인보험 보험금지급률이 감소함
- 일반계정 종목의 사업비율이 1.2%p 증가하였으나 특별계정 수입보험료의 증가로 전체 사업비율은 전년대비 1.3% 감소함.

<표 8> 생명보험 보험금 지급률, 사업비율 및 해약률

(단위 : %)

구 분	FY2004			FY2005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보험금지급률	51.5	68.4	58.8	58.6	57.6	56.9	58.6	57.9
생 존	54.0	66.4	55.7	55.6	52.9	70.0	70.4	66.6
사 망	35.9	36.7	34.8	33.5	35.4	36.4	39.4	36.6
생사혼합	115.6	125.0	119.3	100.0	98.1	199.2	133.2	151.0
개 인 계	55.3	60.4	55.6	52.3	52.8	59.1	50.5	53.7
사 업 비 율	16.0	24.6	19.2	19.0	18.6	16.3	18.0	17.9
신 계 약 률	19.2	27.3	27.3	5.5	12.4	19.1	28.0	28.0
해 약 률	11.5	14.2	14.2	3.2	6.1	8.8	11.9	11.9

주: 1) 보험금지급률은 지급보험금/수입보험료, 사업비율은 실제사업비/수입보험료, 해약률은 (효력상실액+해약액)/(연초보유계약액+신계약액)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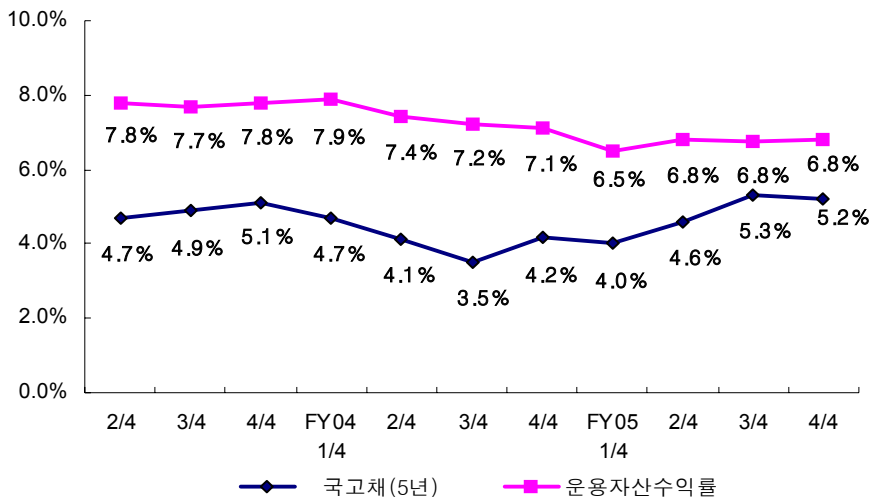
2) 신계약률과 해약률은 누계치임.

자료: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생명보험협회, 『생명보험』, 각 월호.

<자산 운용>

- FY2005 생명보험산업 운용자산수익률은 전년말보다 0.3%p 하락한 6.8%였으나 2005년 하반기 시중금리상승에 따라 소폭 증가했으며, 자산운용율을 특별계정 자산 증가에 따라 하락함.
- 전년대비 자산구성비는 매도가능 증권의 구성비가 감소한 반면 만기보유증권이 증가했으나 기타 자산의 경우 구성비에 큰 변화는 없음.
 - 단기매매증권의 경우 구성비가 0.2%p 감소했으며, 수익률은 68.6% 증가한 주식의 비중은 0.1%에 불과했음.
 - 매도가능증권 구성비는 자산구성비가 가장 높은 채권의 비중이 2.6%p 감소했고 평균수익률도 채권수익률이 0.3%p 감소하면서 전체 수익률 감소를 주도함.
 - 만기보유증권 중 채권이 2.4%p 증가하고 수익률도 소폭(0.1%p) 증가하므로써 소폭이나마 장기보유비중이 증가했음.

<그림 2> 운용자산수익률 추이



- 주: 1) 분기별 누적치이며 운용자산은 총자산에서 비운용자산과 특별계정을 제외한 수치임.
 2) 운용자산의 투자수익률은 각 사의 업무보고서 재산이용명세를 기준으로 하였음.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일반계정 운용자산 비중은 0.9%p 증가하였으나 특별계정 자산이 증가하면서 자산 운용률은 3.1%p 감소함.

<표 9> 생명보험회사 자산운용 포트폴리오

(단위 : %, 억원)

구 분	FY2004		FY2005							
	4/4		1/4		2/4		3/4		4/4	
	구성비	수익률	구성비	수익률	구성비	수익률	구성비	수익률	구성비	수익률
현 금 과 예 금	1.6	3.4	1.9	3.6	2.2	3.5	2.2	3.8	2.0	4.0
유 가 증 권	57.7	6.2	58.5	5.8	59.0	6.1	59.0	6.0	59.4	6.1
○ 단기매매증권	3.1	7.6	3.0	6.8	3.2	9.5	2.9	10.9	2.9	9.5
- 주 식	0.2	25.3	0.2	27.1	0.3	63.9	0.1	110.4	0.1	93.9
- 채권 등	1.6	8.6	1.9	6.1	1.9	5.2	1.7	6.2	1.6	6.9
- 수익증권	1.3	4.0	0.9	4.1	1.0	6.5	1.0	7.3	1.2	5.4
○ 매도가능증권	46.6	6.4	47.4	5.7	47.5	5.9	47.9	5.7	46.2	6.0
- 주 식	4.0	3.0	3.9	2.0	4.6	3.3	5.1	2.7	5.1	4.0
- 채권 등	40.3	6.8	40.8	6.2	40.0	6.5	39.3	6.3	37.7	6.5
- 수익증권	2.4	5.7	2.8	3.0	2.9	2.4	3.4	1.9	3.4	3.4
○ 만기보유증권	7.1	5.2	7.3	5.8	7.6	5.8	7.4	6.2	9.5	5.3
- 채권 등	7.1	5.2	7.3	5.8	7.6	5.8	7.4	6.2	9.5	5.3
- 수익증권	0.0	-	0.0	-	0.0	-	-	0.0	-	-
○ 지분법적용투자주식	0.8	1.2	0.8	4.8	0.8	5.5	0.8	5.9	0.8	4.7
대 출 채 권	23.5	10.1	22.7	9.3	22.6	9.3	22.6	9.4	22.5	9.6
부 동 산	4.6	4.7	4.5	3.7	4.5	3.8	4.4	4.3	4.4	4.3
운 용 자 산 계	87.3	7.1	87.7	6.5	88.4	6.8	88.2	6.8	88.2	6.8
비 운 용 자 산	12.7	8.8	12.3	3.0	11.6	2.4	11.8	2.8	11.8	3.2
일 반 계 정 자 산 계 (자 산 운 용 율)	100.0 (91.2)	7.3	100.0 (90.9)	6.1	100.0 (90.4)	6.2	100.0 (88.7)	6.3	100.0 (88.1)	6.4
특 별 계 정 자 산	9.7	5.1	10.0	4.5	10.6	5.5	12.8	6.6	13.5	7.1
총 자 산	100.0	7.1	100.0	6.0	100.0	6.2	100.0	6.3	100.0	6.5
총 자 산 규 모	2,116,098		2,170,712		2,240,311		2,347,662		2,393,619	

주: 1) 수익률은 누계실적임.

2) 자산구성비는 일반계정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기준으로 제시함.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다. 판매채널

<모집형태별 초회보험료>

□ FY2005 전년대비 임직원의 비중이 증가한 반면 방카슈랑스와 보험설계사의 비중이 감소함(초회보험료 기준).

- 임직원비중의 경우 FY2005 하반기 퇴직보험의 판매비중이 증가하면서 전년 대비 4.9%p 증가함.
- 설계사의 비중 역시 전년대비 6.3%p 증가했으며 이는 설계사에 의한 판매비중이 높은 변액보험의 판매가 확대된 데 기인함.
- 방카슈랑스 비중은 전년 대비 10.5%p 감소한 27.3%로 방카슈랑스를 통해 팔리는 저축성보험의 성장이 감소하고 변액보험에서의 판매비중도 감소했기 때문임.
- 대리점 초회보험료 비중은 0.4%p 감소한 6.8%로 지속적으로 판매비중이 축소되고 있음.

<표 10> 생명보험 모집형태별 비중(초회보험료 기준)

(단위 : %, 억원)

구 분	FY2004			FY2005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임 직 원	29.2	8.5	16.5	23.5	21.5	27.8	13.8	21.4
설 계 사	28.3	49.6	38.2	37.7	39.4	44.2	52.1	44.5
대 리 점	6.3	8.9	7.2	6.6	6.0	6.3	7.9	6.8
중 개 사	0.0	0.0	0.0	0.0	0.0	0.0	0.0	0.0
T/M	0.2	0.3	0.3	-	-	-	-	-
C/M	0.0	0.0	0.0	-	-	-	-	-
방카슈랑스	36.0	32.6	37.8	32.2	33.2	21.7	26.2	27.3
기 타	0.0	0.0	0.0	0.0	0.0	0.0	0.0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21,974	16,569	66,853	15,713	19,375	28,854	28,827	92,770

주: 1) 모집형태별 통계 중 일부 회사의 업무보고서 자료를 수정함.

2) 보험회사 퇴출시 해당사 통계를 제외하였음.

3) FY2005 1/4분기부터 업무보고서 양식변경에 따라 T/M 및 C/M 채널이 다른 채널에 포함됨.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모집조직〉

□ FY2005 연말 생명보험산업의 보험설계사 수는 소폭의 감소세를 지속한 반면 대리점 수는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임직원수는 소폭 증가함.

- 설계사수는 전체적으로 전년대비 9.6% 축소되는 감소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회사별로는 거의 외국사들만 설계사를 증원했고 대형사들은 남성설계사를 늘리는 추세를 보임.
- 대리점의 경우는 전년대비 54.2% 증가했는데 이는 일부 대형사와 국내 중소형사들이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임직원 수도 소폭 증가(2.4%)했음.

<표 11> 생명보험 모집조직 규모

(단위 : 명, 개)

구 분	FY2004			FY2005			
	2/4	3/4	4/4	1/4	2/4	3/4	4/4
임 직 원	26,237	26,015	25,412	25,276	25,688	25,807	26,033
설 계 사	144,714	139,945	136,947	134,172	129,647	124,494	123,850
대 리 점	7,003	6,718	6,672	6,572	7,238	9,391	10,290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김진익 선임연구원, 박정희 연구원)

3. 손해보험

가. 원수보험료 및 총자산

<손해보험 전체>

- FY2005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자동차보험의 저성장에도 불구하고 장기손해보험과 퇴직보험의 급성장, 일반손해보험의 성장 회복에 기인하여 전년 대비 10.8% 증가한 25조 7,235억원을 기록함.
- 자동차보험의 경우 전년 대비 3.1% 성장한 8조 7,890억원을 기록하여 지속적인 저성장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반면, 장기손해보험은 통합형 보험 등 상해 부문과 저축성 부문을 중심으로 전년 대비 16.8%의 성장률로 급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음.
- FY2005 손해보험회사의 총자산은 전년 대비 13.4% 성장한 49조 2,774억원을 기록함.
- 이는 장기손해보험과 퇴직보험의 성장에 따른 책임준비금 적립 증가와 투자영업 이익 확대에 기인한 것임.

<표 12>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및 총자산

(단위 : 억원, %)

구 분	FY2004		FY2005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원수보험료	57,171	232,173	61,236	62,063	69,438	64,498	257,235
	8.1	8.6	9.8	8.8	11.6	12.8	10.8
총자산	434,720	434,720	450,522	466,126	488,995	492,774	492,774
	1.9	15.0	3.6	3.5	4.9	0.7	13.4

주: 1) 주요 지표의 각 하단 수치는 증감율이며 총자산의 경우 전분기 대비, 원수보험료는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임.

2) 원수보험료는 특별계정 포함, 부수사업은 제외된 실적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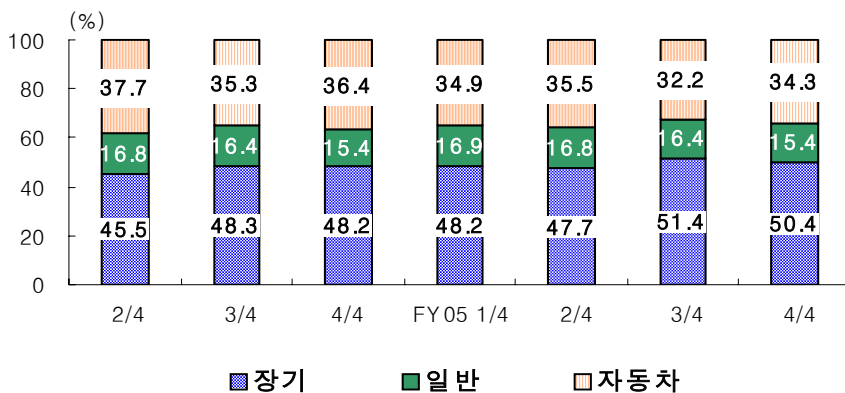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보험종목별 원수보험료>

□ FY2005 손해보험 종목별 원수보험료 비중을 살펴보면, 장기손해보험이 50.4%, 자동차보험 34.3%, 일반손해보험 15.9%의 시장점유율을 나타내었음.

- 자동차보험은 저성장으로 전년 대비 점유율이 2.1%p 감소한 반면, 장기손해보험은 3/4분기 이후 50%를 상회하는 점유율을 보임.
- 일반손해보험은 견조한 성장을 나타내며 전년도 점유율과 비슷한 수준인 15.4%를 기록함.

<그림 3> 손해보험 종목별 구성비 변동추이



- 주: 1) 원수보험료 기준이며, 분기별 실적임.
 2) 장기보험은 개인연금 및 퇴직보험을 포함한 실적임.
 3) 일반보험에는 화재, 해상, 보증, 특종, 권원보험, 해외원보험이 포함되었음.

□ FY2005 자동차보험의 원수보험료는 8조 7,890억원으로 전년 대비 3.1%의 성장률을 기록함.

- 자동차보험은 최근 자동차등록대수 증가율의 소폭 상승, 2005년 2월 책임보험 보상한도 확대 및 대물보험 가입 의무화, 2005년 11월 정비수가 인상에도 불구하고 가격경쟁 지속으로 저성장세를 보임.
- 저렴한 가격의 온라인 자동차보험 시장은 더욱 확대되어 FY2005 10.2%의 점유율

로 증가하였음.

- 장기손해보험은 상해 부문 및 저축성보험을 중심으로 꾸준히 성장하여 전년 대비 16.8% 성장한 11조 2,562억원을 나타내어 처음으로 10조원 이상의 보험료 수입을 실현하였음.
 - 장기손해보험 부문별 성장률을 보면 상해 부문의 경우 15.7%, FY2004부터 본격적으로 판매된 통합형 보험은 378.1%의 높은 성장률을 보임.
 - 저축성보험은 방카슈랑스 도입효과가 다소 완화된 초회보험료 성장률은 -6.9%로 마이너스를 나타내었으나, 계속보험료 유입으로 원수보험료는 21.2% 성장함.
- 보증보험은 2005년 4월 도입된 모기지신용보험의 판매 본격화, 상품권보증보험 등의 보험료 수입증가로 전년 대비 11.6% 증가한 1조 67억원을 나타냄.
- FY2005 해상보험 원수보험료는 전년동기 대비 4.1% 증가한 5,277억원을 기록하였음.
 - 해상보험의 전체 성장은 선박보험의 성장(17.3%)에 기인하는 것으로 적화보험, 항공보험, 운송보험 등은 효율인하, 해외로의 계약 이탈 등의 요인으로 각각 전년 대비 -8.8%, -4.2%, -9.0%의 마이너스 성장을 나타냄.
- 화재보험은 전년동기 대비 10.4% 성장한 3,243억원의 원수보험료를 나타내었음.
 - 화재보험 수요의 종합보험 이전에도 불구하고 2005년 5월 참조위험률 인상에 따른 보험료 인상으로 높은 성장률을 보임.
- FY2005 특종보험의 원수보험료는 12.4% 성장한 2조 2,904억원을 나타내면서 성장세가 소폭 하락하였음.
 - 종합보험은 전년동기 대비 0.2% 성장하였으며, 기술보험은 19.3%, 상해보험 68.3%의 성장률을 나타낸 반면, 책임보험은 -10.3%의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였음.
 - 기술보험은 대형물건의 계약으로 보험료 수입이 증가한 반면, 책임보험은 근재보험 등의 효율인하로 마이너스 성장을 나타냄.

<표 13> 손해보험 종목별 원수보험료

(단위 : 억원, %)

구 분		FY2004		FY2005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화 재	보험료	685	2,937	794	751	913	785	3,243
	성장률	-1.0	-7.1	4.1	13.2	10.7	14.6	10.4
	구성비	21.2	1.3	1.3	1.2	1.3	1.2	1.3
해 상	보험료	1,135	5,071	1,399	1,412	1,280	1,186	5,277
	성장률	-13.3	-3.2	10.7	0.2	1.3	4.4	4.1
	구성비	2.0	2.2	2.3	2.3	1.8	1.8	2.1
자동차	보험료	20,838	85,208	21,386	22,062	22,342	22,100	87,890
	성장률	5.8	7.0	2.6	2.5	1.6	6.1	3.1
	구성비	36.4	36.7	34.9	35.5	32.2	34.3	34.2
보 증	보험료	2,268	9,018	2,255	2,391	2,791	2,630	10,067
	성장률	-8.3	-4.3	-4.2	9.7	25.8	15.9	11.6
	구성비	4.0	3.9	3.7	3.9	4.0	4.1	3.9
특 중	보험료	4,507	20,369	5,745	5,744	6,263	5,152	22,904
	성장률	14.6	12.7	13.0	12.9	10.1	14.3	12.4
	구성비	7.9	8.8	9.4	9.3	9.0	8.0	8.9
해외 원보험	보험료	186	796	129	143	164	173	609
	성장률	7.0	26.7	-37.8	-33.0	-13.0	-7.1	-23.5
	구성비	0.3	0.3	0.2	0.2	0.2	0.3	0.2
장 기	보험료	25,295	96,353	26,459	27,435	28,736	29,932	112,562
	성장률	14.3	12.3	16.1	16.5	16.3	18.3	16.8
	구성비	44.2	41.5	43.2	44.2	41.4	46.4	43.8
개 인 연 금	보험료	1,679	6,799	1,684	1,715	1,788	1,789	6,976
	성장률	-3.9	-1.1	-3.5	2.1	5.5	6.5	2.6
	구성비	2.9	2.9	2.8	2.8	2.6	2.8	2.7
퇴 직 보 험	보험료	579	5,622	1,383	410	5,162	752	7,707
	성장률	-22.9	13.6	101.8	-42.7	41.7	29.8	37.1
	구성비	1.0	2.4	2.3	0.7	7.4	1.2	3.0
계	보험료	57,172	232,173	61,236	62,063	69,438	64,498	257,235
	성장률	8.1	8.6	9.8	8.8	11.6	12.8	10.8

주: 1) 성장률은 전년동기 대비 수치임.

2) 부수사업의 원수보험료는 제외되었으며, 특종보험에는 부동산권리보험의 원수보험료가 포함되었음.

3) 기간별 수치는 해당기간에 대한 실적치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회사별 시장점유율〉

□ FY2005 손해보험회사 그룹별 시장점유율을 살펴보면, 대형사의 점유율은 다소 증가한 반면, 일반 중소형사의 점유율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대형사의 시장점유율은 전년 대비 0.2%p 증가한 71.3%를 나타내었고, 온라인 단종보험사는 전년동기 시장점유율 2.0%에서 2.4%로 증가한 반면, 일반 중소형사의 경우 21.7%에서 21.1%로 0.6%p 감소하였음.
- 전업사 및 외국사는 전년도와 동일한 4.0%, 1.2%의 점유율을 나타냄.
- 허핀달지수는 FY2005 들어서면서 꾸준히 감소하여 0.1557을 기록함.

<표 14> 손해보험시장 회사별 시장점유율 (원수보험료 기준)

(단위 : %)

구 분		FY2004		FY2005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점유비	상위4개사	71.1	71.1	71.8	71.6	71.4	71.3	71.3
	일반사 계	94.8	94.8	95.0	94.9	94.7	94.8	94.8
	전 업 사	4.0	4.0	3.8	3.8	4.0	4.0	4.0
	외 국 사	1.2	1.2	1.2	1.3	1.3	1.2	1.2
허 핀 달 지 수		0.1583	0.1583	0.1583	0.1581	0.1567	0.1557	0.1557

주: 1) 일반사 계에는 교보자동차, 교원나라, 다음다이렉트 실적이 포함되었으며, 전업사는 보증사와 재보 4사, 외국사는 AIG, ACE, 페더럴, 로얄, 퍼스트아메리카, 미쓰이 6개사임.
 2) 허핀달지수는 각사 시장점유율을 제곱한 값을 합한 수치로 시장집중도를 나타냄.
 3) 누적기준 실적치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나. 경영수지

〈총수의 총비용〉

□ FY2005 3/4분기 손해보험회사의 당기순이익은 보험영업수지 적자가 심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영업이익의 흑자폭이 확대되어 전년 대비 4.2% 증가한 1조 1,873억원을 나타냄.

□ 손해보험회사의 보험영업수지는 장기손해보험 보험료 성장에도 불구하고 FY2005 3/4분기 이후 자동차보험에서의 손해를 급증으로 인하여 적자로 전환, 5,180억원의 손실을 나타냄.

○ 특히, 보증보험회사를 제외할 경우, 보험영업적자는 1조 590억원으로 확대되고 당기순이익 규모는 5,302억원으로 감소하여 일반 손해보험사들의 손익상황이 악화되었음.

<표 15> 손해보험회사 총수익 및 총비용

(단위 : 억원)

구 분		FY2004		FY2005			
		3/4	4/4	1/4	2/4	3/4	4/4
총 수 익	보험영업	154,488	208,597	55,353	112,337	171,114	231,078
	투자영업	19,292	25,320	5,444	12,166	19,477	26,358
	기 타	6,547	7,632	2,009	3,209	7,984	9,270
	계	180,328	241,549	62,805	127,712	198,574	266,706
총 비 용	보험영업	155,279	212,285	54,480	111,893	172,776	236,258
	투자영업	4,654	5,841	1,385	2,720	4,115	5,479
	기 타	8,324	9,706	2,376	3,412	8,733	10,251
	계	168,257	227,833	58,241	118,024	185,624	251,988
수 지 차	보험영업	-791	-3,689	872	444	-1,662	-5,180
	투자영업	14,638	19,479	4,059	9,446	15,361	20,879
	기 타	-1,777	-2,074	-367	-202	-750	-982
	계	12,070	13,717	4,564	9,687	12,950	14,717
법 인 세		2,071	2,323	801	1,755	2,727	2,844
당기순이익		10,000	11,394	3,763	7,932	10,223	11,873

주 : 기간별 수치는 해당기간에 대한 누적치임.
자료 :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손해율과 합산비율>

□ FY2005 손해보험 산업의 합산비율은 전년동기 대비 0.3%p 증가한 101.1%를 기록함.

○ 사업비율은 전년 대비 0.1%p 증가하였고, 손해율은 전년 대비 0.2%p 증가하였음.

□ FY2005 손해보험 산업의 손해율 악화는 주로 자동차보험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됨.

- 자동차보험의 손해율은 교통법규 위반자 사면 등에 따른 사고율 증가, 폭설 등 기상요인으로 전년 대비 3.9%p 상승하여 보험영업수지 악화원인으로 작용하였음.

<표 16> 손해보험 손해율 및 합산비율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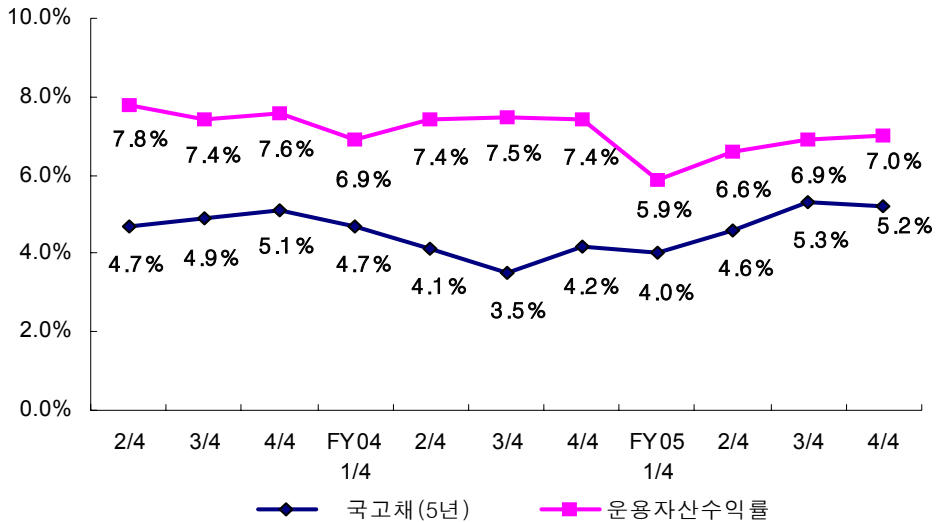
구 분		FY2004		FY2005			
		3/4	4/4	1/4	2/4	3/4	4/4
손해율	화재보험	54.8	56.4	38.8	42.8	41.2	40.9
	해상보험	49.3	49.5	42.8	50.3	49.8	52.0
	자동차보험	72.7	72.7	71.5	73.0	76.8	76.6
	보증보험	21.9	25.3	27.9	10.7	-1.0	2.9
	특종보험	46.5	52.0	40.3	47.0	48.0	51.6
	해외원보험	49.4	41.0	29.1	43.3	55.6	52.4
	장기보험	87.1	87.9	85.6	85.6	85.7	86.4
	개인연금	118.1	123.8	117.6	118.7	119.1	125.9
	전 체	76.6	77.7	75.3	75.9	77.0	77.9
사업비율		23.0	23.1	22.1	22.6	22.9	23.2
합산비율		99.6	100.8	97.4	98.5	99.8	101.1

자료 :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자산 운용>

- FY2005 손해보험 산업의 운용자산수익률은 전년 대비 0.4%p 감소한 7.0%를 나타내었으며 FY2005 1/4분기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함.
- 주식시장의 호조로 단기매매증권 및 매도가능증권의 처분이익 규모가 전년 대비 48.9%, 48.5% 증가하는 등 유가증권 수익률이 높게 나타남.
 - 단기매매증권 수익률은 전년 대비 4.0%p 증가한 12.9%를 나타내었고, 매도가능증권 수익률은 1.6%p 증가한 9.1%를 나타냄.
 - 특히, 손해보험 자산운용에서 가장 많은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는 매도가능증권 채권의 경우 금리인상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채권을 처분, 수익률이 증가함.
 - 반면, 파생상품거래이익은 전년 대비 -55.3%를 나타냄.

<그림 4> 운용자산수익률 추이



주: 1) 분기별 누적치이며, 운용자산은 총자산에서 비운용자산과 특별계정을 제외한 수치임.

2) 자산수익률 = (투자영업수익×2)/(기초자산+기말자산-투자영업수익) ×(연기준 환산)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손해보험회사의 자산운용 포트폴리오에는 장기손해보험 판매 확대에 따라 장기적이고 안정적 운용을 위해 채권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를 보임.
- 일반계정에서 매도가능증권의 채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 대비 2.0%p 증가한 35.1%를 나타내었고, 주식의 비중은 주식시장 호조에 따라 전년 대비 1.4%p 확대된 7.2%를 나타내고 있음.
- 대출채권의 비중은 전년 대비 0.4%p 감소한 17.9%, 부동산은 0.7%p 감소한 7.4%를 나타냄.
- 손해보험회사들의 운용자산은 총자산 대비 85.1%를 차지하고 있어 전년 대비 1.0%p 감소하였음.

<표 17> 손해보험회사 자산운용 포트폴리오

(단위 : %)

구 분	FY2004		FY2005							
	4/4		1/4		2/4		3/4		4/4	
	구성비	수익률	구성비	수익률	구성비	수익률	구성비	수익률	구성비	수익률
현 금 과 예 금	4.4	4.0	4.0	5.9	4.3	3.7	4.3	3.6	4.0	5.2
유 가 증 권	55.3	8.1	55.9	5.9	56.5	6.8	55.9	7.2	55.8	9.9
○단기매매증권	12.4	8.9	12.2	6.9	9.5	9.7	8.1	10.9	7.9	12.9
- 주 식	0.5	31.5	0.6	44.7	0.7	82.2	0.6	103.8	0.3	176.3
- 채 권 등	7.2	9.7	11.6	5.7	5.7	7.2	5.1	8.0	5.5	9.7
- 수익증권	4.7	4.7	0.1	4.3	3.2	4.5	2.4	4.5	2.0	6.1
○매도가능증권	39.5	7.5	40.0	5.5	43.2	6.0	43.7	6.4	43.7	9.1
- 주 식	5.8	9.9	5.7	5.2	6.9	8.0	7.5	7.8	7.2	13.8
- 채 권 등	33.1	7.1	33.3	5.6	34.9	12.6	34.7	5.9	35.1	9.3
- 수익증권	0.6	6.0	0.9	2.0	1.4	9.6	1.5	12.0	1.5	20.9
○만기보유증권	2.9	9.1	3.1	5.9	3.2	5.8	3.3	8.8	3.4	8.2
- 채 권 등	2.9	9.1	3.1	5.9	3.2	5.8	3.3	8.8	3.4	8.2
○투자주식 ¹⁾	0.5	24.8	0.6	34.3	0.6	18.6	0.7	19.9	0.8	27.5
대 출 채 권	18.3	8.3	18.0	7.9	17.6	7.9	17.6	8.1	17.9	10.7
부 동 산	8.1	2.9	7.9	2.6	7.7	3.1	7.5	3.5	7.4	4.6
운 용 자 산 계	86.1	7.4	85.7	5.9	86.1	6.6	85.2	6.9	85.1	7.0
비 운 용 자 산	13.9	-	14.3	-	13.9	-	14.8	-	14.9	-
일반계정 자산 계	100.0	6.6	100.0	5.1	100.0	5.7	100.0	6.0	100	12.2
	(96.4)	-	(96.6)	-	(96.7)	-	(96.2)	-	(96.3)	-
특 별 계 정 자 산	3.6	-	3.4	-	3.4	-	3.8	-	3.7	-
총 자 산	100.0	6.3	100.0	4.9	100.0	5.5	100.0	5.7	100.0	7.8

주: 1) 수익률은 누적실적임.

2) 투자주식은 지분법 적용대상 주식임.

3) 자산구성비는 일반계정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기준으로 제시하였으며, 일반계정의 하단 수치 및 특별계정의 경우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다. 판매채널

<모집형태별 원수보험료>

□ FY2005 모집형태별 원수보험료를 살펴보면, T/M 및 C/M이 포함되어 있는 회사 지급과 방카슈랑스의 비중이 소폭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음.

- 회사직급의 원수보험료 비중은 전년동기 대비 4.0%p 증가한 12.2%를 기록하였음.
- 방카슈랑스의 비중은 지속적인 성장세로 전년동기 대비 1.4%p 증가한 3.4%를 나타내었음.
- 보험설계사 비중의 경우에는 0.4%p 소폭 상승한 반면, 대리점은 2.7%p 하락한 47.0%로 나타나 전통채널의 비중이 감소하거나 정체되고 있음.

<표 18> 손해보험 모집형태별 원수보험료

(단위 : 억원, %)

구 분	FY2004		FY2005			
	3/4	4/4	1/4	2/4	3/4	4/4
회사직급	14,500	18,559	6,845	14,617	28,894	30,336
	8.5	8.2	11.4	12.0	12.3	12.2
보험설계사	60,254	80,439	20,929	43,592	66,438	89,616
	35.5	35.5	35.0	35.9	35.8	35.9
대 리 점	84,414	112,552	29,157	57,563	87,361	117,211
	49.7	49.7	48.7	47.4	47.0	47.0
중개인	1,700	2,123	766	1,302	2,133	2,677
	1.0	0.9	1.3	1.1	1.1	1.1
TM	3,848	5,445	-	-	-	-
	2.3	2.4	-	-	-	-
CM	1,029	1,426	-	-	-	-
	0.6	0.6	-	-	-	-
방카슈랑스	3,099	4,538	1,801	3,806	5,999	8,370
	1.8	2.0	3.0	3.1	3.2	3.4
공동인수	1,115	1,468	329	626	954	1,318
	0.7	0.6	0.5	0.5	0.5	0.5

주 : 1) 각 하단 수치는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2) 원수보험료에서 부수사업과 퇴직보험 부분은 제외되었음.

자료 :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모집조직 생산성〉

- FY2005 4/4분기 손해보험의 모집조직 생산성에서는 보험설계사가 전년동기 대비 생산성이 하락한 반면, 대리점과 임직원의 경우 3/4분기에 이어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설계사 조직의 생산성은 장기손해보험 판매를 위한 설계사 확대에 의해 전년동기 대비 4.9% 하락함.
- 임직원의 경우 온라인 채널 실적이 포함되면서 4/4분기에도 전년동기 대비 39.5%의 지속적인 성장세를 나타냈음.
- 대리점의 생산성은 전년동기 대비 4.8% 소폭 증가함.

<표 19> 손해보험 모집조직 생산성

(단위 : 명, 개, 천원)

구 분	FY2004		FY2005			
	3/4	4/4	1/4	2/4	3/4	4/4
임 직 원	21,731	22,026	24,738	22,223	25,611	25,804
	66,727.1	84,260.5	27,669.0	65,774.4	89,390.5	117,526.8
보험설계사	65,488	61,539	63,818	59,739	75,728	72,116
	92,007.4	130,711.7	32,795.0	72,970.3	87,732.5	124,256.8
대 리 점	46,615	45,953	45,785	43,193	45,758	45,646
	181,087.5	244,928.2	63,682.9	133,270.1	190,919.3	256,782.2

주: 1) 각 상단 수치는 인원수(대리점수), 각 하단 수치는 모집조직단위당 생산성임.
 2) 부수사업과 퇴직보험 부분은 제외됨.
 3) 임직원당 원수보험료 = 임직원 원수보험료/임직원수
 4) 보험설계사당 원수보험료 = 보험설계사 원수보험료/보험설계사수
 5) 대리점당 원수보험료 = 대리점 원수보험료/대리점수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조혜원 선임연구원, 박정희 연구원)

보험제도 및 시장 동향

1. 2005년 신종보험사기 대폭 증가

- 보험사기 조사업무의 체계화, 조사요원의 확충, 유관기관과의 공조 체제 구축, 보험사기인지시스템의 활용 등을 통하여 보험사기 적발 건수의 대폭 증가

2005년
보험사기
적발건수는
전년대비
43.0% 증가,
적발금액은
39.6% 증가

- 2005년 보험사기 적발건수는 23,607건(전년대비 43.0% 증가), 적발금액은 1,802억원(전년대비 39.6% 증가)
- 보험사기 주요유형에는
 - 조직폭력배의 조직적 고의사고 유발, 병·의원의 과잉진료, 친인척 등이 공모하여 질병을 조작하는 행위 등이 주류,
 - 2005년에는 신종보험사기의 적발이 크게 증가
 - 전문 차량절도단에 의한 차량변조 후 매각, 절도차량 밀수출
 - 자동차 정비업소의 중고부품 사용 및 고의적인 차량 훼손 후 부당청구
 - 고액의 보험금을 노려 남편, 형제자매 등 가족을 위해
 - 허위로 홀인원한 것으로 조작 등
 - 또한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 등과 연계된 내부보험사기 증가
 - 내부보험사기 적발은 2004년에 69명이었으나 2005년에는 무려 151명으로 118.8% 증가
- 보험사기 유형별 적발 현황
 - 보험사기 적발건수는 운전자 바뀌치기 6,240건(26.4%), 보험사고의 피해과장 4,742건(20.1%), 보험사고가공 3,686건(15.6%) 등의 유형 순으로 건수가 많음.

- 보험사기 관련금액으로는 보험사고의 피해과장 412억원(22.9%), 고의보험사고 298억원(16.6%), 보험사고가공 293억원(16.3%) 순으로 금액이 많음.

□ 생·손보사별 보험사기 적발 현황

- 보험사기 적발건수는 손해보험이 21,977건(93.1%), 생명보험이 1,630건(6.9%)으로 손해보험이 보험사기의 대부분을 차지
 - 대부분이 자동차사고나 상해사고와 관련하여 사고내용을 조작하여 피해를 과장해 보험금을 편취하는 경우가 많음.
- 관련금액에서는 손해보험이 1,454억원(80.7%), 생명보험이 348억원(19.3%)을 차지
 - 그러나 건당금액에서는 고액보장 상품이 많은 생명보험이 21.3백만원으로 손해보험의 6.6백만원의 3배 이상

□ 연령별 보험사기 적발 현황

- 20~29세 연령층이 2,623명(42.3%), 30~39세 연령층이 1,598명(25.8%), 40~50세 연령층이 1,177명(19.0%)
 - 20~29세 연령층은 외환위기 이후 실업률 증가와 함께 지속적으로 증가

□ 직업별 보험사기 적발 현황

- 무직자가 1,897명(30.6%), 정비업체 종사자 및 의료업계 종사자가 825명(13.3%)을 차지하는 특징을 보임.

* 자료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06. 3. 13

(최영목 부연구위원)

2. 금융회사 등의 개인신용정보 관리·보호 모범규준(BP)시행

감독당국은
개인신용정보
관리·보호를
위한
모범규준(BP)을
마련 및 시행

- 감독당국은 개인신용정보의 오남용에 대한 우려와 개인 사생활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05.11월 「개인신용정보 관리·보호 모범규준(BP)」을 마련

① 목적

- 금융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회사 등(이하 “신용정보업자등”)이 개인신용정보의 효율적 수집·이용 및 체계적 관리를 기하고,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를 보호함에 있어 고려하여야 할 사항들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신용정보업자등은 동 모범규준에 근거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개인신용정보 관리·보호지침”을 마련·시행

② 개인신용정보 관리·보호의 기본 원칙

개인신용정보
관리·보호
정책의
구체적 지침과
체제를 구축

- 신용정보업자등은 당해 기관의 영업행태, 개인신용정보 활용 정도 등을 고려하여 개인신용정보 관리·보호정책을 수립하고 이의 실행을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침과 체제를 구축

- 개인신용정보의 적법한 수집과 이용, 선량한 관리 및 신용정보주체의 보호에 따른 최종적인 책임은 이사회와 경영진에게 있으며, 이사회와 경영진은 내부통제시스템의 실효성을 확보하여야 함.

③ 「개인신용정보 관리·보호 지침」에 포함될 주요내용(예시)

(1) 개인신용정보 수집·활용 업무처리절차 명확화

- 금융회사가 여신거래, 카드발급시 등에 고객으로부터 징구하는 “개인신용정보 제공·활용 동의서”를 개정
- 고객이 동의내용, 이용목적, 정보 활용 및 제공 범위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술

- 금융회사는 고객의 각종 권리사항을 고객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함.

- 금융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동 내용을 상시 게시하고 '고객권리 안내문'을 별지로 작성하여 고객에게 교부

(2) 고객의 자기정보 통제권 강화

고객의 자기정보에 관한 통제권 강화

- 금융회사는 고객이 본인의 신용정보 제공·활용을 동의한 이후라도 본인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중단하도록 요청(동의철회권) 하거나 성가신 전화마케팅 중지(Do-Not-Call)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함.

- 금융회사는 고객정보를 제공받아 활용하는 제휴회사 등과 고객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관리 약정을 별도 체결하게 됨.

- 금융회사 거래고객은 개인 CB(Credit Bureau)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무료로 본인 신용정보와 신용등급을 확인(연간 1회 또는 1주일 등 일정기간)할 수 있게 되어 향후 본인의 정확한 신용상태 파악이 더욱 용이하게 됨.

- 대부업체(중개업체)의 조회 기록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객이 대부업체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대출가능 여부 조회시 동 조회사실이 신용등급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고지하는 홍보문구를 표시하게 됨.

(3) 금융회사 등의 내부통제 강화

개인신용정보 취급자의 내부통제시스템 활성화

- 아울러 금융회사 등은 내부통제 강화를 위하여 준법감시인(감사)의 감독을 받아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신용정보 관리와 보호를 전담하는 "신용정보 관리보호인"을 지정·운용

- 금번 모범규준에서 자체적으로 운용할 개인신용정보 관리·보호 지침을 마련

- 금융감독원은 향후 금융회사의 실제 이행상태에 대한 현장 점검 등을 통하여 모범규준의 원활한 시행을 독려할 예정
 - 동의철회권, 전화수신거부권 등 신규 도입되는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신용정보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
- 신용정보업자 등은 신용정보 전산 시스템에 대한 기술적·물리적 보안대책을 마련, 시행 및 이행여부에 대하여 철저히 점검

* 자료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06. 05. 02

(박정희 연구원)

3. 간접투자자산 운용업감독규정/시행세칙 개정

금감위는
간접투자자산운용
업법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을
개정

- 금융감독위원회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 등을 정하기 위하여 운용업감독규정 및 시행세칙을 개정
 - 수탁회사·자산보관회사의 등록요건 정비(규정안 제44조제3항)
 - 신탁업법 개정으로 증권회사·보험회사가 신탁업 겸영이 가능함에 따라 증권회사의 영업용순자본비율(150%)·보험회사의 지급여력비율(100%)을 수탁회사·자산보관회사 등록을 위한 재무건전성 기준으로 함.
 - 간접투자 관련 광고의 절차(규정안 제52조의3)
 - 자산운용회사·판매회사가 간접투자자와 관련된 광고를 하는 경우 당해 회사 준법감시인의 사전확인 절차를 따르도록 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자산운용협회에 위임
 -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업무 위탁
 -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등록 관련 업무 중 다음의 경우 신청내용의 사실 확인, 관계법규 부합 여부에 대한 심사 및 보완자료의 요청에 관한 업무를 금융감독원장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자산운용회사의 지배주주 변경승인(규정안 제11조의2)
 - 수탁회사·자산보관회사·일반사무관리회사·판매회사 등록(규정안 제44조제2항)
 - 외국투자자문업자의 투자자문업·투자일임업 등록(규정안 제86조제1항)

- 전산설비 공동이용 승인 및 보고서 등의 접수 업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
 - 자산운용회사와 그 계열회사·판매회사의 전산설비 공동이용의 승인(규정안 제108조제14호)
 - 외국자산운용사의 외국간접투자증권 국내판매시 판매중지신고서 및 변경신고서 접수(규정안 제108조제25호의2)
 - 외국자산운용사의 판매대행회사와의 판매대행계약 체결결과 보고 접수(규정안 제108조제25호의3)

□ 투자설명서 등 서식 정비

**시행세칙상
수탁회사 등
등록신청서식을
감독규정으로
이관**

- 시행령 개정에 의해 수탁회사 등 등록에 관한 금융감독위원회의 금융감독원장 위탁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시행세칙상 등록신청서식을 감독규정으로 이관(규정안 별지 제11호 내지 제11-3호)
- 투자설명서 서식 중 투자증권·장내파생상품 거래시 중개회사 선정기준 기재란 신설(세칙안 별지 제17호 및 제18호)
- 자산운용보고서 서식 중 투자증권 등 거래시 중개회사별 거래금액·수수료·비용 기재란 신설(세칙안 별지 제19호)

□ 감독규정 내용이 시행령에 반영됨에 따른 조문 정리

- 판매신고 수리 전 외국간접투자증권의 판매·판매광고 금지 규정이 시행령 제154조제2항의 규정에 반영됨에 따라 해당 규정을 삭제(규정안 제97조제1항)
- 외국간접투자증권의 국내판매 변경신고사항 중 일부 내용이 시행령 제154조제3항에 의한 판매중지사유에 반영됨에 따라 이를 삭제(규정안 제9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 자료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06. 05. 13

(김진익 선임연구원)

4. '예금보험제도의 현안과제 및 개선방안' 공청회 개최

<개요>

보험의 특성을
감안한
보험권의
제도개선이
요구됨

- 보험개발원은 2006년 6월 '예금보험제도의 현안과제 및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금융기관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예금보험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공청회를 개최
 - 현재 예금보험제도는 외환위기 이후 은행의 구조조정에 따라 예금보험기금이 통합·운영됨으로써, 금융업종간 보험요율 적용의 근거가 미흡한 실정이며, 이로 인해 금융기관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기금운영이 정당성을 가지려면 분리계정에 의한 기금분리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예금보험기금의 자율성제고측면에서 예금보험위원회의 구성도 금융시장참여자의 비중을 대폭 늘리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되어야 함.

<주요내용>

적정 보험요율
수준 조정과
기금 적립
방식의 전환이
필요

- 보험요율체계 측면
 - 보험료수입과 보험금지급실적에 기초한 손해율방식에 의해 분석한 결과, 향후 보험권의 보험요율은 현재 보험요율의 27%수준인 0.081%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손해보험의 적정보험요율 0.018%, 생명보험의 적정보험요율은 0.102%인 것으로 조사
- 기금 적립방식(목표기금제 도입)
 - 기금의 적립방식은 일정금액까지는 사전적립(목표기금)하고, 보험사 파산 등으로 기금이 목표수준에 미달하면 사후각출하는 방식으로 전환이 바람직함.

- 보험권 전체로는 최소 5,336억원(생명보험 3,856억원, 손해보험 1,480억원)에서 최대 7,824억원(생명보험 5,400억원, 손해보험 2,424억원)의 목표기금을 보유하는 방안도 검토 필요성이 있음.

□ 보상한도 수준

- o 보험계약의 특성을 고려할 때, 해약환급금의 보상한도는 2,000만원 수준으로 하향조정하되, 보험금기준의 보상한도는 대폭적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해약환급금기준 보상한도는 2000만원 수준으로 조정하고, 보험금기준 보상한도는 『2000만원 + 초과분 × 90%』로 하는 것이 현실적임.

기금과 금융권역간 연계성을 제고해야 함

□ 보호기금분리

- o 현행 단일기금 운용방식에서 복수기금 운용방식으로 전면 전환하여, 기금과 금융권역간 연계성을 제고하는 것이 바람직함.

* 자료 : 보험개발원 보도자료, 2006. 6. 8

(박정희 연구원)

5. 보증보험 시장 개방안 발표

- 금융감독위원회는 2006년 6월 보증보험 시장 개방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KDI의 연구결과를 발표하는 보도자료를 배포

금융감독위원회는
보증보험시장
개방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KDI연구결과
발표

- 2005년 11월 규제개혁장관회의결과 2006년 상반기 중 보증보험 시장개방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하기로 결정
- 이에 따라 2005년 중 한국개발연구원에 보증보험 시장개방관련 연구용역을 의뢰

가. 보증보험 시장개방의 영향

1) 긍정적 측면

- 소비자 권익 증대
 - 보증시장이 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되어 새로운 상품이 개발되고 상품접근성 및 보상측면에서 소비자에 보다 유리할 것으로 예상
 - 보증보험료 및 기존 보증기관의 보증수수료가 낮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신규시장 확대 및 산업 경쟁력 제고
 - 선진형 신용보험 상품개발이 촉진되어 보증시장규모는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각 기관별 경쟁 촉진을 통해 경쟁력 제고가 가능
- 규제개혁 추세에 부합

보증보험
시장개방은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가짐

2) 부정적 측면

- 경쟁심화에 따른 부실화 가능성
 - 전면 개방시 가격 덤핑 등 과당경쟁이 발생하는 가운데 거시 경제상황이 악화될 경우 부실이 발생할 가능성
- 서울보증보험(주) 실적 악화에 따른 공적자금 회수가능성 감소
 - 전면 개방은 수익성에 악영향을 미쳐 지분매각 또는 배당을 통한 공적자금 잔여액(9.7조원)의 회수가능성 감소 예상
- 특정한 과다보증을 통한 동반부실화 가능성
 - 특정한 등에 과다·편중 보증시 해당 회사의 부실화가 보험회사의 부실화로 이어질 가능성

나. 향후 추진 계획

1) 기본방향

**보증보험에
관한 세부적
사항은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
결정할 계획**

- 보증보험 영위체제, 개방의 속도 및 건전성 감독 장치 등 세부적 사항은 업계, 소비자단체, 학계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관계부처간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합리적으로 결정할 계획

〈개방 추진시 주요 고려사항〉

- 시장 개방의 실질적 효과 달성(긍정적 효과 극대화)
- 보증보험 소비자의 편익 제고
- 서울보증보험(주) 등 기존 보증기관에 미치는 충격 최소화
- 일반 손해보험사의 재무건전성 확보

<보증보험 영위체제>

- 전업사 체제를 유지하는 방안은 일반 손해보험사의 부실화 차단, 보증보험 건전성 감독 용이 등 장점이 있기는 하나
 - 사실상 시장 진입의 제한요소로 작용하고, 현행법상 전업사에게만 보증보험산업을 영위토록 할 법적 근거가 없음
- 일반 손해보험사의 겸영을 허용하는 방안은 다수의 시장참여를 통한 실질적 개방 효과 달성측면에서 유리하며 현행 법체제에 부합
 - 다만, 보증위험 공유에 따른 일반 손해보험사의 부실화 가능성 및 서울보증보험(주)의 공적자금 회수가능성이 감소하는 단점

<전면 개방 vs 단계적 개방>

- 전면 개방은 보증보험 전 상품을 일시에 개방하는 방안으로 개방 효과는 크나
 - 서울보증보험(주) 등 기존 보증기관은 개방에 대비할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여 실적이 악화될 가능성
- 반면, 단계적 개방은 개방의 효과가 점진적인 반면 기존 보증기관의 철저한 대비가 가능

<재무건전성 확보방안>

- 총 보증한도 규제, 지급여력제도 강화, 비상위험준비금 강화, 동일한 보증한도 규제 등 다양한 방식의 건전성 감독장치에 대해 외국 사례 및 규제 효과 등을 고려하여 도입여부를 결정

<추진방향>

- 전업사만 허용할 경우 시장 참여자 감소로 개방의 실익이 없는 문제가 있어 겸영 허용을 추진하되 재무건전성 제도 마련 등을 검토하여 부작용 최소화
- 전면 개방에 따른 부작용, 겸영 허용방침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 개방을 추진

2) 추진 일정

**관계부처
협의후
개방방안
확정계획**

- KDI에서는 6.19(월) ‘보증보험산업의 발전방향’을 주제로 공개토론회를 개최
 - 상기 토론회에서 보증보험 개방의 효과, 단계적 개방시 세부 범위 및 일정에 대한 방안(사례) 등이 제시될 예정
- 공개토론회에서 제시된 업계, 학계, 소비자단체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최종 개방방안(RoadMap)을 확정할 계획

* 자료: 금감원 보도자료, 2006. 6.13.

(김진익 선임연구원)

6.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공청회 개최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공청회 개최

- 보험개발원은 자동차보험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점을 제시하여 보험료의 형평부담과 자동차보험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공청회」를 개최

<자동차보험제도 현황 및 문제점>

가. 차량모델별 보험료 차등화제도

차량모델별
손해율 격차가
매우 큼에도
불구, 보험료에
반영되지 않음

- 차량모델별 손해율을 살펴보면 동일 차종내에서도 차량모델별로 자기차량손해담보의 손해율 격차가 매우 크게 존재함에도 손해를 차이가 보험료에 반영되지 않고 있음.

<표 1> 차량모델별 자기차량손해담보 손해율 수준(승용차 소형B 기준)

(단위 : %)

차량모델	손해율	상대도
아반떼 1.5 오토ABS장착	46.9	62
아반떼 1.5(4DR) ABS미장착	61.2	81
라노스 1.5 ABS장착	68.7	91
누비라 1.5 ABS장착	71.8	95
세피아II 1.5 ABS미장착	75.1	100
베르나센스 1.5 ABS미장착	83.2	110
쎄라토 1.5 오토 ABS장착	87.2	116
슈마 1.5 ABS미장착	90.2	120
스펙트라 1.5 오토 ABS미장착	94.4	125
칼로스 1.5 오토 ABS미장착	102.9	136

나. 할인·할증제도

무사고시
보험료
할인폭이
필요이상으로
과다

- 현행 할인·할증제도는 무사고년수가 증가함에 따른 보험료 할인 폭이 실제위험도보다 과다하여 할인·할증 적용률이 낮아질 수록 손해율이 급증하는 기현상이 초래되는 문제가 있음.
- 무사고시 보험료 할인 폭이 필요이상으로 과다하기 때문에 따라 고할인계층(적용률 69% 이하)의 보험료 부족분을 적용률이 높은 계층이 보전하는 형평성 결여 문제가 발생함.
- 또한, 보험회사는 장기 무사고 계층을 손해율이 높아 불량집단으로 간주하고 인수를 기피함.

<표 2> 할인·할증계층별 손해율 현황(CY'05)

구분	할인							기본	할증	계
적용률	40	45	50	60	70	80	90	100	100초과	
손해율	85.9	88.5	85.3	77.1	71.9	70.5	67.9	68.0	65.2	74.8
상대도	115	118	114	103	96	94	91	90	87	100

<주요 제도개선 방향>

가. 차량모델별 보험료 차등화

차량모델별
손해율 통계를
이용, 보험요율
차등화

- 실적통계를 기초로 요율차등화
 - 기존차량의 경우 보험금 지급실적이 집적되어 있는 바 차량모델별 손해율 실적통계를 이용하여 보험요율을 차등화
 - 신조차량의 경우 신조차량의 수리성·손상성을 평가하여 사고심도를 구하고, 사고빈도계수는 유사차종의 빈도계수를 사용하여 적용등급 및 적용요율을 결정
 - 우선, 승용차 및 자기차량손해담보에 도입하고 점차 확대 시행

□ 등급 및 등급요율의 결정

- 제도 도입에 따른 보험가입자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pm 10\%$ 범위내에서 차량모델별 위험도 등급 및 위험도가 적용 되도록 등급요율을 결정하고, 도입이후 점차 확대시행

<표 3> 차량모델별 등급요율표

(단위 : %)

등급	1	2	3	4	5	6	7	8	9	10	11
요율	90	92	94	96	98	100	102	104	106	108	110
손해율상대도	75	80	85	90	95	100	105	110	115	120	125

□ 외산차량의 요율상대도

- 외산차량의 경우 부품조달비용이 매우 높아 국산차량보다 손해율도 월등히 높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요율을 차등화
 - 차량대수가 많지 않음을 감안하여 제작회사 및 배기량별 손해율에 따라 차등화

나. 할인·할증제도 개선

회사별
경험통계에
기초, 최고
할인율
도달기간 및
할인율 차등화

□ 시행방안

- 현행 할인·할증제도의 문제점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가격자유화의 취지에 따른 보험회사의 자율성 제고 및 보험가입자의 선택의 폭 확대 등을 통해 회사별 경험통계 등에 따라 회사별로 최고 할인율(60%) 도달기간 및 할인율을 차등화가 바람직
 - 다만, 시행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 최고할인율(60%) 및 최고할증률(100%)은 유지

- 보험가입자 보호 및 혼란 방지를 위해 각 회사는 회사별 할인·할증제 시행 최소 1월 전에 회사별 할인·할증제도 시행 내용을 공시하고, 한번 시행한 할인·할증제도는 일정기간 내에 변경치 못하도록 함이 바람직
- 또한, 장기무사고로 최고할인율(60%)에 도달한 가입자에 대해 장기무사고 계약자 보호장치(최고할인보호제도) 마련 검토
 - 즉, 장기무사고로 최고할인율(60%) 적용자가 1점 사고 유발 시 할증되지 않도록 하고, 2점이상 사고시 최초 1점은 빼고 나머지 점수로 할증등급을 계산토록 할 필요

* 자료 : 보험개발원 보도자료, 2006. 6. 22

(조혜원 선임연구원)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 재정경제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하여 6월 30일 입법예고를 하였음.

<통합법 제정안의 주요내용 - 기 발표내용>

재정경제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

- (1) 자본시장관련 금융상품에 대한 사전적 제약을 철폐하여 금융투자상품의 범위를 대폭 확대함으로써 모든 금융투자상품의 취급과 설계를 허용하고 모든 금융투자상품에 대해 투자자 보호가 이루어지도록 함.
- (2)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주체가 누구인지를 불문하고 동일하게 이 법상 금융투자업 규율을 적용함으로써 모든 금융투자상품 투자와 관련하여 투자자가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3) 금융투자회사가 6가지 금융투자업을 모두 영위할 수 있도록 하여 대형화·겸업화된 투자은행의 출현 기반을 마련함.
- (4) 금융투자회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여 자본시장의 효율성과 투자자의 편의를 제고
- (5) 투자권유와 관련한 투자자 보호 장치를 선진화 함.
- (6) 공시제도를 개선하여 시장의 효율성을 높이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함.
- (7) 기타 자본시장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함.
- (8) 기타 법률의 통합과 관련된 제도의 정비

<의견 수렴 결과를 반영하거나 새롭게 추가된 내용>

자본시장은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간접투자자산
운용법 등
개별 법률이
폐지되고 총
10편 420개
조항으로
구성된 단일
법률이
적용될 전망

- (1) 금융투자상품을 정의함에 있어 '원본' 개념과 '회수금액'을 시행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 위임근거를 마련
- (2) 일반적인 신탁업과 달리 원본이 보장되는 개인연금·연금신탁은 금융투자업으로 보지 않되, 신탁업자만 취급할 수 있도록 동 법에 별도의 업규제를 마련
 - ※ 다만, 2010년까지만 원본보전을 허용하기로 하였으므로('05.11월 금융규제 개혁방안) 그 이후에는 금융투자업(신탁업)으로 규율
- (3) 요청하지 않은 투자권유 금지제도(투자자로부터 요청없이 방문·전화 등을 통해 투자 권유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제도)는 위험 금융투자상품(장외파생상품)에 대해서만 적용함.
 - ※ 보험계약(변액보험 포함)과 증권의 경우 동 규제의 대상이 아님.
- (4) 투자자의 거부 의사에 반하여 금융투자상품을 계속 투자권유 하는 것을 금지하는 '의사에 반하는 재권유 금지제도' 도입
- (5) 부동산투자회사, 선박투자회사, 창업투자조합 등 개별법상 단종 펀드에 대해서는 '공모펀드 및 일반투자자가 포함된 사모펀드'에 대해서만 통합법상 집합투자업 규율과 펀드 규율을 받도록 함.
 - ※ 현재, 건교부, 산자부, 해수부, 중기청 등 관계부처와 협의 중
- (6) 은행과 보험사 등이 영위하는 금융투자업에 대해서도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이 법상 금융투자업 규제를 적용
 - 다만,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영업행위 규제만을 적용하되 진입규제(인가)는 완화하고, 건전성 규제는 적용하지 않음.
 - ※ 인가받은 것으로 간주해 주거나, 금감위에 일괄 신고시 효력 인정
- (7) 통합법 시행일은 시장참가자와 감독당국이 충분한 유예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공표일로부터 1년 6월 후로 하고,

**통합법
시행은 시장
참가자와
감독당국이
충분한
유예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공포일로부터
1년 6월 후로
함**

- 기존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일괄 재인가 등록은 법 공포일 1년 후부터 법시행 전까지 6개월 동안 이루어지도록 함.
- (8) 자율규제기관(협회)의 기능별 재편을 위하여 증권업협회, 자산운용협회, 선물협회를 단일의 '금융투자협회'로 통합하는 방안으로 조문을 마련
- (9) 금융투자회사의 소액결제시스템 이용과 관련하여 소액결제시스템의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 결제대상 금액은 고객예탁금(위탁매매 계좌내의 현금)으로 한정하여 증권의 가치변동 리스크의 전이가능성을 차단
 - 대표금융기관(증권금융)이 금감위로부터 은행 수준의 건전성 규제를 받도록 함.
- (10) 집합투자증권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의무가 부과됨에 따라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설명서 제공 의무를 폐지하여 투자자에 대한 투자정보 제공을 증권신고서 제출시 투자설명서(기존의 사업설명서)로 일원화함.
- (11) 실효성이 크게 감소한 금융투자회사 임직원 등에 대한 주식 직접투자 제한을 폐지하되 선진국 수준의 내부통제 장치를 도입
- (12)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에만 적용되는 대주주 변경시 금융감독위원회의 사전승인제도를 투자일임·자문업자·신탁회사에도 적용하여 건전 경영을 유도
- (13)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명칭을 「한국거래소」로 변경하고 「증권예탁결제원」의 명칭을 「한국예탁결제원」으로 변경
- (14) 법 위반시 형벌 수준을 은행법 수준으로 강화하여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함.

**기존
금융투자회사
에 대한 일괄
재인가·등록
은 법 공포일
1년 후부터
법시행
전까지 6개월
동안
이뤄지도록
할 방침**

□ 동법 제정에 따른 금융법의 체계 변화

- 동법이 제정되면 자본시장은 총 10편 420개 조항으로 구성된 단일 법률의 규율을 받게 됨.
-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신탁업법,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등 7개 법률이 폐지되고
- 여신전문금융업법, 부동산투자회사법, 선박투자회사법, 산업발전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문화산업진흥기본법 등 9개 법률이 일부 개정됨.

□ 향후 추진 일정

- 입법예고(7월 20일까지)와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후,
- 금년 중 국회에 동법 제정안을 제출할 계획임.

출처 : 재정경제부 보도자료, 2006. 6. 30

(김진익 선임연구원)

해외보험 동향

LIMRA
단체생명보험
실적분석
보고서 발간

1. 미국동향

<단체생명보험 : 산업성장의 요소>

- o LIMRA international은 단체생명보험이 최근 저조한 실적을 이어감에 따라, 최근 단체생명보험의 지속적인 저조한 실적에 대한 원인 분석 보고서를 발간
- o 1998년 이후 미국의 단체생명보험 성장은 저조한 양상을 보여 2005년까지 5년간 연평균 2% 성장에 그침.
- o 단체생명보험판매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많은 요인들 가운데, 마케팅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요인은 다음과 같음.

1) 사회적 요인

긍정적 요인	부정적 요인
맞벌이가정과 여성가장가족의 증가는 단체생명보험을 포함한 종업원기준급부증가에 대한 기반을 제공	고용주에게 있어 보험가입은 단체의 속성과 위험의 변화 때문에 점차 많은 비용이 소요될 전망임
보험보장에 대한 필요성이 비전통적(e.g., 편부모) 가정에서 증가	노령자들은 보장성상품보다는 저축/투자상품에 보다 관심을 가짐
개인저축률이 2005년 하락하고 있으며, 이는 생명보험의 필요성을 높임	종업원들은 다른 급부에 비해 생명보험급부에 낮은 가치를 둠

중·저소득층 개인과 가정에서 작업현장이 보험구입에 대한 일 차적인 채널이 되었음	종업원사이에 생명보험에 대한 필요성은 종종 다양한 필수적인 가사비용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건강보험비용이나 퇴직저축필요 와 같은 보다 긴급한 관심사로 대체됨
5명중 3명의 종업원들은 예측하 지 못한 사망시 가정을 위한 대 비에 관심을 가지고 있음	종업원이 가입자격을 가지고 있 지 않거나 제한적인 자격을 가 지고 있는 고용관계가 보다 일 반화 되고 있음
소규모 기업시장에서는 아직도 단체급부보험사에 일정한 성장 기회를 주고 있음	대부분의 정규종업원들은 가까운 시일내에 새로운 생명보험담보나 기존 생명보험담보를 구매할 가 능성 낮음

단체생명보험
계약은 단순한
상품이
긍정적인
판매요인으로
작용

2) 상품설계

긍정적 요인	부정적 요인
전형적인 단체생명보험계약은 다른 보험상품보다 이해하기 쉬움	단체생명보험에만 의지하는 대 부분의 종업원들은 보험이 불 충분한 경향이 있음
평균적인 단체생명보험담보는 1998년에서 2004년까지 27%씩 성장	단체생명보험가입금액의 성장은 부분적으로 연간 임금증가에 의 해 유발됨

3) 유통

전형적으로 단체보험 구매자들은 생명보험상품에 대해 지식이 많음	판매기준 보상구조는 모든 다른 비의료 단체급부뿐만 아니라 단체 생명보험에 대한 중대한 방해물
---------------------------------------	---

* 자료: LIMRA International, "Group Life Insurance: Factors Affecting Industry Prospects, 2006.

(김진익 선임연구원)

2. EU 동향

<2006년 부유층을 대상으로 한 가계보험>

- 영국의 부유층(HNW:high-net-worth) 및 중산층(MNW:mid-net-worth) 고객을 대상으로 한 개별관리방식의 보험시장의 규모를 확인하고, 영국 부유고객층이 보험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함.

1. HNW 시장의 배경

고객 니즈에
따라 보다
전문·선행적
개별상품을
HNW 시장에
제시

- 영국의 부유층 가계보험은 기존의 표준화된 가계보험에서 벗어나 고객의 니즈에 따라 전문화되고 개별 특성에 맞는 상품을 판매함으로써 부유층 시장에 보다 적합한 것으로 인식하게 됨.
- 보다 높은 수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일반시장에서 벗어나 특수한 보장성을 지닌 것이어야 하며, 부유층대상의 보험상품은 고객의 라이프스타일이나 부유층 개인고객의 요청사항들을 반영한 특수한 범위의 상품을 제공하여야 함.

* HNW 상품범위의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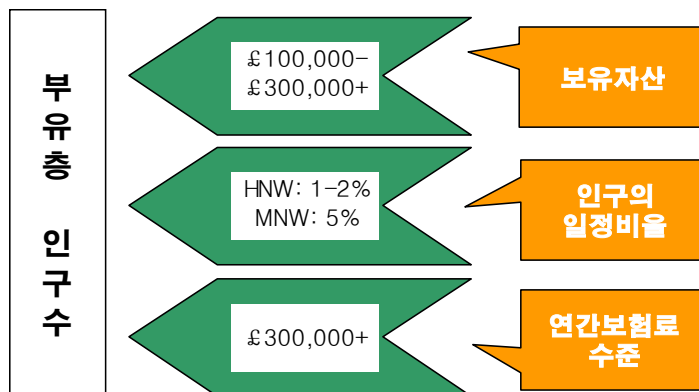
- 골동품과 예술품에 대한 보장: COVER FOR ANTIQUES AND FINE ART
- 보험증권 하나로 모든 자동차와 요트까지 보장: COVER FOR CARS AND YACHTS UNDER THE SAME POLICY
- 여행자보험과 소유물에 대한 전세계적인 보장: TRAVEL INSURANCE AND WORLDWIDE COVER FOR POSSESSIONS
- 2주택 또는 별장에 대한 보장: COVER FOR SECOND HOMES OR HOLIDAY HOMES

보험회사는
시장환경에
따라 부유층
고객을 정의

2. 거액자산가(HNW-Individual) & 부유층 고객 분류 기준

- DATAMONITOR's Global Wealth Model은 유동성자산이 200,000파운드 이상인 사람을 HNW 고객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각 보험회사는 시장상황에 따라 HNW 고객층을 다르게 정의함으로써 그 기준이 표준화되어 있지는 않음.
 - 즉, 상품제공자에 따라 유동성 자산이 100,000부터 300,000파운드까지 다양한 고객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전형적으로는 부동산(건물)의 가치가 500,000파운드 이상인 특수부유층의 경우에서 부동산(건물) 보험을 필요로 할 것임.
 - 일부 보험회사들은 시장 규모를 추정하는데 있어 새로운 방식을 사용하고 있으며, 한 보험사의 경우 영국의 59.4백만명 중 약 5%는 '일반 부유층(general affluent)'에 해당되고, 실질적으로 1~2%만이 '진정한 부유층(true HNW)'으로 해석하기도 함.
- 한편, 일부 보험회사들은 그들이 지불하는 보험료에 따라 고객을 구분하고 있음.
 - 그 예로써 Chubb의 경우 연간 3,000파운드 이상 보험료를 지불하는 고객을 부유층 고객으로 간주하고 있음.

<그림 1> HNW와 부유층 고객의 분류 방식



- 그 외에도 보험회사들은 중산층이 미래 부유층 그룹의 잠재고객이 될 것임을 예상하고, 고객 수 증가를 위해 신흥부유층(emerging affluent)과 중산층(MNW)까지도 그들의 고객대상에 포함시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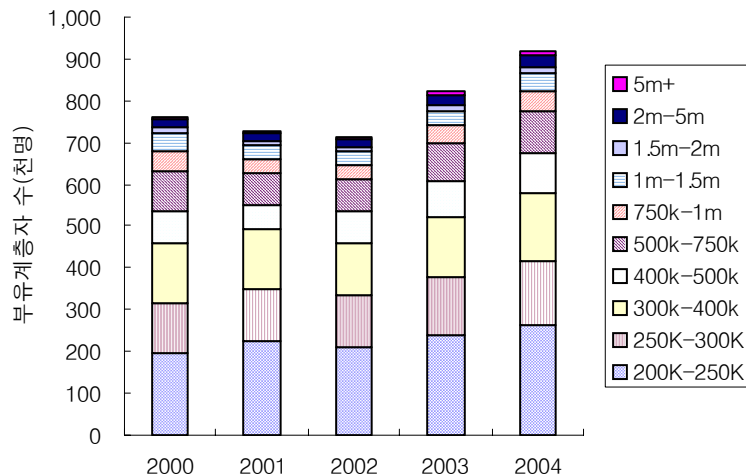
3. HNW 보험의 가입자 수와 성장률

- 2004년에는 유동자산이 200,000파운드 이상인 고객 수가 916,400명으로 11.7% 성장한 반면, 유동자산이 5,000,000파운드 이상인 고객층은 20.5% 상승하였음.

2004년 부유층
수는 약100만명
증가하였으며,
HNW 보험
고객 수도 증가

- 실질적으로 2001년과 2002년 사이에는 세계적인 경기악화로 인해 HNW의 수가 감소하였으나, 거시경제 상황의 성장에 따른 수익증가로 인해 HNW의 수가 회복하게 되었음.
- 또한, 상대적으로 낮은 이율에 따른 대출 증가와 활발한 투자로 인한 경기호조로 2002년과 2004년 사이에는 HNW 보험산업의 시장도 성장하게 되었음.

<그림 2> 유동자산 범위에 따른 HNW 고객의 수(2000~2004년)



4. HNW 시장의 상품보급률

보험제공자는
부유층대상의
상품보급률
증가가 필요

- 보험회사는 부유층대상의 보험상품 보급률 높이기 위해서는 상품의 인식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함.
- 많은 HNW 보험사들은 상품의 인식 확대가 필요한 것이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 생각하며, 고객은 물론 일부 브로커조차도 HNW 상품 판매여부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
- HNW 보험상품 제공자들은 판매 전략의 주요 관건으로써, 표준화 된 시장의 일반상품에서 벗어나 보다 전문화되고 고수익 상품으로 부유층 고객들을 유도하는 것임.

□ 상품 보급률은 약 25% 정도임.

유럽이
미국에 비해
상품보급률이
현저히 낮음

- Datamonitor와의 인터뷰에서 한 보험산업 전문가에 따르면, 부유층 대상의 보험상품 보급률은 20~30% 정도로 예상함.
- 2004년 영국의 부유층 보험상품 고객은 229,100파운드에 해당되는 것으로 25% 수준으로 나타남.
- 다른 유럽시장과 비교 시 영국의 상품보급률은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나, 미국에 비해서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국의 경우 부유층 고객의 경우 건물 및 가계보험 분야를 보장하기 위한 특수보험의 가입이 40% 정도인 것으로 조사됨.
- 보험산업 전문가들은 영국의 부유층 고객대상의 상품보급률 수준이 미국과 같이 점차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5. 부유층대상 보험상품의 판매채널

부유층의
판매채널의
85% 정도가
브로커와
중개사를
통해 가입

- 부유층대상 보험상품의 판매채널은 85%정도가 브로커에 의해 판매되고 있는 실정임.
 - 영국의 경우, 브로커와 중개인들이 대부분의 부유층보험을 판매하고 있으며, 수입보험료의 85%정도에 해당되는 것으로 파악
 - 일반 가계보험 시장의 포괄적이고 총체적인 상품과는 달리 거대 자산가(HNWI)의 경우에는 브로커에 의해 제공된 조언에 따라 좀 더 세부적이고 개별적 특성에 맞는 상품을 설계하여 판매
 - 고소득 계층고객의 대다수가 본인 스스로 해당 보험상품을 직접 구매하는 것을 기피하고 있으며, 보험료를 좀 더 지불하고서라도 본인의 여유시간을 더 가지고자 함.
 - 따라서 본인이 직접 보험상품을 찾기보다는 골치 아픈 사항과 시간절약을 위해 중개인에게 의뢰하는 추세임.

□ 은행들도 부유층 보험시장을 목표로 하고 있음.

은행에서도
특정 고객을
대상으로
보험상품을
판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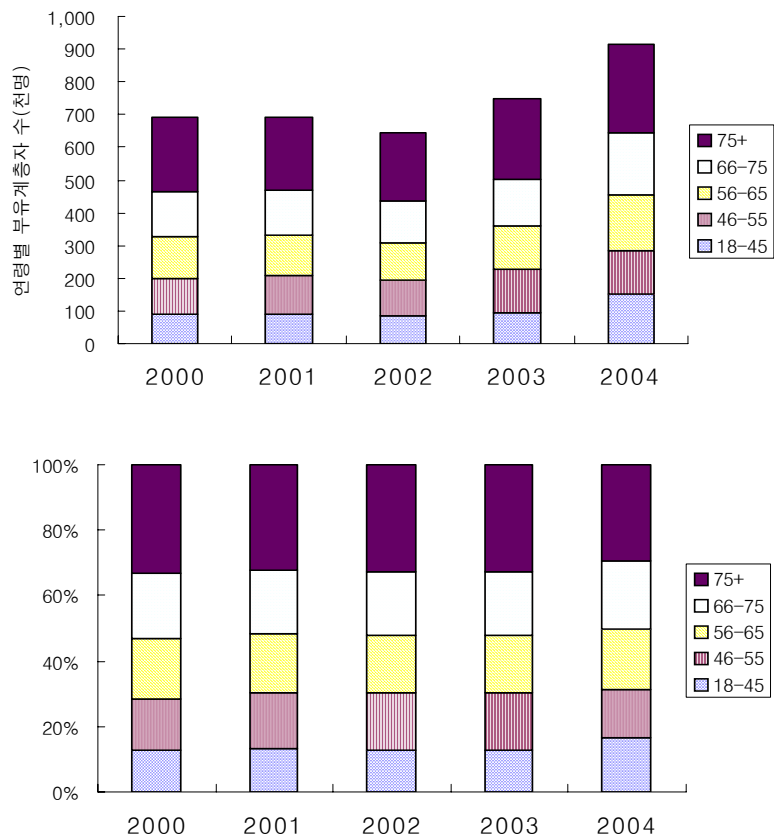
- HSBS와 Barclays 두 보험회사는 고수입 고객을 대상으로 한 ‘Premier’ 보험상품을 소개하고 있음.
 - 예를 들어, HSBC 은행의 경우 350,000파운드 이상의 재산을 보유한 고객을 대상으로 Premier 상품을 제공함.
- 2005년 1월 FSA규제의 시행에 따라 브로커들도 고객의 요구와 니즈에 맞게 보다 다양한 보험상품을 제공할 수 있게 됨.

6. 거대자산가(HNWI)의 연령층 추세변화

거대자산가의
주된 연령층은
75세 이상이며,
젊은 부유층의
수도 비례하여
증가하고 있음

- 거대자산가(HNWI)의 대부분의 연령층은 75세 이상이나, 인구통계상의 젊은 층에서도 거대자산가가 증가추세에 있음.
- 2004년 부유층 연령구성을 살펴보면, 젊은 층의 부유층 그룹 수가 급속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18~24세에 해당하는 거대자산가(HNWI)의 비율이 16.6%로 나타나, 2003년 12.9%에 비해 크게 증가
- 그러나, 75세 이상 그룹이 2004년 29.6%로 부유층에서 가장 크게 차지하고 있음.

<그림 3> 영국의 연령별 부유층 그룹(2000~2004년)



7. HNW 보험활성화 방안

부유층의
보험상품
판매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전략방안이
필요

- 보험회사들은 부유층 보험상품 판매를 위해 다양한 전략을 수립하고 있으며, 고객에게 이러한 상품에 대한 인식을 증대시키고자 함.
- 보험회사들은 부유층 보험상품의 브랜드를 인식시킴과 동시에 보다 완벽한 상품을 제시함으로써 부유층 고객시장에 접근할 수 있음.
 - 일부 보험회사들은 접근방식이 쉬운 인터넷 매체를 통해 중산층 보험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판매영역을 확장할 수 있으며, ABI 통계청을 통해서도 가계보험 시장의 플랫폼이 대중적인 성장을 이루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일부 보험제공자들은 브로커들 간의 업무공유를 통해서 고객에게 부유층 보험상품의 교차판매가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기업 간 협력 및 친밀한 유대관계를 통해 이루어짐.
 - 또한, 보험회사는 다양한 이벤트를 통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함으로써 부유층대상의 보험상품 판매하거나 적정고객 유치에 효과적인 지원을 하고 있음.

8. HNW 보험상품의 한계 및 문제점

- 부유층고객은 특수 보험이 아닌, 실재가치 이하의 보험에 들어있으며, 이러한 문제점은 더욱 악화하게 되었음.
- 실재가치 이하의 보험은 부유층 시장에서 문제점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는 곧 상품의 부적절성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소득계층별
부적절한
보험상품 판매
따른 문제점
제시**

- 특수보험상품의 보급률이 낮음으로 인해서 많은 개인들은 특수 보험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음.
- 이는 부유층 고객이 특수보험상품의 상품특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함과 동시에, 부유층 보험상품이 판매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모르고 있음.
- 따라서, 대부분의 부유층 가계보험 고객들은 일반표준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실정이며, 일반표준보험 상품의 한계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
- 일반표준상품의 경우에는 예술품과 골동품에 대한 보장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부유층대상 보험의 보장내용이 불충분할 수 있음.

□ 2004년과 2005년 보험료 비율은 큰 변화가 없었으며, 일부 보험회사에서는 오히려 감소하였음.

- 부유층 시장의 보험회사들은 가격경쟁의 증가로 인해 2004년과 2005년의 보험료 비율이 상대적으로 평탄하였으며, 이는 지난 몇 년간 좋은 수익을 가진 시장이었으며, 수익성이 시장에 새로운 자금을 유입시켰음.

**보험회사들의
가격경쟁 및
요율변동이
없는 상황에
손실관리가
필요**

□ 2006년 보험회사들은 적정하게 가격을 측정하여 제공할 것임.

- 2005년과 2006년 보험회사들은 보험요율의 움직임이 평탄할 것으로 손실 관리에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음.

* attritional loss(최소 손실): 5,000파운드 가치 정도의 기후나 도난으로 인한 손해

* large cases(최대 손실): 부동산이나 콘텐츠의 전반적인 손해로 집이 불타는 경우도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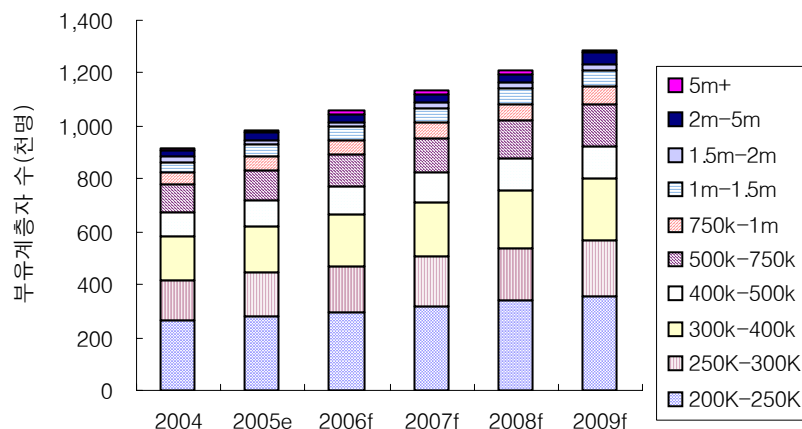
* catastrophic losses(대재앙): 폭풍이나 홍수와 같은 재앙으로 재산에 영향을 줌.

9. 향후 전망

부유층시장의
기본 소비자
증가추세로
인해 지속적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 2006년에도 HNW 보험시장은 지속적으로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함.
 - Datamonitor의 인터뷰에 따르면, 2005년 보험요율은 큰 변화없이 2.5%정도의 소폭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2006년에도 보험요율은 이와 동일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HNW 고객의 대다수가 2004년과 2009년 사이 연평균 8.1% 정도의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며, 2009년에는 1,289,200파운드 선까지 도달할 것으로 추정함.
- 비록 시장상황이 여전히 경쟁적이기는 하지만, HNW 시장의 기본 소비층의 꾸준한 증가세에 따라, 치열한 경쟁 상황에서도 성장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
- 특히, 유동자산이 1.5백만에서 5백만 파운드인 UHNW 고객층의 경우에는 10% 이상의 강한 성장세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이런 HNW고객 수의 증가 추이는 Datamonitor의 GWM(global wealth model)의 객관적인 분석에 의한 견해임.

<그림 4> 유동자산별 HNW 고객 수 증가 추이(2004~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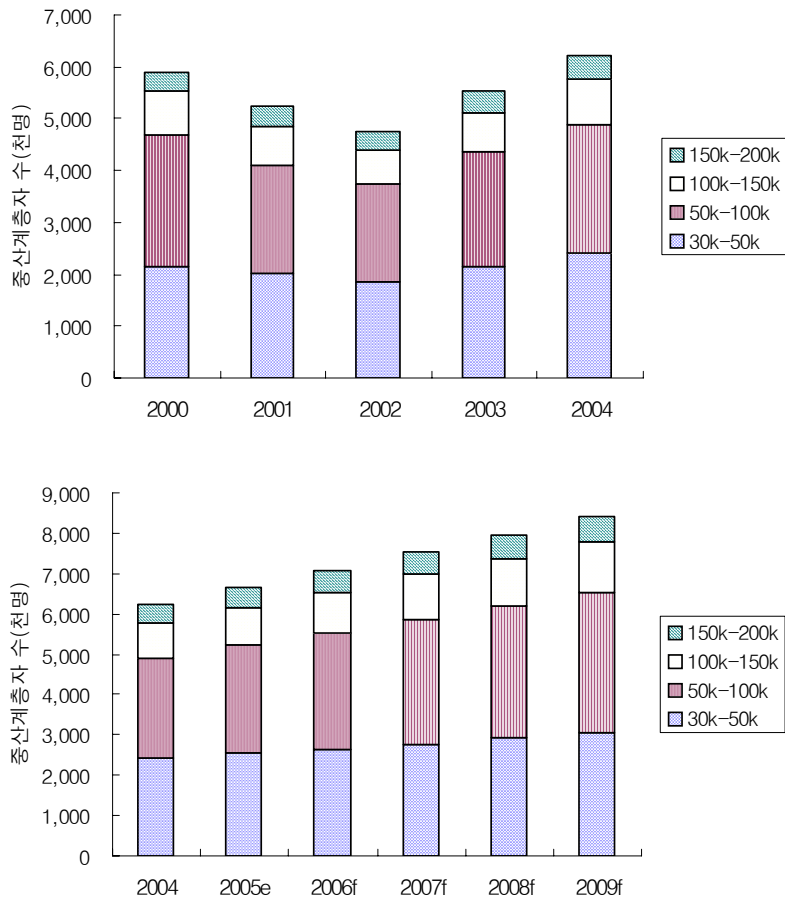


보험동향 2006년 여름호

중산층고객의
수도 2009년
8.4 백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거대부유층의
급격한 성장
기대

- 중산층(MNW) 고객 수는 2004년부터 2009년까지 매년 평균 7.0% 까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2009년 8.4 백만 명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
- 또한, 연평균 성장률은 평균 8.5%가 될 것으로 보며, 그 중 100K~150K의 유동자산 그룹에서의 성장이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함에 따라 거대자산 그룹의 급격한 성장도 괄목할 사항임.

<그림 5> 중산층 수의 변화추이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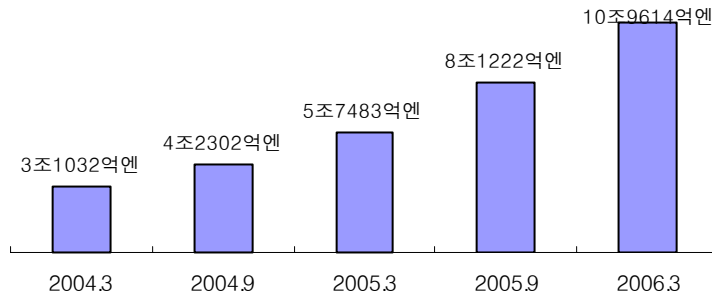
3. 일본 동향

<일본, 변액연금시장 급성장>

변액연금
급성장세는
주가상승 및
방카슈랑스
판매에 기인

- 일본 생명보험회사들의 개인변액연금보험의 보유계약금액이 06년 3월 10조 9,614억엔(계약건수 159만 4,67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은행창구를 통한 판매가 지속되어 05년 9월말 8조 1,222억엔에서 약 35% 증가, 2조 8,300억엔으로 대폭 증가하였으며, 2005년 1년간 증가액은 5조 2,130억엔임.
- 은행창구 판매 개시 이전인 2002년 9월말에는 5,842억엔이었던 보유계약금액이 그 후 3년반 동안 약 19배가량 확대되었음.
- 최근의 변액연금 급성장은 주가 상승에 기인하여 중장년 부유층을 중심으로 한 방카슈랑스 판매가 크게 성장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됨.
- 변액연금은 납입보험료를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여 운용실적에 따라 장래의 연금수취 금액이 변경되는 상품으로, 일본의 경우 원금 보장상품이 많다는 특징이 있음.
- 이와 더불어 은행측면에서는 방카슈랑스에 의한 판매 수수료 수입이 은행 수익 창출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실정임.
- 변액연금은 금융기관의 창구 판매를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생명보험회사들은 은행, 증권회사, 신용금고 등을 대리점으로 하여 판매를 위탁,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음.
- 20개 생명보험회사가 변액연금 판매를 제휴하고 있는 금융기관의 수는 2006년 3월 현재 1,537개로 최근 변액연금 신계약은 대부분 금융기관 창구 판매를 통해 이루어졌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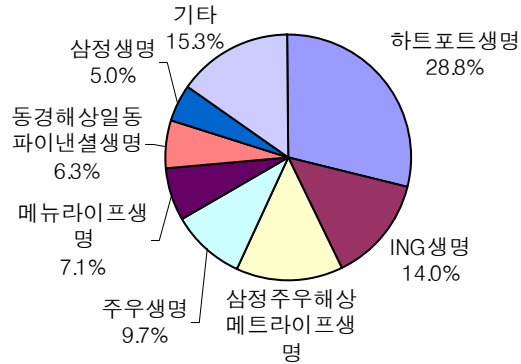
<그림 6> 변액연금 보유계약금액 추이



판매 1위사는
하트포트 생명,
2위사는
알리코재팬

- 보험회사별로는 하트포트 생명이 전체 점유율의 30%를 차지하여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2위는 근소한 차로 알리코 재팬 생명이 차지함.
- 하트포트 생명의 지속된 독주는 2006년 3월말 변액연금의 보유계약금액이 3조 1,516억엔으로 반년간 6,686억엔 대폭 증가함에 기인하는 것임.
- 보유계약금액 기준 점유율 2위는 ING 생명(1조 5,294억엔, 점유율 14.0%), 三井住友海上메트라이프 생명(1조 5,237억엔, 점유율 13.9%) 등이 근소한 차이로 치열한 경쟁을 보임.
- 4위사인 住友生命(1조 653억엔) 등 4개사가 보유계약금액 1조엔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남.
- 2005년 9월말부터의 반년간 증가액을 보면 하트포트생명이 선두이며, 보유계약금액 4위인 住友生命이 3,901억엔, 2위사인 ING 생명은 3,682억엔, 6위사인 東京海上日動 파이낸셜 생명이 3,624억엔을 기록함.

<그림 7> 회사별 점유율(자산잔고액 기준)



**변액연금의
장래
지급준비를
위한 증자
필요성 대두**

- 변액연금의 기대 이상의 판매 성과로 인하여 장래 지급 준비를 위한 증자를 계획하고 있는 회사가 속출하고 있음.
- 변액연금은 보유계약이 증가함에 따라 장래의 보험금 지급 리스크도 증가하여 보험회사의 지급여력비율이 저하되기 때문에 재무건전성 유지를 위한 증자의 필요성이 대두됨.
- 東京海上日動 생명은 2005년 9월말 50억엔을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5년 12월 보유계약금액이 3월말 대비 약 4배 증가함에 따라 2006년 3월 약 250억엔을 추가 증자하였음.

자료 : 保險毎日新聞, “06年3月末變額年金 ランキング資産残高11兆円に迫る”, 2006.6.6.
日經金融新聞, 2006.5.2.

<일본, FY2005 생명보험회사 실적>

FY2005 일본
생명보험
보유계약금액은
9년 연속
감소세 지속

- 일본 중대형 생명보험회사 9개사의 2005년도 결산자료 결과, 개인보험·개인연금의 보유계약금액 기준 전년 대비 4.7% 감소한 943조 3,978억엔으로 9년 연속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음.
- 신계약금액도 전년 대비 13.6% 감소한 59조 7,056억엔으로 대폭 하락하여 5년 연속 감소하였음.
- 한편, 해약·실효계약금액은 전년 대비 9.6% 감소한 75조 5,252억엔으로 대폭 개선됨.

<표 1> 일본 주요 생명보험회사 실적(2005년)

(단위 : 억엔, %)

구분	보유계약		신계약		해약·실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日本生命	2,540,732	△4.6	153,478	△15.4	188,089	△11.6
第一生命	1,899,352	△3.1	129,503	△8.4	146,980	△9.8
明治安田生命	1,454,514	△8.7	64,621	△40.9	149,717	△3.1
住友生命	1,606,286	△3.9	113,196	6.0	127,686	△12.5
三井生命	470,978	△7.7	18,603	△35.3	35,971	△11.5
太陽生命	175,915	3.7	28,383	△1.8	16,440	15.4
大同生命	400,080	0.8	42,927	△1.4	30,400	0.4
朝日生命	520,162	△7.9	15,123	△13.9	38,517	△23.5
富國生命	365,959	△1.1	31,222	△6.0	21,452	△8.6

- 회사별 실적을 살펴보면, 보유계약금액은 太陽生命과 大同生命의 2개사, 신계약금액에서는 住友生命 1개사만이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사망보장 마케팅이 축소된 결과를 보임.
- 한편, 연환산보험료 기준으로 보면 일본 생명보험회사에서는 의료 보험 등 제3분야 상품에 주력함에 따라, 삼성생명 및 일본생명은 제3분야 상품에서의 높은 성장을 나타냄.

- 또, 은행창구판매 실적도 신계약연환산보험료를 증가시켰는데, 변액연금의 창구판매 호조로 주우생명, 정액연금 확대로 부국생명이 각각 전년 대비 30%, 15%씩 성장하였음.

<표 2> 일본 주요 생명보험회사 연환산보험료(2005년)

(단위 : 억엔, %)

구분	보유계약 연환산보험료				신계약 연환산보험료			
	전체		제3분야		전체		제3분야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日本生命	33,022	△0.8	5,619	2.4	2,726	6.3	596	20.0
第一生命	21,336	△0.8	4,710	3.9	1,651	△4.4	586	△6.3
明治安田生命	18,384	△8.4	3,381	△1.5	829	△33.2	305	△21.6
住友生命	19,929	2.0	4,416	6.7	2,087	29.8	646	7.9
三井生命	6,82	△1.7	1,130	3.2	590	17.8	128	37.2
太陽生命	6,951	△5.0	1,094	3.2	417	△10.1	142	1.0
大同生命	6,847	2.1	606	△1.7	828	1.1	39	3.4
朝日生命	6,423	△2.7	1,415	7.7	374	△0.5	203	△8.7
富國生命	4,531	3.2	925	6.3	530	15.6	106	△3.7

일본내 외자계
생명보험회사
중 AIG 3사가
가장 높은
점유율 시현

- 한편, 일본내 주요 외자계 생명보험회사의 실적을 보면, 알리코 재팬, AIG Star생명, AIG 등 AIG 3사의 점유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AIG 3사의 신계약연환산보험료 합계가 2,846억엔으로 전년도 보다 10%가량 감소하였으나, 국내 최대생보사인 日本生命(2,726억엔)을 상회하고 있음.
- 알리코 재팬의 경우 2,026억엔의 보험료 규모로 日本生命, 住友生命 다음으로 높은 수준을 나타냄.

- o 제3분야에 있어서는 보험료 수준은 낮은 편이지만, AIG, 에디슨 생명은 60%, AXA 생명은 50%, AIG Star 생명은 30% 성장하는 등 제3분야 성장에 주력하고 있음.

<표 3> 주요 외자계 생명보험회사 실적(2005년)

(단위 : 억엔, %)

구분	신계약 연환산보험료		보유계약 연환산보험료		신계약 금액	보유계약 금액	계약 실효액
	전체	제3분야	전체	제3분야			
AIG 3사	2,846 (△10.3)	800 (6.3)	13,892 (15.9)	4,056 (11.3)	47,413 (△14.4)	417,780 (2.1)	33,396 (△6.4)
알리코재팬	2,026 (△19.6)	569 (△5.0)	8,824 (20.5)	2,870 (11.2)	32,763 (△17.5)	214,472 (10.6)	14,482 (8.5)
AIG Star	430 (75.9)	78 (29.2)	2,299 (13.6)	505 (6.2)	6,012 (△1.1)	109,863 (△8.1)	10,566 (△19.3)
AIG 에디슨	389 (△4.5)	151 (64.6)	2,767 (4.9)	681 (15.8)	8,637 (△9.6)	93,443 (△2.3)	8,347 (△9.8)
American Family Life Insurance	1,058 (2.6)	794 (△1.2)	10,134 (6.0)	9,207 (4.4)	13,843 (2.3)	84,456 (10.1)	6,089 (14.6)
AXA	750 (21.0)	327 (56.8)	4,904 (8.1)	1,646 (15.8)	14,358 (△7.1)	145,601 (0.1)	8,863 (△6.7)

주 : ()은 전년 대비 증가율임.

자료 : 保険毎日新聞, “生保9社の05年度業績 保有契約高 9年連続の減少”, 2006.5.31.

(조혜원 선임연구원)

** 보험동향 봄호 pp90~92 “일본, 방카슈랑스를 통한 개인연금 판매 현황” 내용 중 판매 1위사를 알리안츠에서 알리코재팬으로 정정합니다.

4. 아시아 동향

아시아의
방카슈랑스는
여전히 제한된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방카슈랑스 - 판매채널이 구축되긴 하였으나 여전히 성장 중임.>

- 아시아의 방카슈랑스는 전속대리점을 거점으로 하여 여전히 제한된 시장점유율을 나타내고 있음.
 - 대형사 및 판매채널이 다양하게 구축된 보험회사들은 판매채널이 다른 경우에는 서로 다른 상품을 제시함으로써 보험회사의 주된 수익창출원인 대리점과의 혼란을 최소화하였음.
 - 보험회사와 은행 간의 방카슈랑스 협력체제 구축이 쉽게 성공할 수만은 없겠지만, 유럽의 방카슈랑스와 같이 은행과 보험회사가 서로 다른 대상을 표적으로 한 마케팅 전략이 분명하게 제시된다면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음.
- 아시아의 방카슈랑스 시장은 보험회사와 은행 간의 협력관계에 따라 수입보험료의 급속한 상승세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국가들의 방카슈랑스가 여전히 초기단계라고 인식하고 있음.
 - 규제당국도 국내기업들의 요구에 의해 다소 주춤해진 시장상황에서도 기본적으로는 지지하는 입장을 취함.

중국은
은행의 과도한
수수료 요구와
지나친 경쟁에
의해 2004년
이후 성장이
감소세로 전환

① 중국

- 방카슈랑스 판매는 2001년 45억 위안에서 2002년 338억 위안으로 급성장하였으며, 2003년 765억 위안에 이어 2004년에는 795억 위안을 기록하였음.
 - 그러나, 상하이와 같은 특정지역의 방카슈랑스 실적에서는 2005년 9월 초의 경우 전년 대비하여 25% 이상 성장이 움츠러진 것으로 조사됨.
 - 이는 보험회사와 은행 간의 충분하지 못한 이해관계 및 협력체제 약화뿐 만 아니라 방카슈랑스에 적정한 상품이 충분하지 못한 것이 주된 이유라고 인식함.

홍콩에서
대규모
보험회사들은
방카슈랑스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을 보임.

- 그러나, 대다수의 분석가들은 최근 방카슈랑스의 감소세에도 불구하고 2010년까지 전체 시장점유율이 30% 이상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함.

② 홍콩

- 자유시장체제의 홍콩에서는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움직임으로써, 방카슈랑스 채널을 통해 판매가능한 상품에 대해 어떤 제한사항도 두지 않음.

- 그러나, 보험회사와 은행 사이의 경쟁 심화로 인해 복잡한 시장상황에 놓이게 됨.

- 넓은 지점망을 구축하고 있는 은행이 보험회사를 위협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나, 궁극적으로는 은행과 펀드판매자들과 같은 상품판매자들의 반격으로 인식

- 대규모 보험회사들은 시장상황과 경쟁체제에 대해 낙관적으로 보고 있음.

③ 인도

인도의
보험산업은
4년 전부터
자유화되었으나,
방카슈랑스는
여전히
초기단계임

- 인도의 방카슈랑스 시장은 전체 생명보험시장의 2%에 불과하며, 생명보험 시장의 약 96% 정도가 대리점(life agents)을 통해 이루어짐.

- 보험회사와 은행 간의 협력관계에 있어 사기업들의 M&A와 새로운 소유주의 등장에 따른 협력관계의 재평가와 같은 여러 장애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기업의 수입보험료가 25~30%로 활약상을 나타냄.

- 보험산업 분석가는 향후 5년간 생명보험에서는 적어도 13%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손해보험에서도 5% 성장하는 것으로 낙관적인 전망을 보임.

- 전문가에 따르면 인도시장의 생명보험 침투수준이 GDP 대비 2.3%로 매우 열악하지만, 그 잠재력은 엄청날 것이라고 전함.
- 규제당국은 인도의 금융설계사의 부족으로 방카슈랑스와 같은 판매채널의 성장을 지원하여, 소도시 지역에 은행관리인들이 고객의 투자조언자와 같은 활동을 해야 한다고 인식함.

④ 일본

일본은
규제완화로
인해 보다 많은
보험상품
판매가
가능하게 됨

- 보험회사의 반발상황 이후 정부는 마침내 은행이 소매상을 통해 일시납보험료 형태의 모든 생명보험상품과 생사혼합보험을 판매할 수 있게 되었으며, 저축성 상해보험 판매도 올해부터 가능해져 보다 다양한 상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됨.
- 2007년 말 규제완화 일정에 따라, 은행이 모든 종류의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는 있으나, 실제로 보험상품을 다루는 판매인 자격에 대해서는 여전히 제한적인 상황임.
- 그러나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은행의 보험료 수입은 FY2001년 5,200억 엔에서 2004년에는 9배 성장한 48조 엔을 기록함.
- 외국의 보험회사의 경우에도 제휴관계를 갖고자하는 은행을 찾고 있는 상황이며, 이런 판매채널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예민한 사항으로 인식함.
- 일본의 생명보험을 독점하던 대리점의 시대는 조만간 거의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의견임.

대만은
금융기관별
가이드라인에
따라
방카슈랑스가
성공적으로
정착

⑤ 대만

- 대만 보험국의 조사자료에 따르면, 2004년 전체 수입보험료 중 33%가 은행을 통해 판매되었음.
- 이 같은 결과로 인해, 보험국은 은행, 보험회사, 대리점, 브로커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으며, 2005년 방카슈랑스 활동 지침에 관한 각 영역의 책임부문을 명확히 구분하였음.

-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은행이 보험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규제당국은 우선적인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보험상품 판매활동을 포함하는 은행대리인과 관리자들은 투자연계상품 판매자격 중 또는 보험판매인 자격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함.

- 은행은 판매인의 실수에 의해 발생한 위험 및 불완전판매에 따른 어떤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지게 되어 있으며, 모든 관측물 자료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보험사의 확인을 거쳐야 함.

⑥ 베트남

베트남은
전속대리점에
의한 보험상품
판매가 여전히
지배적임.

- 베트남의 방카슈랑스는 여전히 초기단계로 진입하는 과정에 있으며, WTO 영향에 따른 판매채널 다양화 전략의 일환으로 국내 은행과 외국은행의 지점망 형태의 방카슈랑스가 구축될 것임.

* 자료 : Asia Insurance Review, "Bancassurance - Still A Growing But Established Channel", 2006. 04.

(박정희 연구원)

통 계 표

<표 1> 주요 경제지표

(단위 : 백만달러, %)

구 분	CY2004	CY2005				CY2006	
	4/4	1/4	2/4	3/4	4/4	1/4	
국내총생산 성장률	3.3	2.7	3.3	4.5	5.3	6.1	
경상수지	7,333	5,877	2,603	2,649	2,430	-1,118	
수 출	68,937	66,808	69,703	71,098	76,811	73,890	
수 입	61,688	60,627	63,695	66,228	70,688	72,132	
실업률	3.8	3.7	3.8	3.8	3.6	3.5	
금리	국고채(3년)	3.53	4.22	3.99	4.62	5.26	5.15
	회사채(3년)	3.87	4.41	4.19	4.73	5.40	5.38
소비자물가지수	115.5	117.0	117.6	118.3	118.4	119.7	
환율	원/달러	1,043.8	1,024.3	1,024.4	1,038.0	1,013.0	975.9
	엔/달러	103.1	107.5	110.4	113.3	117.8	117.3
KOSPI	895.92	965.68	1,008.16	1,221.01	1,379.37	1,359.60	
외환보유고	199,066	205,447	204,986	206,731	210,391	217,340	

- 주: 1) 금리, 환율, 주가지수는 월말, 마감기준임.
 2) 국내총생산 성장률은 2000년 기준.

<표 2> 금융기관 순수신 추이

(단위: 억원, %)

구 분	CY2004			CY2005				CY2006
	2/4	3/4	4/4	1/4	2/4	3/4	4/4	1/4
보 험	64,808	71,449	94,002	55,643	71,225	77,359	92,935	81,083
생명보험	48,549	54,862	75,500	42,277	53,602	60,022	75,781	66,460
손해보험	16,259	16,587	18,502	13,366	17,623	17,337	17,154	14,623
은 행	37,239	-1,871	-28,410	-20,297	176,673	96,532	49,098	-41,969
일반계정	40,699	19,734	-13,394	-30,494	196,056	84,452	41,787	-85,002
신탁계정	-3,460	-21,605	-15,016	10,197	-19,383	12,280	7,311	43,033
증 권	5,049	-1,427	-11,172	16,898	11,948	17,618	19,175	-8,291
투 신	-14,380	136,801	148,323	52,889	46,962	-37,592	74,571	184,828
총 금	7,090	940	-18,256	19,416	2,048	-10,616	40,443	5,651

- 주 : 1) 보험사 순수신은 수입(원수)보험료에서 지급보험금(원수손해액)을 차감하여 산출함.
 2) 본 표는 다수의 동향보고서에서 정리한 것으로서 한국은행 공식통계는 아님.
 자료: 보험개발원, 한국은행

<표 3> 생명보험 종목별 수입보험료 성장률 및 구성비 추이

(단위 : 억원, %)

구 분		FY2004			FY2005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생존	보험료	32,542	29,385	121,366	28,600	29,441	30,125	31,722	119,887
	성장률	-12.1	4.2	4.9	1.2	-5.6	-7.4	8.0	-1.2
	구성비	20.9	21.9	22.6	20.9	20.8	17.2	19.7	19.5
사망	보험료	64,497	65,798	255,338	66,402	67,289	68,182	69,342	271,215
	성장률	11.8	9.6	11.3	7.4	6.5	5.7	5.4	6.2
	구성비	41.4	49.1	47.5	48.5	47.5	38.8	43.2	44.1
생사 혼합	보험료	20,279	19,076	79,646	18,312	18,700	18,070	17,514	72,596
	성장률	-22.4	-13.0	-15.7	-8.6	-7.7	-10.9	-8.2	-8.9
	구성비	13.0	14.2	14.8	13.4	13.2	10.3	10.9	11.8
변액 보험	보험료	6,256	11,456	23,789	12,093	16,215	24,761	30,752	83,822
	성장률	94.9	386.3	212.2	334.3	392.4	295.8	168.4	252.4
	구성비	4.0	8.6	4.4	8.8	11.5	14.1	19.1	13.6
개인계	보험료	123,574	125,714	480,140	125,408	131,646	141,137	149,330	547,521
	성장률	-0.4	11.7	7.4	11.1	11.6	14.2	18.8	14.0
	구성비	79.4	93.9	89.3	91.6	93.0	80.4	93.0	89.1
단체	보험료	32,158	8,177	57,366	11,526	9,891	34,486	11,298	67,201
	성장률	4.3	5.8	1.1	39.5	12.8	7.2	38.2	17.1
	구성비	20.7	6.1	10.7	8.4	7.0	19.6	7.0	10.9
합계	보험료	155,732	133,891	537,506	136,933	141,537	175,623	160,628	614,722
	성장률	0.5	11.3	6.7	13.0	11.7	12.8	20.0	14.4

주: 1) 단체보험은 퇴직보험 특별계정이 포함됨.

2) 성장률은 전년동기 대비(분기) 또는 전년대비(연간)임.

자료: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표 4> 생명보험 종목별 지급보험금·지급보험금증가율·보험금지급률 추이

(단위 : 억원, %)

구 분		FY2004			FY2005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생존보	지급보험금	18,243	21,794	71,150	17,888	18,534	21,078	22,329	79,830
	증가율	18.5	24.1	18.1	15.9	18.2	15.5	2.5	12.2
	지급률	56.1	74.2	58.6	62.5	63.0	70.0	70.4	66.6
사망보	지급보험금	23,811	24,863	90,676	22,699	24,360	24,793	27,316	99,169
	증가율	24.8	19.7	21.8	11.6	12.5	4.1	9.9	9.4
	지급률	36.9	37.8	35.5	34.2	36.2	36.4	39.4	36.6
생존사합	지급보험금	25,595	27,781	102,335	24,453	25,818	35,996	23,330	109,596
	증가율	-10.6	3.4	-14.8	-3.6	9.4	40.6	-16.0	7.1
	지급률	126.2	145.6	128.5	133.5	138.1	199.2	133.2	151.0
변액보	지급보험금	635	1,467	2,905	598	847	1,509	2,463	5,417
	증가율	207.9	353.0	311.6	49.9	109.4	137.5	67.9	86.4
	지급률	10.2	12.8	12.2	4.9	5.2	6.1	8.0	6.5
개인보험계	지급보험금	68,284	75,905	267,067	65,638	69,558	83,377	75,439	294,012
	증가율	7.9	15.8	4.5	6.7	13.4	22.1	-0.6	10.1
	지급률	55.3	60.4	55.6	52.3	52.8	59.1	50.5	53.7
단체보험계	지급보험금	11,948	15,618	49,159	14,651	11,957	16,466	18,729	61,803
	증가율	-28.9	-8.7	-20.5	32.0	14.0	37.8	19.9	25.7
	지급률	37.2	191.0	85.7	127.1	120.9	47.7	165.8	92.0
전체	지급보험금	80,232	91,522	316,226	80,289	81,515	99,843	94,168	355,815
	증가율	0.2	10.8	-0.4	10.5	13.5	24.4	2.9	12.5
	지급률	51.5	68.4	58.8	58.6	57.6	56.9	58.6	57.9

주 : 1) 보험금지급률 = 지급보험금 / 수입보험료이며 기타 사항은 앞의 표와 동일함.

2) 단체보험은 퇴직보험 포함된 실적이며, 개인보험 종목별 변액보험이 포함됨.

3)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분기) 또는 전년 대비(연간)임.

자료 :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표 5> 생명보험 종목별 사업비 · 사업비증가율 · 사업비율 추이

(단위 : 억원, %)

구 분		FY2004			FY2005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생존보험	사업비	3,725	5,851	16,576	3,775	4,331	5,010	5,523	18,639
	증가율	-11.0	64.2	17.4	11.8	19.5	34.5	-5.6	-4.9
	사업비율	11.4	19.9	13.7	13.2	14.7	16.6	17.4	15.5
사망보험	사업비	16,208	20,444	68,599	16,078	15,790	16,913	16,437	65,218
	증가율	1.9	23.9	11.2	1.5	-2.0	4.3	-19.6	-4.9
	사업비율	25.1	31.1	26.9	24.2	23.5	24.8	23.7	24.0
생존사합보험	사업비	4,291	5,443	14,988	5,444	5,497	5,828	6,124	22,894
	증가율	96.2	170.9	96.0	162.0	73.1	35.8	12.5	52.7
	사업비율	21.2	28.5	18.8	29.7	29.4	32.3	35.0	31.5
변액보험	사업비	-	-	-	-	-	-	-	-
	증가율	-	-	-	-	-	-	-	-
	사업비율	-	-	-	-	-	-	-	-
개인보험계	사업비	24,225	31,737	100,164	25,298	25,618	27,751	28,085	106,750
	증가율	8.7	43.8	20.0	18.8	11.8	14.6	-11.5	6.6
	사업비율	19.6	25.2	20.9	20.2	19.5	19.7	18.8	19.5
단체보험계	사업비	706	1,203	3,087	686	734	935	845	3,200
	증가율	-1.1	60.4	13.0	19.9	21.2	32.5	-29.8	3.7
	사업비율	2.2	14.7	5.4	6.0	7.4	2.7	7.5	4.8
전체	사업비	24,931	32,941	103,251	25,983	26,351	28,686	28,929	109,950
	증가율	8.4	44.3	19.8	18.8	12.1	15.1	-12.2	6.5
	사업비율	16.0	24.6	19.2	19.0	18.6	16.3	18.0	17.9

주 : 1) 사업비는 신계약비 이연을 감안하지 않은 실제 집행 사업비를 기준으로 함.

2) 사업비율 = 사업비 / 수입보험료이며 기타 사항은 앞의 표와 동일함.

3) 단체보험은 퇴직보험 포함된 실적이며, 개인보험 종목별 변액보험이 포함됨.

4) 증가율은 전년동기 대비(분기) 또는 전년 대비(연간)임.

자료 :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표 6> 손해보험 보험종목별 원수보험료 성장률 및 비중 추이

(단위 : 억원, %)

구 분		FY2004		FY2005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화 재	보험료	685	2,937	794	751	913	785	3,243
	성장률	-1.0	-7.1	4.1	13.2	10.7	14.6	10.4
	구성비	21.2	1.3	1.3	1.2	1.3	1.2	1.3
해 상	보험료	1,135	5,071	1,399	1,412	1,280	1,186	5,277
	성장률	-13.3	-3.2	10.7	0.2	1.3	4.4	4.1
	구성비	2.0	2.2	2.3	2.3	1.8	1.8	2.1
자동차	보험료	20,838	85,208	21,386	22,062	22,342	22,100	87,890
	성장률	5.8	7.0	2.6	2.5	1.6	6.1	3.1
	구성비	36.4	36.7	34.9	35.5	32.2	34.3	34.2
보 증	보험료	2,268	9,018	2,255	2,391	2,791	2,630	10,067
	성장률	-8.3	-4.3	-4.2	9.7	25.8	15.9	11.6
	구성비	4.0	3.9	3.7	3.9	4.0	4.1	3.9
특 중	보험료	4,507	20,369	5,745	5,744	6,263	5,152	22,904
	성장률	14.6	12.7	13.0	12.9	10.1	14.3	12.4
	구성비	7.9	8.8	9.4	9.3	9.0	8.0	8.9
해외 원보험	보험료	186	796	129	143	164	173	609
	성장률	7.0	26.7	-37.8	-33.0	-13.0	-7.1	-23.5
	구성비	0.3	0.3	0.2	0.2	0.2	0.3	0.2
장 기	보험료	25,295	96,353	26,459	27,435	28,736	29,932	112,562
	성장률	14.3	12.3	16.1	16.5	16.3	18.3	16.8
	구성비	44.2	41.5	43.2	44.2	41.4	46.4	43.8
개 인 연 금	보험료	1,679	6,799	1,684	1,715	1,788	1,789	6,976
	성장률	-3.9	-1.1	-3.5	2.1	5.5	6.5	2.6
	구성비	2.9	2.9	2.8	2.8	2.6	2.8	2.7
퇴 직 보 험	보험료	579	5,622	1,383	410	5,162	752	7,707
	성장률	-22.9	13.6	101.8	-42.7	41.7	29.8	37.1
	구성비	1.0	2.4	2.3	0.7	7.4	1.2	3.0
계	보험료	57,172	232,173	61,236	62,063	69,438	64,498	257,235
	성장률	8.1	8.6	9.8	8.8	11.6	12.8	10.8

주: 1) 성장률은 전년동기 대비 수치임.

2) 부수사업의 원수보험료는 제외되었으며, 특중보험에는 부동산권리보험의 원수보험료가 포함되었음.

3) 기간별 수치는 해당기간에 대한 실적치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표 7> 손해보험 보험종목별 손해율, 사업비율 및 합산비율 추이

(단위 : %)

구 분		FY2004	FY2005			
		4/4	1/4	2/4	3/4	4/4
화재보험	경과손해율	56.4	38.8	42.8	41.2	40.9
	사업비율	55.0	53.8	52.3	55.2	53.2
	합산비율	111.4	92.6	95.1	96.4	94.1
해상보험	경과손해율	49.5	42.8	50.3	49.8	52.0
	사업비율	30.0	28.3	29.3	32.2	31.0
	합산비율	79.5	71.1	79.7	82.0	83.0
자동차보험	경과손해율	72.7	71.5	73.0	76.8	76.6
	사업비율	32.2	30.6	31.1	31.4	31.9
	합산비율	104.9	102.0	104.1	108.3	108.5
보증보험	경과손해율	25.3	27.9	10.7	-1.0	2.9
	사업비율	20.5	12.8	18.4	17.2	21.3
	합산비율	45.8	40.7	29.1	16.2	24.2
특종보험	경과손해율	52.0	40.3	47.0	48.0	51.6
	사업비율	26.5	25.1	24.9	25.6	25.8
	합산비율	78.6	65.4	72.0	73.6	77.4
해외원보험	경과손해율	41.0	29.1	43.3	55.6	52.4
	사업비율	80.2	73.1	65.6	64.8	72.9
	합산비율	121.2	102.2	108.9	120.4	125.3
장기보험	경과손해율	87.9	85.6	85.6	85.7	86.4
	사업비율	15.4	15.6	15.9	16.2	16.5
	합산비율	103.3	101.2	101.5	128.6	103.0
개인연금	경과손해율	123.8	117.6	118.7	119.1	125.9
	사업비율	10.5	9.9	9.6	9.6	10.0
	합산비율	134.3	127.4	128.4	128.6	135.9
전 체	경과손해율	77.7	75.3	75.9	77.0	77.9
	사업비율	23.2	22.1	22.6	22.9	23.2
	합산비율	100.8	97.4	98.5	99.8	101.1

주 : 1) 기간별 수치는 해당기간에 대한 누적치임.

2) 부수사업과 퇴직보험의 실적은 제외되었으며 특종보험에는 권원보험이 포함됨.

자료 : 손해보험회사, 『월말보고서』, 각 월호.

보험개발원(KIDI) 발간물 안내

■ 연구보고서

- 2000-1 손해보험의 부가보험요율 산출 및 운영방안 연구 / 이희춘, 조혜원, 2000.3
- 2000-2 ART를 활용한 손보사의 위험관리 방안 연구 / 신동호, 2000.3
- 2000-3 생명보험회사 투자포트폴리오 결정요인과 투자행동 / 목진영, 2000.3
- 2000-4 생명보험상품의 손익기여도 분석 / 노병윤, 장강봉. 2000.3
- 2000-5 보험산업의 전자상거래 구축 및 효율적 운영방안 / 안철경, 박일용, 오승철 2000.3
- 2000-6 금융겸업화에 대비한 보험회사의 경영전략 / 김현수, 2000.6
- 2000-7 보험회사 지식자산의 가치측정모형 연구 / 이도수, 김해식. 2000.8
- 2000-8 환경변화에 대응한 생보사의 상품개발전략 / 류건식, 이경희. 2000.9
- 2000-9 향후 10년간 국내보험산업 시장규모 및 트렌드 분석 / 동향분석팀. 2000.11
- 2000-10 보험회사의 판매채널믹스 개선방안 연구 / 정홍주. 2000.12
- 2001-1 사이버시장 분석 및 향후 과제 / 안철경, 장동식, 2001.1
- 2001-2 OECD 국가의 생명보험산업 현황 및 효율성에 관한 연구 / 정세창, 권순일, 김재봉, 2001.1
- 2001-3 손해보험 종목별 투자수익 산출 및 요율 적용 방안 / 이희춘, 조혜원, 2001.1
- 2001-4 생명보험회사의 리스크관리 실태분석 / 류건식, 이경희, 2001.3
- 2001-5 보험회사의 북한 진출에 관한연구 / 신동호, 안철경, 박홍민, 김경환, 2001.3
- 2001-6 생명보험회사의 예정이율 리스크에 관한 연구 / 류건식, 이도수, 2001.4
- 2001-7 보험회사 CRM에 관한 연구 : CRM 성공요인 및 성과분석을 중심으로 / 안철경, 조혜원 2001.8
- 2001-8 생명보험산업의 자산운용규제 개선 방향에 관한 연구 / 김재현, 이경희, 2001.10
- 2001-9 건강보험에서의 보험회사 역할 확대방안 / 박홍민, 김경환, 2001.10

- 2001-10 노령화사회의 진전에 따른 민영장기간병보험 발전방안 / 김기홍, 2001.12
- 2001-11 국제보험회계기준 연구 / 김해식, 2001.12
- 2002-1 국내외 보험사기 관리 실태 분석 / 안철경, 김경환, 조혜원, 2002. 3
- 2002-2 기업연금시장 활성화와 보험회사 대응전략 / 박홍민, 이경희, 2002. 3
- 2002-3 보험회사 리스크 감독 및 관리방안 연구 / 류건식, 정석영, 이정환, 2002. 5
- 2002-4 생명보험회사의 시장지위별 마케팅 경쟁 / 신문식, 김경환, 2002. 5
- 2002-5 생명보험사 RBC제도에 관한 연구 / 류건식, 천일영, 신동현, 2002. 10
- 2002-6 생명보험회사의 고객유지전략 / 신문식, 장동식, 2002. 10
- 2002-7 방카슈랑스 환경에서의 보험회사 대응전략 / 정세창, 박홍민, 이정환, 2002. 12
- 2002-8 생명보험사 보험리스크 평가에 관한 연구 / 류건식, 신동현, 배윤희, 2002. 12
- 2003-1 민영건강보험의 언더라이팅 선진화 방안 / 오영수, 이경희, 2003. 3
- 2003-2 보험회사의 실버산업 진출방안 / 박홍민, 권순일, 이한덕, 2003. 3
- 2003-3 보험회사 사이버마케팅의 활용전망 / 신문식, 장동식, 2003. 3
- 2003-4 생명보험사 RAS체제에 관한 연구 / 류건식, 김해식, 정석영, 2003. 7
- 2003-5 보험소비자를 위한 보험교육방안 / 이기형, 조재현, 2003. 11
- 2003-6 보험설계사 조직의 개편방안 / 신문식, 이경희, 이정환, 2003. 12
- 2004-1 부유층 시장에 대한 보험회사의 자산관리사업 운영방안 / 신문식, 이경희, 2004. 3
- 2004-2 퇴직연금 규제감독체계에 관한 연구 / 류건식, 이태열, 2004.7
- 2004-3 보험회사의 퇴직연금 리스크 관리전략 / 류건식, 김세환, 2004.7

- 2004-4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세제체계 연구 / 임병인, 김세환 2004.9
- 2004-5 신용리스크 전가시장과 보험회사 참여에 대한 연구 / 주민정, 조재현 2004.10
- 2004-6 보험회사의 퇴직연금 마케팅 전략 / 류건식, 신문식, 정석영 2004.12
- 2004-7 예금보험제도의 개선방안 / 이순재 2005.1
- 2005-1 보험산업의 비전과 대응전략 / 신문식, 임병인, 조재현 2005.
- 2005-2 전환기의 손해보험회사 발전방안 / 정중영 2005.
- 2005-3 손해보험사 RBC제도에 관한 연구 / 이기형, 나우승, 김해식 2005.5
- 2005-4 저금리 추이에 따른 이차역마진 현상과 대응방안 / 김석영, 나우승 2005.10
- 2005-5 예금보험제도의 국제적 정합성 평가와 개선방안 / 류건식, 김해식 2005.10
- 2005-6 모집조직 다변화에 따른 보험모집제도 개선방안 / 신문식, 조재현, 박정희 2005.11
- 2005-7 퇴직연금제도 재정평가체계에 관한 연구 / 류건식, 이상우 2005.11
- 2005-8 민영건강보험의 의료비 지급·심사제도 개선방안 / 조용운, 김세환 2005.11
- 2005-9 보험산업 주요지표의 중장기 전망 / 동향분석팀 2005.12
- 2006-1 보험회사의 은행업 진출 방안 / 류근옥 2006.1
- 2006-2 보험시장의 퇴출 분석과 규제개선방향 / 김현수 2006.3

■ 연구조사자료

- 2000-1 세계 재보험시장의 발전과 규제환경 / 엄창희, 2000.3
- 2000-2 보험사의 지식경영 도입방안 / 김해식, 2000.3
- 2001-1 보험회사 겸업화 추세와 국내 보험회사의 대응전략 / 이경희, 2001.1
- 2001-2 자동차보험 의료비통계를 이용한 자동차사고 상해에 관한 분석 / 보험
2본부, 2001.1
- 2001-3 지방재보험 제도 도입방안 / 안철경, 엄창희, 2001.3
- 2001-4 금융·보험 니드에 관한 소비자 설문 조사 / 동향분석팀, 2001.3
- 2001-5 종업원복지 재구축을 위한 보험회사의 역할 / 오영수, 박홍민, 이한덕, 2001.6
- 2001-6 보험환경 변화와 보험제도 변화(I) / 보험1본부, 2001.11
- 2001-7 보험환경 변화와 보험제도 변화(II) / 보험연구소, 2001.11
- 2002-1 보험니드에 관한 소비자 설문조사 / 보험연구소, 2002.3
- 2002-2 국내 유사보험 감독 및 사업현황 / 김진선, 안철경, 권순일, 2002.9
- 2003-1 2003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동향분석팀, 2003.3
- 2003-2 보험회사의 경영리스크 관리방안 / 천일영, 주민정, 신동현, 2003.3
- 2004-1 2004년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동향분석팀 2004.3
- 2004-2 보험회계의 국가별 비교 / 김해식 2004.
- 2005-1 금리 시나리오 생명모델 연구 / 김석영 2005.3
- 2005-2 2005년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신문식, 김세환, 조재현 2005.3
- 2006-1 2006년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김세환, 조재현, 박정희 2006.3
- 2006-2 보험회사의 방카슈랑스 대응방안 / 류건식, 김석영, 이상우, 박정희, 김동겸 2006.

■ 정책연구자료

- 97-1 금리변동에 따른 보험회사의 금리리스크 분석 / 이원돈, 노병윤, 장강봉, 1997.10
- 97-2 '98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1997.11
- 98-1 '99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1998.11
- 99-1 2000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1999.11
- 99-2 예금보험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보험산업 중심으로 / 이승철, 1999.12
- 2000-1 2001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2000.10
- 2001-1 신용보험의 활성화 방안 연구 / 신동호, 김경환, 2001.1
- 2001-2 2002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2001.11
- 2001-3 세계금융서비스 산업의 겸업화와 감독기구의 통합 및 시사점 / 정세창, 권순일, 2001.12
- 2002-1 2003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2002.11
- 2003-1 주요국의 방카슈랑스 규제 / 안철경, 신문식, 이상우, 조혜원, 2003.7
- 2003-2 2004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2003.12
- 2004-1 2005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동향분석팀 2004.11
- 2005-1 영국 통합금융업법상 보험업의 일반성과 특수성 / 한기정 2005.2
- 2005-2 2006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동향분석팀 2005.12

■ 연구논문집

- 1호 보험산업의 규제와 감독제도의 미래 / Harold D. Skipper, Robert W. Klein, Martin F. Grace, 1997.6
- 2호 세계보험시장의 변화와 대응방안 / D. Farny, 전천관, J. E. Johnson, 조해균, 1998.3
- 3호 제1회 전국대학생 보험현상논문집, 1998.11
- 4호 제2회 전국대학생 보험현상논문집, 1999.12

■ 영문발간물

- 1호 Environment Changes in the Korean Insurance Industry in Recent Years : Institutional Improvement, Deregulation and Liberalization / Hokyung Kim, Sango Park, 1995.5
- 2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0 / Insurance Research Center, 2001.4
- 3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1 / Insurance Research Center, 2002.2
- 4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2 / Insurance Research Center, 2003.2
- 5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3 / Insurance Research Center, 2004.2
- 6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4 / Insurance Research Center, 2005.2
- 7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5 / Insurance Research Center, 2005.8

■ Insurance Business Report

- 1호 일산생명 파산과 시사점 / 이기형, 1997.5
- 2호 OECD 회원국의 기업연금제도 / 정재욱, 정영철, 1997.10
- 3호 손해보험의 금융재보험 동향 / 이기형, 김평원, 1997.11
- 4호 금융위기에 대한 대책과 보험산업 / 김호경, 1997.12
- 5호 멕시코 보험산업의 IMF 대응사례와 시사점 / 정재욱, 1998.3
- 6호 주요국 기업연금보험 개요 및 세제 / 양성문, 1998.3
- 7호 일본의 보험개혁과 보험회사의 대응 / 이기형, 장기중, 1998.5
- 8호 구조조정에 따른 보험산업의 대응전략 : 상품, 마케팅, 자산운용, 재무건정성을 중심으로 / 노병윤, 안철경, 이승철, 1999.2
- 9호 보험산업에서의 정보기술(IT)의 활용 : 손해보험 중심으로 / 최용석, 1999.3

- 10호 자동차보험 가격자유화의 영향과 대책 / 박중영, 1999.3
- 11호 IMF체제 이후 보험산업의 환경변화와 전망 / 양성문, 김해식, 1999.3
- 12호 최근의 환경변화와 생명보험회사의 대응 / 강중철, 목진영, 1999.10
- 13호 21세기 보험산업 환경변화와 보험회사의 전략적 대응방안 / 오영수, 최용석, 이승철, 1999.12
- 14호 중국의 WTO 가입과 보험시장 개방 / 정희남, 2002.4
- 15호 주 5일 근무제 도입에 따른 보험산업의 영향과 대응 / 동향분석팀, 2002. 9
- 16호 2010년 보험산업 트렌드 분석 및 시사점 / 조혜원, 2003.5
- 17호 유럽보험회사 파산사태의 리스크 분석 및 감독방안 / 신동현, 2003.5
- 18호 미국 배상책임보험의 최근 현황과 시사점 / 이기형, 조재현, 2003.8
- 19호 공정가치회계가 보험사 경영에 미치는 영향 -보험사 CEO 대상 설문조사 결과 / 이기형, 김해식 2004.10

■ CEO Report

- 2000-1 일본 제일화재의 파산에 따른 국내 손보산업에의 시사점 / 양성문, 김혜성, 2000. 5
- 2000-2 일본 제백생명의 파산에 따른 국내 생보산업에의 시사점 / 보험연구소, 2000. 6
- 2000-3 최근 금융시장 불안과 보험회사 자산운용 개선방안/김재현, 2000. 10
- 2000-4 보험회사의 보험사기 적발 및 방지활동과 기대효과 / 안철경, 2000. 11
- 2001-1 부동산권리보험 도입현황과 시사점 / 신문식, 권순일, 2001. 8
- 2001-2 자동차보험 가격경쟁 동향과 향후과제 / 서영길, 기승도, 2001. 8
- 2001-3 일반 손해보험 가격자유화 추진 경과와 향후 과제 / 이희춘, 문성연, 2001. 10
- 2002-1 금융재보험의 도입과 향후과제 / 보험연구소, 2002. 4
- 2002-2 PL법 시행에 따른 PL보험 시장전망과 선진사례 시사점 / 손해보험본부, 2002. 6
- 2002-3 중신보험상품의 예상 리스크 및 시사점 / 생명보험본부, 2002. 6

- 2002-4 주 5일 근무제와 자동차보험 / 자동차보험본부, 2002. 9
- 2002-5 CI(Critical Illness)보험의 개발과 향후 운영방안 / 생명보험본부, 2002. 10
- 2002-6 자동차보험시장 동향 및 전망 / 자동차보험본부, 2002. 10
- 2003-1 장기손해보험 상품운용전략 / 장기손해보험팀, 2003. 2
- 2003-2 2003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동향분석팀, 2003. 3
- 2003-3 인구의 노령화와 민영보험의 대응 / 오영수, 2003. 6
- 2003-4 국가재해관리시스템 개편에 따른 보험제도 운영방향 / 손해보험본부, 2003. 7
- 2003-5 생명보험산업에서의 경험통계 활용방안 / 생명보험본부, 2003. 7
- 2003-6 OECD의 기업연금 재정안정화 논의와 시사점 / 동향분석팀, 2003. 8
- 2003-7 퇴직연금시장 전망과 보험회사의 대응과제 / 류건식, 남효성, 박홍민, 2003. 12
- 2004-1 자동차보험 예정기초율 연구 및 전략적 시사점 / 자동차보험본부, 2004. 2
- 2004-2 보험회사의 방카슈랑스 제휴 성공전략 / 연구조정실, 2004. 2
- 2004-3 보험부채의 공정가치 평가와 향후과제 / 생명보험본부, 2004. 2
- 2004-4 자동차보험 손해율 악화원인 분석 및 전략적 시사점 / 자동차보험본부, 2004. 2
- 2004-5 생명보험가입자의 사망원인 분석 및 시사점 / 생명보험본부, 2004. 3
- 2004-6 역모지기 (Reverse Mortgage) 시장전망 및 대응방안 / 생명보험본부, 2004. 3
- 2004-7 자동차 보험 관련 법령 개정 동향 및 시사점 / 자동차보험본부, 2004. 4
- 2004-8 EU 지급여력제도 개선추세 및 시사점 / 생명보험본부, 2004. 6
- 2004-9 퇴직연금시대 도래와 보험회사의 진입전략 / 보험연구소, 2004. 7
- 2004-10 자동차보험 관련 법령 개정 동향 및 시사점 / 자동차보험본부, 2004. 4
- 2004-11 손보사의 자연재해보험시장의 참여전략 / 손해보험본부, 2004. 9
- 2004-12 국제보험회계기준에 대한 해외보험사 CEO들의 인식과 시사점 / 보험연구소
2004. 10
- 2004-13 자동차보험시장 동향 및 전망 / 자동차보험본부, 2004. 11

- 2004-14 적재물배상책임보험 도입과 향후과제 / 자동차보험본부, 2004. 12
- 2005-1 생명보험 계약자 속성분석 및 시사점 / 생명보험본부, 2005. 3
- 2005-2 민영건강보험의 리스크관리 방안 / 보험연구소, 2005. 4
- 2005-3 차명모델별 자동차보험료 차등화 도입방안 / 자동차보험본부, 2005. 3
- 2005-4 FY2005 수입보험료 전망 / 보험연구소, 2005. 6
- 2005-5 최근 환경변화에 대응한 합리적인 차량수리비 관리방안 / 자동차기술연구소, 2005. 7
- 2005-6 자연재해 리스크 관리와 CAT 모델 / 손해보험본부, 2005. 7
- 2005-7 교통사고 발생추이 및 감소방안 / 자동차보험본부, 2005. 7
- 2005-8 국가 암조기검진 사업 및 국민건강보험 확대에 따른 암보험 대응방안 / 보험연구소, 2005. 10
- 2006-1 생보사 개인연금보험 생존리스크 분석 및 시사점 / 생명보험본부, 2006. 1
- 2006-2 보험회사의 퇴직연금 운용전략 / 보험연구소, 2006.1
- 2006-3 생보사 FY2006 손익 전망 및 분석 / 생명보험본부, 2006.2
- 2006-4 의무보험제도의 현황과 과제 / 손해보험본부, 2006.2
- 2006-5 자동차보험 지급준비금 분석 및 과제 / 자동차보험본부, 2006.3
- 2006-6 보험사기 관리실태와 대응전략 / 정보통계본부, 2006.3
- 2006-7 자동차보험 의료비 지급 적정화 방안 / 자동차보험본부, 2006.3
- 2006-8 자동차보험시장 동향 및 전망 / 자동차보험본부, 2006.4
- 2006-9 날씨위험에 대한 손해보험회사의 역할 강화 방안 / 손해보험본부, 2006.5
- 2006-10 장기손해보험 상품운용전략-손익관리를 중심으로- / 손해보험본부, 2006.5
- 2006-11 자동차 중고부품 활성화 방안 / 자동차기술연구소, 2006.5
- 2006-12 장기간병보험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상품개발 방향 / 보험연구소, 2006.6

정기간행물

☒ 월간	_____
☐ 보험통계월보	
☒ 계간	_____
☐ 보험동향	
☐ 보험개발연구	
☒ 연간	_____
☐ 보험통계연감	

도서관 가입안내

회원 및 제공자료

구분 내용	법인회원	특별회원	개인회원	연속간행물 구독회원
연회비	₩ 300,000원	₩ 150,000원	₩ 150,000원	간행물별로 다름
제공자료	-연구조사보고서 ·연구보고서(10~15회/년) ·조사연구자료(5~10회/년) ·정책연구자료(3~5회/년) ·기타 보고서 -연속간행물 ·보험개발연구(3~4회) ·보험동향(계간)	-연구조사보고서 ·연구보고서(10~15회/년) ·조사연구자료(5~10회/년) ·정책연구자료(3~5회/년) ·기타 보고서 -연속간행물 ·보험개발연구(3~4회) ·보험동향(계간)	-	-보험개발연구 (연간3회~4회 ₩ 30,000) -보험통계월보 (월간 ₩ 50,000) -보험동향 (계간 ₩ 20,000)
	-본원 주최 각종 세미나 및 공청회 자료 -보험통계월보 -영문발간자료			

※특별회원 가입대상: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공도서관 및 대학도서관

가입문의

보험개발원 도서관 담당
 전화 : 368-4230,4407 팩스 : 368-4099

회비납입방법

- 무통장입금 : 국민은행 (067-25-0014-382) / 한미은행 (110-55016-257)
 예금주 : 보험개발원
- 지로번호 : 6937009

가입절차

보험개발원 홈페이지(www.kidi.or.kr)의 Knowledge Center에서 도서관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
 등록 후 회비입금을 하시면 확인 후 1년간 회원자격이 주어집니다.

자료구입처

서울: 보험개발원 자료실, 교보문고, 종로서적, 영풍문고, 을지서적, 서울문고, 세종문고
 부산: 영광서적

『보험동향』

2006년 여름호(통권 38호)

2006년 7월 일

발행인	김	창	수
편집인	오	영	수

발행처 보험개발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4
등 록 1997. 7. 15. (바-2873)
대표전화 (02) 368-4000
인 쇄 소 대 화 인 쇄
전 화 (02) 2265-1330

정가 6,000원

파본은 바꾸어 드립니다.

본 자료에 실린 내용에 대한 문의는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
동향분석팀(☎368-4177, 368-4183)으로 연락하여 주십시오.